

불가리아

정보수정일자: 2012. 12.15.

작성처: 소피아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정치사회동향 / 4
- 한국과의 주요이슈 / 7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 10
- 주요 산업 동향 / 18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27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 28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34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 37
 - 대한수입규제동향 / 39
 - 관세제도 / 40
 - 주요인증제도 / 42
 - 지식재산권 / 46
 - 통관 및 운송 / 48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52
- 외국기업 투자동향 / 56
- 우리기업 투자동향 / 61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63
- 진출형태별 절차 / 69
- 투자입지여건 / 75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 79
- 조세제도 / 83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88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 89
- 물가정보 / 91
- 바이어발굴 / 92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93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96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97
- 이주정착 가이드 / 98
- 출장가이드 / 103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120
- 유관기관 웹사이트 / 124

Bulgaria



1992 MAGELLAN Geographix/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불가리아(Bulgaria), The Republic of Bulgaria
위 치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남동부에 위치 루마니아, 그리스, 흑해, 터키,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와 접경
면 적	110,993평방km(한반도의 약 1/2, 유럽 국가 중 15번째 규모) 국경 1,808km, 해안선 354km, 영해 12해리
기 후	보통적인 대륙성기후로 4계절이 있으며 연평균기온은 섭씨 10.5도 - 지역적으로 중앙의 발칸산맥을 경계로 남부 평야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북쪽은 대륙성 기후임. - 우리나라의 기후와 대체로 비슷하나 겨울에는 눈이 좀 더 많고 추우며 여름에는 기온이 더 높으나 습도가 낮아 그리 무덥지는 않음 - 겨울 평균 기온: -1 ~ -2도, 여름 평균 기온: 20 ~ 22도
수 도	소피아(SOFIA), 인구 112만 명(유동인구 포함 약 200만 명 추산)
인 구	- 737만 명(2012년) -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9.6명/천 명)로서 인구 증가율 -0.5%
주요 도시	SOFIA(120만 명), PLOVDIV(34만 명), VARNNA(32만 명), BURGAS(19만 명), STARA ZAGORA(14만 명), RUSE(16만 명)
민 족	불가리아계 650만 명(84%), 터키계 73만 명 (9.5%), 집시 34만 명(4.4%), 기타(유대인, 루마니아인, 러시아인, 그리스인 등) 15만 명(2%)
언 어	불가리아어, 상용어는 러시아어, 영어, 독어, 불어
종 교	불가리아 정교(85%), 이슬람(13%), 가톨릭(1%), 기타(1%)
건국(독립)일	- 해방절: 1878.3.3일(오토만 제국으로부터 현 불가리아북부 해방) - 실질적인 독립은 1908.9.22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현 남부까지 독립) * 이로 인해 불가리아의 경우 3.3일과 9.22일이 모두 국경일임.
정부 형태	의회 민주주의(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혼합)
국가 원수 (실권자)	○ 대통령 Rosen Plevneliev - 취임일: 2012.01.22, 임기 5년 ○ 총리 Boiko Borissov (실권자) - 취임일: 2009.7.27, 임기 4년. - 2009년 7월 5일 총선에서 창당 3년째인 신생정당 유럽발전시민당 (GREB)이 압도적인 승리로 당수인 보이코 보리소프 내각 출범. 2012년 내각출범 3년 차임.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NSI),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나. 주요 경제 지표

경상 GDP	BGN 217억 3,400만(2012년 1-9월 기준)
GDP 증가율	-3.3%(2009년), 0.5%(2010년), 1.8(2011년), 1.0(2012년 3분기 기준)
1인당 GDP	BGN 9,362(6,369달러) (2010년)
실업률	9.1%(2009년), 9.2%(2010년), 10.4%(2011년)
물가 상승률	2.8%(2009년), 2.4%(2010년), 4.2%(2011년)
화폐 단위	Lev(BGN), 복수: Leva (레바)
환율	1달러 = BGN 1.51(2012년 12월 기준)
외채	354억 3100만 유로(2011년 기준)
외환보유고	BGN 210억 6000만(2011년 기준)
산업구조	농업(3.5%), 공업(33.0%), 서비스업(63.5%) (2011년 기준, 총 부가가치(GVA)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
교역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 수출(FOB): EUR 202억 2700만 - 수입(FOB): EUR 222억 100만 - 무역수지 적자: EUR 19억 4600만 ○ 2012년(Q3) - 수출(FOB): EUR 173억 662만 - 수입(FOB): EUR 213억 5672만 - 무역수지 적자: EUR 31억 641만
주요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석유 제품, 의류 및 신발, 철강, 기계류, 식료품 등 ○ 수입: 원유 및 천연가스, 자동차 및 기계류, 직물, 철강, 의약품, 전기전자 제품, 의료기기, 가구, 자동차부품 등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NSI),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다. 한-불가리아 관계

체결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0.11. 발효) ○ 문화협정(94.4. 발효) ○ 사증면제협정(94.8. 발효) ○ 항공협정(95.2.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95.6. 발효) ○ 무역협정(96.6. 발효) ○ 해운협정(2005.11 발효) ○ 투자보장 협정(2006.11 발효) ○ 청소년 분야 협력 약정(2007.12 서명) ○ 한-불가리아 군사비밀보호협정(2009.10 서명)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2011.9 서명)
-------	--

<p>교역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 對 불가리아 수출: US\$ 17,684만 7,000 - 對 불가리아 수입: US\$ 14,040만 6,000 - 무역 흑자 3,644만 1,000달러 ○ 2012년(1-9) - 對 불가리아 수출: US\$ 7,867만 5,000 - 對 불가리아 수입: US\$ 14,196만 1,000 - 무역 적자 6,308만 6,000달러
<p>주요 교역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수출: 합성수지, 변환 및 안정기, 전기강판, 무선전화기, 에어컨 등 ○ 우리나라 수입: 직물제의류, 기타섬유제품, 자동차제어기부품, 편직제의류, 기타 금속광물, 기타 정밀화학 원료 등
<p>투자 교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투자 (2012년 8월 기준) - 투자신고 건수: 94건, 투자금액: 1억 8,493만 달러 ○ 불가리아의 대한 투자: 4건, 20만4천달러
<p>교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70여명(공관원, 지상사원, 선교사, 유학생, 자영업자 등) ○ 한인회 회장: 최중혁, 휴대폰: (+359 0) 887-330-249, bg-hanine@hanmail.net(e-mail)

자료: 불가리아 정부,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2. 정치 사회 동향

가. 불가리아 정치 체제

□ 국가조직

- 의회민주주의로 대통령은 있으나 실권은 총리가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총리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당의 총수가 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행정부는 총리를 비롯한 16개 부처로 구성된다.

□ 정치제도

- 국회는 24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은 4년마다 18세 이상의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다. 2012년 12월 현재 정당 별 구성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정당 명	성격	의석 수
GERB	유럽발전시민당(중도우파)	116
연합당	좌파	40
DPS	시민자유권리운동당(중도)	38
독립당	중도	21
블루연합당	중도우파	15
Ataka	극우파	10

자료: EIU, Wikipedia

□ 외교노선

- 불가리아는 1990년까지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으나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외교정책노선을 유럽과 미국 우호방향으로 바꾸었으며 2004년에는 NATO 회원국 및 2007년 EU 회원국이 되었다.
- 러시아와의 관계는 에너지부문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전 집권당보다는 다소간 거리를 두고 있다. NATO 회원국의 일원으로 불가리아군 600명 가량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 2014년까지 있을 예정이며 불가리아 영토 내 미군기지가 운영되고 있다.

□ 주요인사

소 속	성 명	취 임 년도	소 속 당
대통령	Rosen Plevneliev	2011	GERB
총리	Boyko Borisov	2009	GERB
외무부	Nikolay Mladenov	2010	GERB
교육과학부	Sergei Ignatov	2009	GERB
국방부	Anyu Angelov	2010	GERB
재경부	Simeon Djankov	2009	GERB
내무부	Tsvetan Tsvetanov	2009	GERB
사법부	Diana Kovacheva	2011	GERB
보건부	Mrs. Desislava Atanasova	2012	GERB
농림부	Miroslav Naydenov	2009	GERB
노동부	Toty Mladenov	2009	GERB
교통통신부	Ivaylo Moskovski	2011	GERB
경제에너지관광부	Delyan Dobrev	2012	GERB
환경수자원부	Nona Karadzhova	2009	GERB
지역개발부	Lilyana Pavlova	2011	GERB
문화부	Vezhdi Rashidov	2009	GERB
체육부	Svilen Neykov	2009	GERB
EU기금부	Tomislav Donchev	2010	GERB

자료: EIU, Wikipedia

나. 현정권

1) 2011년 가을 대통령·지방선거 결과 및 분석

2011년 10월 23일 1차 투표결과 집권당 후보인 Mr. Rosen Plevneliv가 40.5%, 사회당 Kalfin 후보가 28.1%를 얻어 두 정당대표 모두 과반수에 미달하여 10월 30일 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개표결과 집권당 후보가 52.58%, 사회당 후보가 47.42%를 얻어 Rosen Plevneliv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올해 1월 22일 Mr. Rosen Plevneliv는 제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현 집권당은 총 27개 주중 14개 지역에서 자당 후보를 당선시켜 명실상부하게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도 장악하게 되었다.

불가리아는 작년 선거를 통해 중앙행정권력과 지방권력이 공히 현 집권당의 영향 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 동안 보여 온 현 정부의 개혁드라이브와 정책노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 최근 정치 동향

현 집권당인 유럽발전시민당(GREB)은 지난 2009년 7월 5일에 치러진 불가리아 총선에서 당초 예상을 뒤엎고 과반에서 4석이 모자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단독정부를 구성, 정국 주도권을 장악했다. 올해 들어 집권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으며, 여전히 집권당으로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 집권당은 EU 및 서방과의 관계개선, EU 펀드의 지속적인 유입 및 확대를 통해 SOC와 국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한편으로는 불가리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조직범죄 근절과 사법제도 개혁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작년 대통령 및 지방선거 승리 이후, 그 동안 야당과 설전을 벌여온 사법제도 개혁과 정치범죄조직의 근절, 주요 개발 프로젝트 등이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전망

현 정부는 자신들의 주요 정책노선으로 EU 펀드 수혜 확대를 통한 국가 SOC의 현대화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작년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EU와의 협상을 통해 EU 펀드의 규모를 더욱 늘리는 한편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의 범위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진 각 지방자치 단체의 폐수처리 프로젝트를 비롯한 EU 펀드 지원 프로젝트가 연이어 발주될 것으로 보여 우리기업들도 신규로 발주되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정부의 주요 추진정책 중 하나인 행정효율화 제고와 투명한 행정절차의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도 상당한 진전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이 분야의 발주 프로젝트들도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사회 동향

EU 집행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가 EU 펀드 사기를 감시하기 위한 검찰기관과 EU 지원금 관리를 위한 조직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가리아 정부가 부정부패와 조직범죄 축소를 위한 법 및 행정 제도 개선 노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리아 정부는 EU FUND 지원금의 중지 및 연기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공공시설 건축, 농업부문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대형 프로젝트의 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EU FUND 확충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52.5억 유로의 지원을 받았고 실제로 EU에서 지불된 금액 기준으로는 15억 유로의 자금이 불가리아에 유입되었다.

공공부문, 연금, 의료서비스의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원 절약과 공기기업민영화, 탈세방지 및 EU 자금흡수 등을 통한 재원 확보 정책도 지속할 전망이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기본 관계

- 89.4 KOTRA 소피아 무역관 개설
- 90.3.23: 외교 관계 수립
- 90.6.13: 주 불가리아 한국대사관 개설(초대 대사 김좌수)
- 90.9.10: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 개설(초대 대사 Boyko Mirchev)
- 95.3: KOTRA 소피아 무역관 폐쇄
- 2002.11: KOTRA 소피아 무역관 재 개설
- 2004.1: 알렉산더 사보프(Alexander Savov) 주한 불가리아 대사 부임
- 2007.4: 김명진 주 불가리아 한국 대사(제 7대) 부임
- 2010.3: 한-불가리아 수교 20주년
- 2008.11: 코시오 키티포브(Kossio Kitipov) 주한 불가리아 대사 부임
- 2010.3: 전비호 주 불가리아 한국 대사(제 8대) 부임
- 2012.11: 빼떠르 안도노브(Petar Andonov) 現주한 불가리아 대사 부임

나. 문화 협력 현황

- 한·불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제고가 정치, 경제 분야 발전의 기초라는 공동 인식 하에, 문화 예술단 교환 방문 등과 같이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 94. 4. 문화협정 체결
 - 95. 4월, 2001.10월 및 2006. 1월 교육, 문화 협력 시행 계획서 각각 서명
 - 92. 1월 한-불 문화교류협회 발족

- 07. 12 한·불 청소년 분야 협력약정
 - 2007.12.10(월) 한·불 청소년 분야 협력 약정체결(불가리아 청소년체육청)

- 한국영화 상영 지원
 - 2008년도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11월에 제22회 시네마니아 국제영화제(08.11.14 - 30)를 통해 한국영화 소개(김기덕 감독의 “숨”)
 - 2012년 Sofia Film Fest(03.09 - 11)에 “아리랑”(2011, 감독: 김기덕) 상영

다. 주요 인사 교류 현황

- 방 한
 - 95. 04: Zelev 대통령
 - 09. 10: Parvanov 대통령 공식방한
 -
- 방 불가리아
 - 06. 06: 한명숙 국무총리
 - 10. 04: 김황식 국무총리

라. 경제 통상 협력

1) 한국의 對 불가리아 무상원조 현황

- 연수생: 162명 초청
 - 2002. 12월 KOICA 연수생 불가리아 동창회 결성
- 전문가: 11명 파견
- 기자재: 112만 달러 상당 공여
- 프로젝트
 - 소피아 장애인복지센터 건립(50만 달러)
 - 소피아대학교 한국어학과 증축(30만 달러)
- 2004. 12월 소피아에 KADO 정보접근센터 구축(30만 달러)

2) 한국과의 무역 관계

- 우리나라는 불가리아와의 교역에서 '92년부터 2011년까지 흑자를 유지하였다.
- 90년대 중반 수출액이 50백만 달러(96년)에 이르렀으나 이후 불가리아의 경제 불안, 우리나라의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여 '99년도에는 19 백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對 불가리아 무역 추이

(단위: 천 달러)

연도	對 불가리아 수출입		
	수출(FOB)	수입(CIF)	무역수지
2012(1-9)	78,675(-34.8%)	14,761(+33.3%)	-63,086
2011	176,847	140,398	36,423
2010	131,361	117,024	14,337
2009	71,601	40,436	31,165
2008	152,307	63,897	88,410
2007	191,236	36,859	154,377
2006	181,236	56,574	124,662
2005	193,304	24,032	169,272
2004	279,014	19,829	259,189
2003	57,996	18,065	39,931
2002	28,536	14,861	13,675
2001	21,557	9,745	11,812
2000	22,698	9,077	13,621

자료: KOTIS, 한국통계

- 2000년도 이후 교역 규모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도에는 수출 279백만 달러, 수입 19백만 달러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무역흑자도 최대 규모인 166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 2010년 한-불 교역규모는 24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0년 기준, 對 불가리아 수출은 전년 대비 83.5% 증가한 131백만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189%가 증가한 117백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4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24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경기침체 이전의 교역규모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9월 기준 한-불 교역규모는 220백만 달러이고 무역수지는 63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3) 한국과의 투자 관계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2년 3월말까지 한국의 對 불가리아 직접투자 총액은 신고 기준으로 총 94건에 US\$ 1억8,493만 이다.
- 이 가운데 2011년과 2012년 8월까지, 對 불가리아 직접투자액은 US\$ 8,872만을 기록했다.
- 한국의 주요 對 불가리아 투자진출 업체로는 대우가 '96년 9월 웨라톤 호텔 지분 67% (22백만 달러), '97년 5월 무역센터(Interpred) 지분 70% (24백만 달러)를 각각 인수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웨라톤 호텔은 2002년 5월 그리스 호텔 체인에, 무역센터는 2001년 12월에 이탈리아 기업에 각각 매각한 후 철수하였다.
- 현대중공업에서 '97년 7월 불가리아 국영 변압기 제조회사인 Elprom Trafo를 인수하여 현재 발전소 및 변전소용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다.
(총 투자규모 10.4 백만 달러: 초기투자 2.9 백만 달러+증액투자 7.5 백만 달러)
- 에스디엔(SDN)과 남동발전이 산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42MW 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였으며(총 투자비 1 억 5400 만유로), SDN 의 현지법인 EU SUNDAY 는 자체적으로 18MW 를 추가 건립하였다.
- SDN의 뒤를 이어 LG CNS, 현대엔지니어링, LS 산전 등이 불가리아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4) 한·불 민간경협위 개최 현황

- 90. 3: 불가리아 상공회의소 의장단 방한 시 제1차 합동회의 개최(서울)
- 93. 5: 제2차 합동회의 개최(소피아)
- 97. 6: 제4차 합동회의 개최(소피아)
- 04.10: 제5차 합동회의 개최(소피아)
- 10.05: 제6차 합동회의 개최(소피아)
- 11.06: 제7차 합동회의 개최(소피아)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연도별 거시경제 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9)
경상 GDP	백만BGN	51,783	60,185	69,295	68,322	70,511	75,265	56,446
GDP 증가율	%	6.5	6.4	6.3	-3.3	0.5	1.8	0.9
1인당 GDP	BGN	6,411	7,379	8,753	8,735	9,362	-	-
환율	BGN/달러	1.49	1.33	1.39	1.36	1.47	1.51	1.51
재정 수지	백만BGN	1,748	1,960	1,990	-626	-2,823	-1,582	-74.2
- 세입	백만BGN	20,034	24,063	27,313	25,041	23,932	25,378	22,217
- 세출	백만BGN	18,286	22,103	25,323	25,667	26,755	26,960	22,202
무역 수지	백만EUR	-5,562	-7,245	-8,597	-4,174	-2,413	-1,975	-2,717
	% GDP	-21.0	-23.5	-24.3	-11.9	-6.7	-5.1	-6.9
- 수출(FOB)	백만EUR	12,012	13,512	15,204	11,699	15,588	20,227	17,366
- 수입(FOB)	백만EUR	17,574	20,757	23,801	15,873	18,001	22,201	21,356
경상수지	백만EUR	-4,648	-7,755	-8,162	-3,118	-356	361	206.1
	% GDP	-17.6	-25.2	-23.0	-8.9	-1.0	0.9	0.5
외환보유고	백만BGN	18,634	19,130	13,944	14,711	17,086	21,060	26,098
외채	백만EUR	20,691	29,017	37,247	37,816	37,042	35,431	36,529
	% GDP	82.0	94.3	105.1	108.3	102.8	91.0	92.4
인구(연말)	만명	768	764	760	750	750	750	740
소비자 물가상승률	%	7.3	8.4	12.3	2.8	2.4	4.8	4.0
이자율	연%	2.69	3.93	5.12	2.40	0.20	0.20	0.09
실업률(연말)	%	9.1	6.9	6.3	9.1	9.2	10.4	11.0
임금(월 평균)	BGN	360	431	545	609	648	707	768
외국인 직접투자	백만EUR	6,222	9,052	6,728	2,437	1,209	1,341	2,152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NSI,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www.nsi.bg),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Bulgarian National Bank: www.bnb.bg)

나. 주요 경제 정책

1) 경제 개황

- 불가리아 경제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전통적으로 농업 부문이 강세를 보이고 철강, 화학, 전자, IT, 군수와 같은 중화학 분야에서 COMECON 시장 보호 정책에 힘입어 상당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90년대 초에 시장 경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동 중화학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농업분야에서도 개혁지연으로 동 분야에서의 경쟁력 회복도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 한편 서비스 산업 분야는 최근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서비스 산업 중심의 현대식 경제 발전을 의미하기 보다는 부진한 공업 분야에 대한 상대적인 신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총 부가가치(GVA)는 89년 29.5%에서 2010년 63.5%로 증가했으나, 민간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아직도 낮은 반면 공공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만, 관광, 통신 분야는 급 성장세 시현)
 - 반면 공업 분야가 차지하는 GVA는 89년 59.4% 에서 2011년 33%로 감소했다.
- 불가리아 경제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GVA는 1989년 이래 급성장하여 2007년 85% 이상에 도달한 바, 이는 공산주의 체제 붕괴 직후 이루어진 민간인에 대한 부동산 반환 조치와 최근 제조업 및 3차 산업의 민영화 신장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1월 EU가입을 계기로 외국의 투자가 유치를 위한 투자장려정책의 실시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제조업과 농업의 경쟁력 향상, 관광산업의 진흥 등 산업경쟁력 제고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 불가리아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서서히 실물경제에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 실업률이 10.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기업의 존속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 더불어 불가리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국인투자 및 수출 감소,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비전 2013’을 발표했다. 동 전략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함은 물론, 불가리아 투자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의 표준화 및 자동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최근에는 전세계적인 녹색성장과 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EU의 지원 하에 풍력,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비롯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 특히, 2010년부터 태양광 분야에 국내업체들의 투자 및 EPC 공사 수주로 인해 태양광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수 처리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경제 성장 확대 노력

- 불가리아는 2000년도 5% 경제 성장에 이어 2001년 4.0%, 2002년 4.5%, 2003년 5.0%, 2004년 6.6%, 2005년 6.2%, 2006년 6.3%, 2007년 6.2%, 2008년 6.0% 의 견실한 경제 성장 달성에도 불구하고 소득, 보건, 교육, 노동 등 제반 분야에서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 EU가입을 전후로 89년 사회주의 정권 붕괴 이후 퇴락한 각종 사회인프라 시설 확충을 추진(고속도로 건설, 다뉴브 강 교량공사,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하고 있으며 의료 및 교육시설에 대한 개선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 아울러 전통산업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EU의 지원 하에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프로그램과 중소기업육성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3)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 긴축재정정책 및 구조조정정책 기조 유지
 - 유로존 가입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불가리아 정부는 극심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을 전년 대비 20%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정책 기조 유지하고 있다.
 - 2010년 3월 노조, 기업, 정부 3자 공동 합의로 “정부지출 감축과 세수 확대”를 골자로 한 경제위기 대책 안을 마련했다.
 -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2011년 터진 그리스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12년에도 강화 및 유지될 전망이다.
 - 불가리아는 그리스의 인근국가로서 동유럽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고, 불가리아 내에 그리스 자본이 많이 유입되어 있어 긴축재정정책의 유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 1998년 이래 레바화를 유로화에 고정한 pegged-exchange rates system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원 절약과 공기업민영화, 탈세방지 및 EU자금 흡수 등을 통한 자원 확보 정책도 지속할 전망이다.
- EU보조금 확대를 통한 공공사업 수행
 -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2008년도에 중단된 EU로부터의 사회인프라 건설과 농업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는 일일 정도로 EU로부터의 보조금 유입재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EU는 불가리아의 만연된 부패와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이유로 각종 사회인프라 건설과 농업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킨 바 있으며 현재는 재개된 상태이다.
 - 어떠한 과정과 공약으로 EU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와 집행과정에서 이전과 달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것인지의 문제는 현정부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 행정개혁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현 정부의 주요한 선거공약중의 하나는 부정, 부패의 근절과 투명한 행정절차의 확립이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주요 부패의 온상인 지하경제의 축소를 위한 전자정부 구축과 세관행정의 전산화를 추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밀수, 외화 반출, 부정부패 등 지하 경제의 비중(전체 경제의 35% 내외 추정)이 매우 큰 바, 연합 정부는 지하 경제의 양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

- 실제로 현 정부의 경제관련 인사들은 Amcharm과의 정례 회동에서 통관 및 조세부과 및 환급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조세관련 절차의 전산화와 제도개혁을 약속했으며 공기업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형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설립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혔다.
- 아울러 입찰이나 공공사업 발주부문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운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행정정차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 최신 경제 동향

1) 경제 성장률

- 2007년 이후 EU 자금 본격 유입 등으로 자본 지출 및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었으나, 2008년 말부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긴축 재정 정책 견지로 정부 지출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부문의 임금 상승 및 건설 경기 둔화, 은행 여신에 대한 중앙은행 통제 강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국내 소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불가리아의 경제성장률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2009년 -3.3%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 그러나 2010년 이후 지속적인 민간소비 위축,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출 증가가 GDP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이끌고 있으며, 2011년 경제성장률은 1.8%를 기록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연도별 GDP 증가율

(단위: %)

주요 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9)
GDP 증가율	6.4	6.5	6.4	6.3	-3.3	0.5	1.8	1.0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NSI),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불가리아의 연도별, 경상 GDP 구성별 증감률

(단위: %, y/y)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9)
농업	-0.5	-27.3	29.6	-6.1	3.9	1.5	1.0
제조업	8.3	12.3	4.0	-7.4	2.1	5.0	0.7
서비스업	7.0	7.7	5.0	-0.8	-0.8	0.2	-1.0
GDP 증가율	6.5	6.4	6.2	-5.5	0.2	1.6	-1.0
실질구매력(PPP)	10,441	11,517	12,586	12,013	12,341	12,816	13,305

주: *, ** 는 추정치임.

자료: EIU 보고서(2012년 9월 기준)

2) 물가 상승률

-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여타 EU 회원국들과 같이 안정된 낮은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물가 안정화 요인

- 2008년까지 불가리아는 EU가입 이후 △근로자들의 기대 수준 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 압박 △EU회원국 투자자들에게 대한 부동산 매매 자유화로 인한 지가(地價) 상승 압박△외국인 직접 투자 증대 시 고용 창출 및 임금 상승 예상 △ 가변적인 국제유가 등 외부 요인 등으로 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 그러나 2008년 말부터 본격화한 금융위기 영향으로 △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기업부도로 인한 실업사태 확산 △ 임금 동결 △ 외국인 투자 급감 등의 요인으로 물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1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 2011년 4.2%, 2012년 2.5% 전망 (EIU 리포트, 12년 3월)

○ 불가리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불가리아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주요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9)
소비자 물가상승률	7.3	8.4	12.3	2.8	2.4	4.2	2.7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NSI),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3) 실업률 및 임금 상승률

○ 불가리아의 실업률은 2008년 10월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업체들의 도산 및 감원 확산,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9%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평균 실업률 전망

- 2011년 9.6%, 2012년 9.9% 전망(EIU 리포트, 12년 3월)

○ 불가리아 연도별 평균 실업률 전망은 아래와 표와 같다.

(단위: %)

주요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Q3)
실업률(연말)	9.1	6.9	6.3	9.1	9.2	10.4	14.9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NSI),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 2011년 월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BGN 752(약 US\$ 5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에도 완만한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불가리아의 연도별 월평균 임금

(단위: BGN)

주요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Q3)
임금(월 평균)	360	431	545	609	648	707	751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NSI),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4) 환율

- IMF의 관리 체제하에 있는 불가리아의 통화인 레바는 2002년부터 IMF에 의해 1유로 = 1.95583 레바로 고정되었으며 이 고정 환율은 2012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 및 세계금융위기에 영향으로 레바화의 명목 유효 환율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12월 14일 현재 환율은 1달러 = 1.51레바 수준을 보이고 있다.

5) 재정 수지

- 재정부문의 경우 2002년까지 적자 상태에 있었으나 2003년에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08년까지 6년간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였다.
- 이와 같은 재정수지 흑자 기조는 높은 경제성장 지속, 정부의 지하경제 규모 축소 및 탈세 방지 강화 노력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경기불황이 본격화 한 2009년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부양책의 실시, 2009년 7월 치러진 불가리아 총선을 위한 재정 지출의 확대에 의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 2011년 기준, 재정수지는 GDP 대비 +2.1%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백만BGN)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Q3)
재정수지	1,355	1,748	1,960	1,990	-626	-2,823	-1,582	-74.2
세입	18,012	20,034	24,063	27,313	25,041	23,933	25,378	22,127
세출	16,657	18,286	22,103	25,323	25,667	26,775	26,960	22,202
% GDP	3.0	3.4	3.3	2.9	-0.9	-4.0	-2.1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NSI),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6) 무역 및 경상 수지

- 2011년 기준, 불가리아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전년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수출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고 있다.
 - 무역수지 적자: EUR 1,975백만 (GDP의 5.1%)
- 2011년 기준, 교역 규모는 425억 유로로 수출이 203억 유로로 전년대비(156억) 30% 증가하였고, 수입은 222억 유로로 전년대비(183억 유로) 21% 증가하였다.
- 2011년 11월 기준, 불가리아의 경상수지는 2010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음. 이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따른 외환유입 증가에 기인함.
 - 경상수지 흑자: 2011년 11월 EUR 1,151백만 (GDP의 2.9%)

불가리아의 무역 및 경상수지 추이

주요지표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Q3)
무역 수지	EUR 백만	-7,245	-8,598	-4,174	-2,764	-1,975	-4,000
- 수출(FOB)	EUR 백만	13,512	15,204	11,699	15,561	20,267	17,366
- 수입(FOB)	EUR 백만	20,757	23,802	15,873	18,325	22,201	21,356
경상수지	EUR 백만	-7,755	-8,183	-3,116	-376	361	206.1
경상수지/GDP	%	-25.2	-23.1	-8.9	-1.0	0.9	0.5
무역수지/GDP	%	-23.5	-24.3	-11.9	-7.7	-5.1	-6.9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NSI),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라. 향후 경제 전망

1) 경제 성장률

- 2007년 이후 EU 자금 본격 유입 등으로 자본 지출 및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08년 말부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긴축 재정 정책 견지로 정부 지출의 괄목할만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부문의 완만한 임금 상승 및 건설 경기 둔화, 은행 여신에 대한 중앙은행 통제 강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국내 소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불가리아의 2009년 경제성장률은 -5%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 2011년 기준, 불가리아의 GDP 성장률은 1.6%로 전년 대비(0.2%) 다소 큰 폭의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현 수준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GDP 성장률: 2012년 3분기 기준, 0.9% 상승

2) 물가 상승률

-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여타 EU 회원국들과 같이 안정된 낮은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물가 안정화 요인
 - △ 부가세 인상이나 물품세 신설과 같은 조세인상 요인이 없음 △ 지속적인 긴축 재정정책 추진 △ 공공부문의 임금동결과 민간부문의 임금인상 자제
- 다만, 2011년 한해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 전기요금 및 식료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올랐으며, 2011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4.2%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도에도 국제원자재 가격과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2.5%대의 물가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1년 4.2%, 2012년 2.5% 전망 (EIU 리포트, 12년 3월)

3) 실업률

- 불가리아의 실업률은 2008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업체들의 도산 및 감원 확산,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불가리아의 2011년 실업률은 9%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 이러한 고실업률 추세는 201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평균 실업률(2012, Q3): 11.0%

4) 재정 정책

- 2008년까지 불가리아 정부는 GDP 대비 3% 대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200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재정수지 적자 전망
- 불가리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과 공공부문의 잉여 재정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이고자 하나,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2011년 지방시장 및 대통령 선거에 들어간 비용으로 인해 2011년에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 2011년 재정수지 적자는 약 16억불로서 GDP 대비 2.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불가리아 정부는 2012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1.35%로 줄이는 목표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도 약 2%내외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향후 전망

주요지표	2009	2010	2011	2012년(Q3)
실질 GDP 성장률(%)	-5.1	-0.1	1.7	0.9
실업률(연평균, %)	7.6	9.4	9.6	9.9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	2.5	2.3	4.2	4.0
수출(FOB, 십억 달러)	17.7	20.3	28.1	15.4
수입(FOB, 십억 달러)	23.4	23.5	30.9	18.4
경상수지(십억 달러)	-4.1	-0.8	1.8	0.5
외채(연말, 십억 달러)	53.3	35.4	46.8	36.5
환율(연평균, Lev: 달러)	1.40	1.46	1.41	1.51

자료: EIU 리포트(2012. 9 월)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 개황

2012년 1분기 총 부가가치(GVA) 기준 산업 부문별 비율을 살펴보면 농업은 4.03%, 공업 32.3%, 서비스 63.7% 등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총생산(GDP)에서의 점유율은 농업 3.4%, 공업 27.5%, 서비스 54.4%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부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가가치(GVA) 및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문별 비중

연번	구분	2012년 1분기		
		Value at current prices (백만레바)	Share	
			in GVA %	in GDP %
		1	Gross Value Added (2+3+4)	13,358
2	Agriculture	530	4.0	3.4
3	Industry	4,313	32.3	27.5
4	Services	8,515	63.7	54.4
5	Adjustments	2,303		14.7
6	Gross Domestic Product (1+5+7+10+13+16)	15,661		100.0
	by final use components:			
7	Final consumption (8+9)	13,612		86.9
8	Individual	12,244		78.2
9	Collective	1,368		8.7
10	Gross capital Formation (13+14)	3,496		22.4
11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3,346		21.4
12	Change in inventories	150		1.0
13	Balance (exports–imports) (17–18)	-1,447		-9.3
14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10,609		67.7
15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12,056		77.0
16	Statistical discrepancy	0		0.0

주: 2012년 1분기 평균 환율 1 달러 = BGN 1.57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NSI,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www.nsi.bg)

나. 주요 산업 동향

1) 농업현황

불가리아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은 2011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밀이 약 420만 톤 정도로 추정되며, 쌀이 40만 톤, 보리는 90만 톤, 감자는 20만 톤, 토마토는 10만 톤 정도이며 매년 강수량과 국제 곡물시세의 등귀로 수확량이 일정치 않다.

불가리아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키친”이라는 명성답게 90년대 이전에는 포도와 사과, 토마토의 수출국가였다. 특히 불가리아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감자는 유럽과 러시아는 물론 사우디와 두바이 등 중동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렸으나 90년 이후는 생산량이 줄어 현재는 자급자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불가리아는 식량 자급율이 약 60%이며 한 해 동안 불가리아가 수입한 곡물과 식품량은 10억 유로에 이르고 있으며 2007년에는 EU가입에 따른 물가 동조화 현상과 흉년으로 인해 농산물을 비롯한 식품 가격이 18.6%나 폭등, 농산물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불가리아는 우유, 치즈, 햄 등 낙농업이 발전해 있으며 요구르트의 주요 생산국으로 연간 1천4백만 리터의 요구르트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특산품인 장미오일 생산량은 2006년도 1,500Kg, 2007년도 1,200Kg, 2008년도 1,500Kg 2009년도 1,300Kg 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98%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

불가리아의 주요 농작물 생산현황(2010)

구분	면적(헥타르)	계(톤)	전체 중 온실 생산분(톤)	헥타르당 평균생산(Kg)
I. 채소 및 과일	15 181,5	356 525	80 424	
토마토	2 924,4	114 605	31 127	28 545
파프리카	4 703,5	69 080	3 164	14 014
가지	454,9	10 747	30	23 559
오이	749	63 648	44 765	25 209
작은오이	103,9	2020	282	16 727
호박	986,7	14 754	0	14 953
수박	3 302,2	61 967	6	18 763
메론	9 990,9	8 841	29	8 893
옥수수	204,3	1 742	0	8 528
기타(고추, 호박 등)	761,7	9 121	1 021	-
II. 콩류	6 640,2	15, 748	28	
껍질콩 (French beans)	654,2	4 322	28	6 563
청완두(Peas- green)	784,1	5 632	0	7 183
잠두(Broad beans-green)	2,6	12	0	4 615

마른채소				
콩 및 곡류	1 409,7	2 075	0	1 472
렌즈콩	2 879	2 672	0	928
병아리콩	910,6	1 035	0	1 136
III.잎채소	3 215,9	89 191	1 908	
배추	2 615,7	78 939	143	30 124
기타 잎채소	600,2	10 252	1 765	-
IV.구근식물	16 823,8	292 037	169	
감자	13 805	251 205	40	18 193
당근	497,6	10 576	5	21 245
양파	1 666,4	19 146	1	11 489
마늘	405,8	2 263	0	5 577
리크(Leeks)	218,9	4 928	3	22 498
씨양파(Seed onions)	130,9	1 117	0	8 532
기타	99,2	2 802	120	-
딸기	690,1	5 727	37	8 246
재배버섯	-	1 619	1 619	-
기타 채소	28,7	159	0	5 545
계	42 580,2	761 006	84 185	

자료: 불가리아 농림부

2) 광업

불가리아는 부존자원이 매우 빈약한 편이다. 석유를 비롯한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은 거의 전무하며 석탄의 부존량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매년 100억 유로의 에너지 원료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에너지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한 불가리아의 주요 광물량은 철광석이 200만 톤, 마그네슘이 120만 톤, 동광석이 950만 톤, 크롬광이 220만 톤, 금광이 150만 톤 정도로 전세계의 매장량에 비해 비중이 작은 편이나 유럽대륙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전통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철광은 자국소비량이 많아 수입이 불가피하나 동, 아연, 납, 크롬 등은 자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불가리아 광산업은 탐사와 채굴에 필요한 자본의 대부분을 외국 투자자에게 유지하고 있으나 이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의 경제위기로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규투자 유입중단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광산개발이나 탐사 및 채굴도 금융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럽의 재정위기가 진정되고 자금유입이 재개된다면 의외로 회복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지인 BMI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예측한 불가리아 광업의 총 생산 가치는 약 13 억 1000 만 레바(840 백만 달러) 정도이며 2010 년에 비해 9.2%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아울러 2012 년에도 7.4%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5 년에는 4.8%의 성장률을 보여 광업분야의 생산규모는 19 억 1000 만 레바(1.23 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광업생산 현황 및 향후 전망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석탄(백만톤)	30.0	32.3	33.0	33.5	34.2	34.5	34.7
- 변화율(%)	-5.6	7.9	2.1	1.5	0.5	1.0	0.5
구리(천톤)	107.7	110.1	115.0	116.9	118.1	120.8	123.1
- 변화율(%)	-0.9	2.2	4.5	1.6	1.0	2.3	1.9

자료: BMI

대부분의 광산이 국유에서 외국기업이나 민간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양되었으나 현재 채굴기술의 낙후, 광산개발 자금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채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불가리아 자원개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금속광물 중에서도 경제적 개발가치를 가진 광물이 부족하며 매장량 자체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광물개발회사나 자본의 투자가 부진 하다는 점이다

3) 제조업

□ 제조업개요

불가리아의 제조업은 2011년 말을 기준으로 국가 GDP의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생산액은 2005년도 불변가격으로 58.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생산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세제 분야로 23.9억 달러이며 연료분야가 8.2억 달러, 기초화학분야가 4.6억 달러, 식품분야가 2.9억 달러, 섬유, 피혁분야가 2.4억 달러 순이다.

불가리아의 제조업은 2016년까지 그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어 21.2%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21년에는 21.4%로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불가리아 제조업은 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재 중심이며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약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재가 9.0%, 중간재가 35.4%, 내구성 소비재의 비중이 0.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불가리아 제조업 현황 및 향후 전망

구분	제조업비중(%) 2011년말 기준	생산규모 (십억 달러)	평균성장률(%) 2007-2011	예측성장률(%) 2012-2016
소비재 (비내구재)	54,9	3,22	12,3	4,4
식음료 및 담배	4,9	0,29	-7,4	4,8
섬유 피혁	4,2	0,24	-9,7	1,9
인쇄 출판	0,9	0,05	-8,1	2,7
제약	4,3	0,25	-3,3	7,9
세제	40,7	2,39	31,9	4,3
소비재(내구성제품)	0,6	0,03	-13,6	4,7
가정용품	0,3	0,02	-8,2	6,2
가전제품	0,0	0,00	-19,1	5,0
가구	0,3	0,00	-16,0	3,3
기타	0,1	0,00	-16	4,5
중간재	35,4	2,08	-2,9	5
목재	0,4	0,02	-10,5	6,8
펄프 제지	0,1	0,01	-24,5	7,9
연료	14	0,82	-0,1	5,5
기초화학	7,9	0,46	-11,1	4,4
살충제	0,1	0,00	-14,3	5,7
페인트	0,7	0,04	9,5	5,7
기타 화학원료	4,0	0,23	4,4	4,1
수제섬유	1,1	0,06	6,9	4,5
고무 플라스틱	1,3	0,07	-4,3	6,1
비철금속	3,4	0,20	9,3	4,2
기초금속	0,5	0,03	-19,1	3,4
전기제품	0,6	0,04	-4,9	5,1
기타전기제품	0,5	0,03	5,2	6,3
전기부품	0,7	0,04	14,5	5,7
수리/설치기계	0,1	0,01	-2,6	6
자본재	9,0	0,53	3,1	6,3
금속	1,4	0,08	-6,6	5,5
일반기계	3,6	0,21	7,2	6,3
특수기계	1,4	0,08	3,8	7,4
컴퓨터 사무용품	0,0	0,00	-27,0	5,1
모터, 발전기, 변압기	0,1	0,01	-12,5	7,7
통신장비	0,3	0,02	-12,0	6
정밀기계 광학기계	1,2	0,07	32,9	6,3
자동차 및 부품	0,1	0,01	-5,7	6,2
기타수송장비	0,8	0,05	1,6	5,9
합계	100	5,86	4,4	4,8

자료: Oxford Economics

□ 식음료

식품 및 음료산업은 불가리아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로 주요 생산품은 유제품, 낙농가공품, 육류가공품, 과일 통조림, 제과, 음료수, 맥주 등이다.

2010년 기준으로 한 각 분야별 생산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제품	2009	2010	변화율(%)
1. 우유 (톤)	1,231,760	1,277,704	3,7
젖소 우유	1,073,401	1,124,360	4,7
버팔로 우유	7,022	7,933	13
양 우유	87,247	85,001	-2,6
염소 우유	64,090	60,410	-5,7
2. 고기 (톤)	243,634	214,240	-12,1
붉은색 고기	113,461	107,325	-5,4
흰색 고기	130,163	106,915	-17,9
3. 계란 (천개)	1,429,221	1,437,543	0,6
4. 꿀	9,529	10,595	11,2

자료: 불가리아 농림부

□ 담배

조사전문기관인 Euro Monitor 에 따르면 2009 년 말을 기준으로 한 불가리아의 담배 판매량은 연간 164 억 개피로 금액기준으로는 29 억 레바 (14.8 억 유로) 규모의 시장이다.

이는 2008 년 말을 기준으로 양적으로는 약 12%가 감소된 수치이며 금액 면에서도 1%가 줄어든 규모이다. 이는 금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다 각 브랜드간의 치열한 가격인하 경쟁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수요부진에도 불구하고 저 타르 담배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약 24%가 늘어나 전반적인 수요 경향은 순하고 독성이 약한 담배를 선호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보면 65%가 국영 담배회사인 Bulgartabac 이 차지하고 있어 시장지배자의 위치에 있으며 뒤를 이어 Phillip Morris, British American Tobacco 사 등이다.

□ 화학

불가리아 제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화학산업분야로 2010 년 말을 기준으로 한 전체 부가가치 생산액은 US\$75 억이며 제조업 생산의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학산업 중 가장 활발한 분야는 세제제조이며 석유화학 분야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0 년 말을 기준으로 한 불가리아의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능력은 에틸렌 450,000 톤, 프로필렌 80,000 톤, 부타디엔 50,000 톤 및 35,000 톤의 벤젠과 40,000 톤의 스틸렌 그리고 35,000 톤의 파라실렌에 대한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120,000 톤의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80,000 톤의 폴리프로필렌, 70,000 톤의 폴리 스틸렌 및 35,000 톤의 스틸렌 브타디엔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불가리아석유화학부문 생산능력현황 및 향후 전망

(단위: 천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에틸렌	450	450	450	450	450
프로필렌	80	80	80	80	80
부타디엔	50	50	50	50	50
벤젠	35	35	35	35	35
LDPE	120	120	120	120	120
PE	120	120	120	120	120
PP	80	80	80	80	80
스티렌	40	40	40	40	40
폴리스티렌	70	70	70	70	70
스틸렌 부타디엔	35	35	35	35	35
픽실렌(Xylenes)	35	35	35	35	35

자료: World Cracker Report, CMAI

□ 기계

기계산업은 공산주의 시절부터 불가리아의 핵심 제조업분야였다. 불가리아는 소형 기계로부터 대형기계까지 다양한 종류를 생산해 내며 특히 계측기계, 금속가공 기계분야에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불가리아의 총 기계생산 규모는 일반기계가 18억 달러, 특수기계가 7억 달러로 총 25억 달러로 제조업의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도 9.8%를 차지하던 것에 비해 현저하게 퇴보한 것으로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부진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수출품목으로서 소형 기계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정도이다.

□ 금속

불가리아는 전통적으로 금속공업에 매우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주요 무기류의 재료가 되는 특수금속, 합금, 연금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왔다.

불가리아는 2000년대 중반에는 연간 250만 톤 정도의 철강생산을 보였으나 대표적인 제철소인 Kremikovci 제철소의 가동중단으로 급격하게 생산량이 줄어들어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약 130만 톤에 그치고 있다.

주요 생산품은 냉연, 열연, 봉재 등 기초적인 제품들이며 특수강이나 합금강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비철금속은 주로 구리, 아연, 납, 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유럽국가 중에서는 상당한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한 불가리아의 구리생산량은 498,024톤으로 가장 큰 기업은 Arubis Bulgaria사이다.

불가리아의 납 생산량은 2009년도 말을 기준으로 83,104톤으로 KCM사와 OCK사 등 2개

기업이 전담하고 있다. KCM사의 생산량이 61,768톤이며 OCK사의 생산량은 25.7%인 21,336톤 이다. 2009년도 불가리아의 납 생산량은 전년대비 6%나 감소하였으며 현재 불가리아의 납 생산 현황은 세계 생산량의 0.953%, EU 27개국 생산량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알루미늄 생산량은 2009 년 말을 기준으로 66,063 톤으로 Alkomet, Steelmet, Precise Inter Holding 사 등 3 개사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2009 년 말을 기준으로 한 불가리아의 알루미늄 소비량은 62,355 톤이며 국내생산량은 전체 소비를 충당하고 약간 잉여분이 발생하고 있는 수준이다.

□ 페인트, 바니쉬

불가리아의 연간 페인트 시장규모는 2009 년 말을 기준으로 US\$4 억 정도에 불과한 협소한 시장이다. 산업용과 가정용의 구성 비율은 약 4:6 정도이며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8 년에 비해 50%가까이 소비가 줄어들었다.

현재 불가리아의 페인트 시장은 국내의 4 개 업체와 외국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페인트 제조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국제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

불가리아에서 가장 유력한 업체는 Orgachim 사로 전체 시장의 약 38%를 점유하고 있으며 1998 년에 민영화 되어 현재의 소유주는 몰타 기업이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불황의 지속은 페인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수입과 생산량을 동시에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불가리아는 주로 건설, 공장, 가구, 전자제품,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페인트를 생산하고 있으나 최고급 제품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주된 수출국도 구공산권 국가와 중동에 치우치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는 대형 자동차 생산시설이나 산업시설과 같은 대형 수요자가 없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페인트 생산업체가 등장할 여지가 희박하나 전반적인 DIY 수요가 늘고 있고 산업시설과 건축물 개보수에 필요한 페인트의 수요는 매우 큰 편이다.

또한 경기회복시 붐을 이루게 될 신규 건설공사나 대형 인프라시설 건설에 사용될 페인트 수요를 감안하면 2020 년까지 연 평균 10-15%의 소비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섬유, 의류업

불가리아 섬유산업의 수준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섬유 사나 직물을 제조하는 기업은 없으며 의류제조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료를 터키와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반면에 섬유를 원료로 한 의류제조업은 관광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갖고 있다. 불가리아의 의류산업은 약 3 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약 17 만 명이 동 분야에 종사하여 제조업 고용비중의 22.4%를 차지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의류산업은 여성의류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은 바지와 스커트, 자켓, 드레스, 셔츠, 캐주얼 상의 등임. 의류제조업은 제조업 생산의 4%를 담당하고 있으며 EU 의류생산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리아는 의류생산에 필요한 직물과 원단의 수입이 많은 편이며 극심한 불황이 해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08 년도 이전의 수준으로 섬유류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 년 말을 기준으로 약 5 백만 불의 대 불가리아 섬유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격의 교차탄력성이 큰 품목 특성상 한-EU FTA 가 발효된 이후에는 20% 이상의 수출신장세가 기대되고 있다.

□ 의약품

불가리아의 의약품 산업 부가가치 규모는 2010 년 말을 기준으로 US\$24 억이며 제조업 중 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가리아 제약 업은 주로 원료의약품보다는 완성품에 치중해 있으며 복제의약품의 비중이 80%를 넘고 있다.

2009 년 말을 기준으로 한 불가리아 내수 의약품 시장의 규모는 약 15 억 레바 (약 9.5 억 달러)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9 년 내수 의약품 시장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규모(BGN)	비중(%)
병원판매	285,765,805	18.4
약국판매	1,267,107,703	81.6
총 계	1,552,873,508	100.0

주: 1 유로=1.95583 레바

자료: Bulgarian Drug Agency.

단, 처방전 판매의 경우 시장 규모는 1,294,591,397 레바(약 6 억 5 천만 유로)이며 비중은 전체 시장의 83.4%이다.

의약품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331.1	407.9	542.6	649.0	729.5	825.6
-변화율(%)	32.6	23.2	33.0	19.6	12.4	13.2
수입	766.8	805.6	874.6	1,035.9	1,021.8	1,067.1
-변화율(%)	26.6	5.1	8.6	18.4	-1.4	4.4
수지	-435.6	-397.7	-332.0	-386.9	-292.3	-241.5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INTRACEN) and Eurostat.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EU 집행위가 EU의 27개 회원국으로부터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지역무역협정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EU 27개국 모두에 적용된다.

□ EU의 FTA 정책

EU 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 ‘지역 대 지역’ 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국과의 양자간 협정보다는 지역통합체와의 ‘지역 대 지역 협정’ 체결에 더 중점을 두어 왔다. 또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혜협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9 년을 기점으로 하여 EU 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되어 ‘지역 대 지역 협정’ 이외에 개별국과의 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 동기와 함께 상업적 동기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까지는 EU 가 인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EU 의 안보를 모색하는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거하여 인접국과의 FTA 를 추진해왔으나 1999 년부터는 이와 함께 신흥성장시장을 대상으로 원래 의미, 즉 상업적 의미의 FTA 도 병행 추진함을 의미한다.

□ EU의 FTA의 주요 특징

EU는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의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형태도 FTA, 경제협력협정, 안정화협정, 무역개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자국 FTA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한 롤 모델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체결한 FTA 별로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지역무역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능한 FTA에서 양측 상품 무역의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과의 협상에서는 이를 고수하고 있지는 않다.

EU는 지난 2006년 10월 ‘신통상정책’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추진대상국으로 한국, 인도, ASEAN, 러시아, MERCOSUR, GCC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 인도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EU는 ACP 국가, Mercosur, GCC 국가, 그리고 일부 발칸 국가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역 대 지역 차원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협상 진행 속도가 부진한 편이다.

한-EU FTA 는 브뤼셀 ASEAM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이명박 대통령과 Herman Van Rompuy EU 정상회담 상임의장, Jose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 등이 임석한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간에 한-EU FTA 가 정식 서명되었다. EU 와 한국의 자유무역 협정은 지난 2007 년 5 월부터 협상이 개시돼 2009 년 7 월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고, 2009 년 10 월 15 일에 가서명 됐다.

□ 한-EU FTA 발효

EU 특별이사회는 2010년 9월 16일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한-EU간 FTA 협정안을 승인하였고, 2011년 2월 17일 유럽 의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한국 측에서는 2011년 5월 4일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무역 동향

- 2011 기준, 불가리아의 교역 규모는 396억 유로를 기록하여 전년 (348억 유로)보다 약 13.8% 증가하였다.
- 2011.11월 기준, 불가리아의 수출(FOB 기준)이 185억 유로를 기록하여 전년대비(156억)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CIF 기준)은 211억 유로로 9.5% 증가하였다.
- 무역수지 적자는 26억 유로로 전년(37억)보다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적자폭의 감소는 수출 증가에 따른 영향이며, 불가리아는 2010년부터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가리아의 최근 교역 동향

(단위: 백만 유로)

연도별	수출(FOB)	수입(CIF)	무역수지
2012(Q3)	17,366	21,356	-2,717
2011	20,226	22,201	-1,974
2010	15,561	18,324	-2,763
2009	11,699	15,873	-4,173
2008	15,204	23,801	-8,597
2007	13,511	20,757	-7,245
2006	12,011	17,574	5,562
2005	9,466	13,876	-4,409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나.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 주요 국가별 수출

- 2011년 수출 실적 기준, 불가리아의 최대 수출국은 독일(점유율 11.9%)이며, 그 다음으로는 루마니아, 터키, 이탈리아 등의 순임. 불가리아의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FOB 기준)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불가리아의 주요 수출국 및 수출 실적

(단위: 백만 유로, %)

국가	2008	2009	2010	2011
EU countries – 27 incl.:	9104.0	7586.6	9462.2	12635.5
EU countries – 15 incl.: ¹	7057.2	5922.7	7106.8	9512.6
Austria	312.9	229.5	293.8	389.7
Belgium	897.3	663.8	587.3	1034.0
Denmark	41.4	35.3	57.5	139.7
Finland	28.4	19.5	27.3	36.9
France	629.6	524.1	628.4	857.3
Germany	1383.3	1320.4	1658.7	2413.0
Greece	1508.5	1117.8	1236.8	1425.4
Ireland	13.0	8.0	8.6	14.8
Italy	1271.9	1092.6	1511.2	1720.7
Luxembourg	4.7	12.6	20.4	18.4
Netherlands	216.2	185.1	234.5	359.6
Portugal	26.4	41.8	45.3	83.2
Spain	334.2	377.0	415.9	543.8
Sweden	70.3	65.5	78.1	97.8
G. Britain	319.1	229.8	303.0	378.2
EU countries – new member states incl.: ²	2046.8	1663.9	2355.3	3123.0
Cyprus	93.0	54.3	45.8	62.7
Czech Republic	135.1	94.0	146.4	217.6
Estonia	5.2	4.6	10.9	12.3
Hungary	142.5	135.2	198.1	255.4
Latvia	18.5	12.5	16.9	23.2
Lithuania	26.6	18.9	23.4	26.4
Malta	10.1	6.3	6.3	31.2
Poland	290.3	183.8	267.5	361.1
Romania	1102.9	1009.9	1417.4	1932.7
Slovak Republic	102.9	94.7	104.6	110.9
Slovenia	119.6	49.7	118.0	89.3
Europe incl.: ³	899.0	634.3	1183.4	1683.9
Russia	412.6	292.0	441.3	525.8
Switzerland	79.9	83.8	99.1	125.0
Ukraine	176.5	100.2	198.0	283.4
Balkan countries ⁴	2651.1	1683.8	2423.4	2881.5
Albania	72.9	63.5	58.6	51.7
Bosnia and Herzegovina	52.6	40.3	33.3	40.9
Croatia	126.9	69.0	81.9	82.7

Turkey	1338.7	846.5	1317.2	1723.7
Macedonia	342.6	239.2	332.4	448.2
Serbia	707.0	414.9	586.7	522.2
Montenegro	10.3	10.4	13.3	12.1
America	429.6	265.5	324.9	466.1
Brazil	37.4	12.8	25.0	28.9
Canada	40.5	31.6	27.5	86.2
United States	237.1	182.9	212.0	262.9
Asia incl.:	1450.1	910.2	1341.7	1537.7
China	109.6	96.0	187.4	292.2
Georgia	131.7	95.0	144.1	229.3
Japan	17.9	14.3	16.2	22.9
Other countries	670.2	618.7	825.7	1022.0
수출 총계(FOB)	15204.0	11699.2	15561.2	20226.7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 주요 국별 수입

- 2011년 수입 실적 기준으로 불가리아의 최대 수입국은 러시아(16.5%)이며, 그 다음으로는 독일, 이탈리아, 중국, 루마니아, 그리스 등의 순임. 불가리아의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CIF 기준)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불가리아의 주요 수입국 및 수입 실적

(단위: 백만 유로, %)

국가	2008	2009	2010	2011
EU countries - 27 incl.:	12716.3	8996.9	9840.2	11297.6
EU countries - 15 incl.: ¹	9613.2	6749.0	7238.8	8265.1
Austria	597.9	423.6	394.9	460.3
Belgium	335.6	275.0	269.0	319.8
Denmark	97.8	89.4	89.6	85.9
Finland	103.8	71.6	64.1	63.8
France	914.3	662.4	650.5	781.7
Germany	2753.9	1865.4	2004.9	2272.1
Greece	1172.3	931.1	1032.5	1164.3
Ireland	93.7	67.0	76.5	82.0
Italy	1981.4	1334.4	1458.0	1691.2
Luxembourg	18.4	10.4	11.5	15.3
Netherlands	426.7	314.6	341.3	366.5
Portugal	34.2	38.6	55.2	54.4
Spain	446.6	311.2	361.8	358.7
Sweden	204.4	112.7	138.7	176.8
G. Britain	431.9	241.7	290.2	372.2
EU countries - new member states incl.: ²	3103.1	2247.8	2601.3	3032.6

Cyprus	10.3	10.3	21.2	51.8
Czech Republic	476.8	431.7	342.3	365.2
Estonia	4.8	4.5	4.5	7.5
Hungary	494.1	359.4	386.4	434.3
Latvia	6.8	3.4	3.6	5.6
Lithuania	24.1	17.7	27.6	32.3
Malta	4.3	7.8	8.8	13.7
Poland	568.7	392.4	437.8	476.4
Romania	1188.2	790.2	1134.9	1356.7
Slovak Republic	199.1	135.3	140.1	182.2
Slovenia	126.0	95.1	94.2	106.9
Europe incl.: ³	5583.6	3210.6	4001.5	4876.8
Russia	4430.7	2614.5	3292.2	3871.1
Switzerland	231.5	182.3	202.7	234.6
Ukraine	842.5	357.5	456.6	698.2
Balkan countries incl.: ⁴	1969.1	1313.8	1600.4	1658.7
Albania	7.3	7.3	13.2	17.3
Bosnia and Herzegovina	15.4	5.5	7.0	9.6
Croatia	65.2	37.8	41.4	32.8
Turkey	1407.2	935.2	1067.0	1083.5
Macedonia	283.4	175.9	253.8	253.8
Serbia	190.5	151.2	216.3	261.6
Montenegro	0.1	0.9	1.6	0.0
America incl.:	1338.3	982.4	1030.7	1625.2
Brazil	209.6	164.2	109.3	259.7
Canada	47.9	53.3	43.7	173.7
United States	496.4	314.9	292.6	377.2
Asia incl.:	3240.8	2207.1	2576.9	3655.5
China	1331.4	908.2	1045.1	1397.5
Georgia	132.7	102.8	127.3	142.9
Japan	344.6	174.0	176.3	183.6
Other countries	246.1	164.6	195.2	232.2
TOTAL IMPORTS /CIF/	25094.2	16875.4	19244.8	23346.0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다.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 불가리아의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FOB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가리아의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EUR 백만, %)

품목	2008	2009	2010	2011
Consumer goods	3417.7	3289.6	3950.8	4481.8
Food	617.7	669.8	839.1	900.0
Tobacco	38.7	67.2	126.5	152.9
Beverages	105.5	72.3	75.2	89.7
Clothing and footwear	1384.0	1183.5	1359.0	1524.3
Medicines and cosmetics	329.2	389.7	534.3	618.6
Furniture and household appliances	568.1	560.9	573.2	653.4
Others	374.6	346.1	443.5	542.9
Raw materials	6765.2	4993.2	6824.3	9411.2
Iron and steel	940.2	437.7	658.7	893.8
Other metals	1788.0	1218.7	1784.5	2516.5
Chemicals	413.9	217.9	254.9	323.5
Plastics and rubber	353.7	284.4	373.6	504.6
Fertilizers	181.9	43.4	130.5	200.0
Textiles	472.3	379.0	322.2	395.7
Raw materials for the food industry	967.2	920.7	1309.0	1821.7
Wood products, paper and paperboard	258.5	183.1	322.5	386.3
Cement	18.0	9.1	11.3	13.6
Raw tobacco	154.5	206.5	145.5	164.3
Others	1217.1	1092.5	1511.5	2191.1
Investment goods	2516.0	1898.3	2666.9	3528.5
Machines and equipment	798.5	541.4	700.9	953.7
Electrical machines	251.1	273.6	341.7	548.2
Vehicles	199.5	200.1	311.2	390.9
Spare parts and equipment	560.9	371.0	580.5	764.2
Others	706.0	512.2	732.7	871.5
Total non energy commodities	12698.9	10181.2	13442.1	17421.5
Mineral fuels, oils and electricity	2500.9	1513.2	2113.6	2797.3
Petroleum products	1981.2	1190.8	1661.1	2186.7
Others	519.7	322.4	452.5	610.6
Other Exports ¹	4.1	4.8	5.5	7.9
TOTAL EXPORTS /FOB/	15204.0	11699.2	15561.2	20226.7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 불가리아의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CIF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가리아의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백만 유로, %)

품목	2008	2009	2010	2011
Consumer goods	4330.9	3494.1	3845.4	4226.5
Food, drinks and tobacco	1082.7	1111.1	1176.0	1380.9
Furniture and household appliances	968.2	710.8	672.9	638.7
Medicines and cosmetics	732.8	735.6	801.5	912.0
Clothing and footwear	346.5	285.4	463.3	462.9
Automobiles	549.9	170.0	182.0	237.3
Others	650.9	481.1	549.6	594.6
Raw materials	8414.3	5771.4	6866.6	8736.6
Ores	904.1	722.9	998.3	1470.7
Iron and steel	1333.5	503.7	636.0	960.4
Other metals	628.5	303.5	517.2	679.4
Textiles	1198.6	933.7	927.5	1088.3
Wood products, paper and paperboard	492.8	349.1	376.0	422.2
Chemicals	377.1	294.0	402.5	462.2
Plastics and rubber	1112.0	794.1	971.0	1117.2
Raw materials for the food industry	473.8	403.0	477.3	572.6
Raw skins	80.5	66.7	79.8	96.4
Raw tobacco	74.7	86.7	97.6	102.5
Others	1738.5	1314.1	1383.3	1764.8
Investment goods	6871.1	4206.3	4201.7	4961.5
Machines and equipment	2377.4	1506.1	1349.2	1569.1
Electrical machines	875.2	718.4	772.4	776.7
Vehicles	1662.3	559.0	574.4	846.5
Spare parts and equipment	807.0	551.0	746.6	1074.9
Others	1149.2	871.7	759.2	694.4
Total non energy commodities	19616.3	13471.7	14913.7	17924.7
Mineral fuels, oils and electricity	5458.6	3365.2	4273.7	5365.1
Fuels	4788.9	2855.5	3410.2	4180.4
Crude oil and Natural gas	4298.6	2588.5	3116.8	3830.8
Coal	442.9	236.2	247.7	303.6
Others	47.4	30.8	45.7	46.0
Others	669.7	509.7	863.5	1184.7
Oils	669.7	509.7	863.5	1184.7
Electricity	0.0	0.0	0.0	0.0
Other Imports ¹	19.3	38.4	57.4	56.2
TOTAL IMPORTS /CIF/	25094.2	16875.4	19244.8	23346.0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불간 교역 동향

- 우리나라는 불가리아와의 교역에서 '92년부터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 90년대 중반 수출액이 5천만 달러(96년)에 이르렀으나 이후 불가리아의 경제불안, 우리나라의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여 '99년도에는 천 9 백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 2000년도 이후 교역 규모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도에는 수출 279백만 달러, 수입 19백만 달러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무역흑자도 최대 규모인 16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2010년 한-불 교역규모는 24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0년 기준, 對 불가리아 수출은 전년 대비 83.5% 증가한 131백만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189%가 증가한 117백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4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24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경기침체 이전의 교역규모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기준 한-불 교역규모는 317백만 달러이고 무역수지는 36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對 불가리아 무역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對 불가리아 수출입		
	수출(FOB)	수입(CIF)	무역수지
2012(1-9)	78,675	141,761	-63,086
2011	176,847	140,398	36,423
2010	131,361	117,024	14,337
2009	71,601	40,436	31,165
2008	152,307	63,897	88,410
2007	191,236	36,859	154,377
2006	181,236	56,574	124,662
2005	193,304	24,032	169,272
2004	279,014	19,829	259,189
2003	57,996	18,065	39,931
2002	28,536	14,861	13,675
2001	21,557	9,745	11,812
2000	22,698	9,077	13,621

자료: KOTIS, 한국통계

□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 실적

- 한국의 對 불가리아 주종 수출 품목은 기타개별소자반도체(태양광모듈),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자동차, 철강재 부품, 동축케이블, 기지국, 전자계산기 부품, 정지형 변환기, 폴리에스테르 섬유, 특수차량용 부품, 타이어 등이다.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의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 실적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1		2012. 1-7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76,821	34.6	61,725	-40.3
1	합성수지	24,390	44.1	171,76	21.7
2	승용차	22,927	15.2	5,637	-58.2
3	개별소자반도체	53,934	31.2	4,145	-84.1
4	변환 및 안정기	3,167	44.9	3,843	88.6
5	기타 전자 응용기기	6,400	87.4	2,217	-44.1
6	철강재용기	0	-	1,950	-
7	무선 교환기 및 중계기	8,591	183.2	1,774	-69.7
8	전기 강판	305	-82.4	1,474	383.4
9	자동차 부품	3,450	54.8	1,280	-38.8
10	타이어	2,665	18.7	1,192	-43.0
11	연결부품	1,929	130.0	1,028	-15.8
12	폴리에스텔 섬유	2,439	134.9	976	-24.1
13	무선전화기	746	-62.4	962	278.9
14	에어컨	100	-26.8	959	855.8
15	석도강판	9	-48.4	939	-
16	인쇄용지	1,522	191.1	880	-19.7
17	기타 플라스틱 제품	1,057	29.9	873	40.3
18	VCR	741	-20.6	842	112.1
19	음료	279	-1.3	616	212.6
20	의료용전자기기	823	-5.9	532	16.9

자료: KOTIS, 한국통계

□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주요 수입 품목 및 수입 실적

- 한국의 對 불가리아 주종 수입 품목은 귀금속 잔재물, 기타금속광물(알루미늄, 동 스크랩), 밀, 잎담배, 가공처리 한 감각류, 자동제어기, 기타 수력엔진과 모터, 온도계, 습도계 부품 등이다.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주요 수입 품목 및 수입 실적

(단위: 미\$ 천, %)

순위	품목명	2011		2012. 1-9 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40,398	20.0	116,355	33.3
1	기타 금속 광물	89,342	107.3	104,900	55.2
2	기타 정밀 화학 원료	1,024	88.0	5,568	57.3
3	직물제의류	3,913	19.6	4,053	51.9
4	기타섬유제품	575	129.9	2,819	439.9
5	자동차제어부품	1,394	29.7	2,769	269.8
6	자동제어기	3,136	87.1	1,638	-21.7
7	연초류	5,431	103.2	1,746	-49.7
8	편직제의류	1,707	65.5	1,725	39.5
9	자동차부품	2,417	61.2	1,237	-31.8
10	원동기	2,300	84.5	1,475	-20.4
11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2,443	-29.9	1,206	-45.4
12	운반하역기계부품	362	452.4	1,383	511.4
13	직접회로반도체	1,422	-37.8	958	1.4
14	기타전자응용기기	13	686.8	888	-63.7
15	스키용품	815	122.5	1,201	75.2
26	동과 및 스크랩	3,932	84.9	625	-81.4
17	기타 수산 가공품	3,513	-20.1	888	-63.7
18	가죽제가방	704	382.5	517	-5.9
19	스위치	447	238	399	17.2
20	의약품	1,283	-2.6	378	-49.9

자료: KOTIS, 한국통계

3. 수입규제제도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적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가. 수입규제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 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의 27개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해지고 있다.

□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사실의 존재: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가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 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관세 부과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 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 세이프가드 조치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는데 감시 (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수산물이나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 역시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군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한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11년 4월 5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다음과 같은 품목이다.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관세	- PET 칩 - 철강제 관연결구류 * 철강 로프와 케이블과 실리콘(우회덤핑)

5. 관세제도

가. 개요

2007년 1월 1일부로 유럽 연합(EU)에 가입한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 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속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 한편, EU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다.

3) 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벨기에 경우에는 21%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4)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 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가지(표준 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 혜택, GSP+)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 GSP 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노동권 보호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5)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U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공동의 세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번호이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6.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킹 제도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2009/142/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2006/95/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93/68/EEC
폭발 제품(Pyrotecnic articles)	2007/23/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효율규정	92/42/EEC, 93/68/EEC, 2004/8/EC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2006/42/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98/79/EC, 2000/70/EC, 2007/47/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93/42/EEC, 93/68/EEC, 2007/47/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2009/23/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93/68/EEC, 93/95/EEC, 96/56/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 안전(Safety of toys)	88/378/EEC, 93/68/EEC, 2009/48/EC
여가용 선박	94/25/EC, 2003/44/EC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04/108/EC
측정기기	2004/22/EC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1년 3월말 기준 24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 에코라벨 대상 품목:
 -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식기세제, 세탁세제, 비누/샴푸/헤어컨디셔너)
 - 의류(섬유 제품, 신발)
 -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 전자제품(PC, 노트북, TV)
 -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 가구(목재가구)
 -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 Lubricants
 -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 종이제품(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 에코라벨 기준 제정 중인 품목
 - 건물
 - Ecolabel-Eup project(laptops, desktops, lighting, washing machines, refrigerators)
 - Imaging equipment
 - Printed paper
 - Toilets
 - Taps and showerheads
 - Heating systems
 - Laundry detergents, Detergents for dishwashers for professional use
 - Newsprint

다.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 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Switzerland: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품목) - 최저 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라벨링 지침 (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에 운영하는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라벨 사용 ○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15품목) ○ 시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에너지부 (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7. 지식재산권

가. 개요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나. 특허권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불가리아를 포함하여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제도이며, 둘째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허락 받는 방법이다. 유럽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인이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특허제도는 27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제도와 별도로 현재 공동체 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 특허제도란 하나의 출원을 통해 등록 받은 특허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에 대한 재판도 공동체 특허법원이 전담하는 개념이다.

다. 상표권

불가리아를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라. 디자인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공동체 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5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마.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녹음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격에 대한 재판매권 부과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재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바. 불가리아 특허청

불가리아에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 특허청에 관련 구비 서류를 제출 및 심사를 거쳐야 하며 등록된 특허는 불가리아 내에서만 유효하다. 만약 추가로 인근 국가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려면 추가 절차를 밟아야만 된다.

유럽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인이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유럽특허청을 통해 출원한 특허도 불가리아 내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불가리아 특허청에 관련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특허 등록을 다시 한번 득해야만 된다.

□ 불가리아 특허청 연락처정보

- Patent Office of the Republic of Bulgaria
- 52 b, Dr G.M.Dimitrov Blvd. Sofia 1040
- Department International Registration
- Contact person: Mrs.Veneta Shamandura
- tel: (+359) 2 9701 338 (326)
- fax: (+359) 2 873 52 58
- e-mail: vshamandura@bpo.bg
- http://www1.bpo.bg

8. 통관/운송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하는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절차다. 불가리아 수입 절차를 완료하여 수입된 외국 물품(EU 역외국 물품을 의미)은 불가리아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 이동될 수 있다. 수입 신고는 수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 법인,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다.

신고된 물품 중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불가리아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통관 절차 흐름도

- 출항→입항→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물품 보세 구역 반입→장치 확인→수입 신고→심사→물품 검사→관세 등 제세 납부

나. 통관 구비 서류

- 통관 시에는 선하증권(B/L), 인보이스(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요구하기도 한다.
- 수입 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EU의 관세 분류 번호는 EU 집행위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다.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 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20%)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 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 담당 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라.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불가리아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불가리아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 관세 부과액

-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불가리아 경우 20%)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의 경우에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마. 주요 항구

- 불가리아의 주요 무역항구는 불가리아의 동해안인 흑해에 위치한 바르나(Varna)항과 부르가스(Burgas)항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바르나 항: www.port-varna.bg
 - 부르가스 항: www.port-burgas.com

바. 컨테이너 비용

- 한국의 부산항에서 불가리아 바르나 또는 부르가스 항까지의 컨테이너 운송 비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일: 2011년 9월. 13일 기준)
 - 20ft: 2,500 ~ 2,600달러
 - 40ft: 4,600 ~ 4,800달러
 - 40ft HC: 5,000 ~ 5,200달러
- 초과 정박에 따른 체선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컨테이너의 정박 가능 기간은 7일이며 7일이 지난 후부터는 체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 체선 비용은 40' FCL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하루 기준 14달러이며, 체선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이후에는 하루기준 24달러를 지불해야 된다.

사. 불가리아 운송회사 리스트

- ORBIT Ltd
 - Address: 16, Prodan Tarakchiev Str., 1540 Sofia, Airport Area
 - Tel: +359 2 970.6300
 - Fax: +359 2 970.6333
 - Web: www.orbit.bg
 - E-mail: orbit@orbit.bg
 - Contact person: Mr. Vladimir Dimitrov, Sales manager

- TRANSLAND Ltd
 - Address: 122, Todor Dzhebarov Str., office 3 Manastirski Livadi District
 - Tel: +359 2 958 35 40
 - Fax: + 359 2 958 49 05
 - Web: www.transland.bg
 - E-mail: headoffice@transland.bg
 - Contact person: Mr. Ivan Georgiev, Sales manager

- TEAMCARGO Ltd
 - Address: Sofia airport, Block 2, entrance 1
 - Tel: +359 2 937 34 33
 - Fax: + 359 2 937 34 33
 - Web: www.team-cargo.com
 - E-mail: cargo@team-cargo.com
 - Contact person: Mrs. Milena Karamanska

아. 불가리아 통관대행사 리스트

- ARKAS BULGARIA Ltd
 - Address: 8, Prezviter Kozma Str., 9001, Varna,
 - Tel: +359 52 65.61234
 - Fax: + 359 52 65.61234
 - Web: www.arkas.biznesa.com
 - E-mail: sales@arkasbulgaria.com
 - Contact person: Mrs. Mirela Serafimova, Manager

- MOBILLE Ltd
 - Address: 9, Prespa Str., 9001, Varna,
 - Tel: +359 52 633 032
 - Fax: + 359 52 602 716
 - Web: www.mobille.bg
 - E-mail: office@mobille.bg
 - Contact person: Mr. Angel Safev, General manager

- BULEM Ltd
 - Address: 7, Prespa Str., 9001, Varna
 - Tel: +359 52 633 157
 - Fax: + 359 52 633 096
 - Web: N/A
 - E-mail: bulemLtd@gamil.com
 - Contact person: Mr. Simeon Filatov

자. 한국-불가리아 간 운송 소요 기간

한국의 부산항에서 불가리아 바르나 항구까지는 대략 40-45일이 소요된다.

선박을 통한 한국-불가리아간 운송 소요 기간은 거리상으로 약 30일이나 한국과 불가리아간 물동량이 적어 아직까지는 직항이 없는 관계로 독일, 이탈리아 등을 경유하고 있어 40-45일이 소요되고 있다.

차. 바르나 - 소피아 간 내륙운송 비용

바르나에서 수도인 소피아까지의 컨테이너 운송비용은 현지 관례상 컨테이너 크기와는 관계없이 대당으로 계산되며 보통 컨테이너 한대당 500유로의 비용이 소요된다.

IV. 투자

1. 투자환경

- 동서양의 교차 지점이자 발칸 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불가리아의 지리적 여건,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체결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 및 2007년 EU 가입,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높은 곳이다.
- 1990년 시장 경제 제도 도입 이후 정치, 경제적인 과도기로서 불안한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을 내국 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어 투자에 대한 정치적인 위험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세계 주요 신용 평가 기관들의 최근 불가리아에 대한 신용 평가를 살펴보면, Fitch 는 현행 BBB-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전망치는 2011년 12월부터 기존 Positive 에서 Stable로 상향조정하였다. S&P 종전의 BBB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Moody's 는 2011년 7월부터 기존 Baa3(Positive)에서 Baa2(Stable)로 상향 조정을 했다. 특히 무디스는 "불가리아의 경우 정부 재정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강했다"고 평가하면서, "깊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는 글로벌 기준에 비해 낮은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하면서 불가리아 신용등급을 소폭 상향 조정을 했다.

불가리아 신용등급

Agency	Date	Foreign currency			Local currency		
		Long-term	Short-term	Outlook	Long-term	Short-term	Outlook
Fitch	3 May 2012	BBB-	F3	Stable	BBB	-	Stable
Standard& Poor's	21 Dec 2011	BBB	A-3	Stable	BBB	A-3	Stable
Moody's	22 Jul 2011	Baa2	-	Stable	Baa2	-	Stable

자료: 불가리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외국인 투자 자유화
 - 불가리아는 외국인 투자의 장려와 이중 과세 철폐를 위해 상호 투자 보장 협정에 대한 국제 협약을 체결했다.
 -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송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
 -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나, 투자에 의해 발생한 수익, 국가의 보상에 의한 양도 재산, 투자 종료 시 발생하는 청산 자금, 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 수입, 강제 집행 영장 시행 관련 금액 등에 관한 외화의 해외 송금은 세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외환 관리
 - 불가리아 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외환 관리법을 개정해 2000년 1월 1일부터 외국환 거래를 자유화했다.
- 투자 보호 제도
 - 불가리아 헌법과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가리아 투자자와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 동등 대우를 명시해 놓고 있다. 단, 자연인은 토지 취득이 불가하며, 법인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제한 없이 취득 가능하다. 외국인 개인의 경우 2014년부터 토지 취득을 허용하도록 헌법이 개정되었다.
 - 동 규정은 모든 경제 활동에 적용되며, 국영 기업 사유화 과정의 참여와 주식, 국채, 사채, 기타 모든 유가 증권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
 - 그러나 정부의 관료주의, 열악한 인프라, 빈번한 법률 개정, 과도한 세금, 은행 체제 미 확립 등은 대 불가리아 투자자들에게 불만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 불가리아로 유입되는 EU 펀드 급증
 - 2007년1월1일자로 불가리아를 27번째 EU가입국으로 승인하면서 낙후된 불가리아의 인프라개선과 경제, 사회 개발지원을 위해 2013년까지 약 66억 7천만 유로의 EU펀드를 할당했다.
 - 불가리아로 유입되는 EU펀드 증가에 따른 대규모 교통인프라구축, 환경, 지역개발 프로젝트 발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 2011년 12월말 기준 불가리아의 EU 펀드 수혜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불가리아의 EU 펀드 수혜 현황

(단위: 억 유로)

종류	배정액			승인액				기지금액			
	합계	EU 자금	불가리아 정부예산	합계	이행율 (%)	EU 자금	이행율 (%)	합계	이행율 (%)	EU 자금	이행율 (%)
교통개선	20.03	16.24	3.79	17.74	86.96%	14.06	86.52%	4.54	22.66%	3.71	22.84%
환경개선	18.01	14.66	3.34	9.59	53.23%	7.79	53.09%	1.98	11.00%	1.61	10.95%
지역개발	16.01	13.61	2.40	11.37	71.01%	9.66	71.01%	3.23	20.19%	2.75	20.19%
경쟁력 강화	11.62	9.88	1.74	4.87	41.95%	4.14	41.95%	2.71	23.30%	2.30	23.30%
기술지원	0.57	0.48	0.09	0.29	50.43%	0.24	50.33%	0.12	21.39%	0.10	21.39%
인력개발	12.14	10.32	1.82	7.90	65.14%	6.72	65.14%	1.97	16.20%	1.67	16.20%
행정능력 배양	1.80	1.54	0.27	1.07	59.24%	0.91	59.24%	0.51	27.95%	0.43	27.95%
총 계	80.19	66.74	13.46	52.52	65.49%	43.52	65.22%	15.05	18.77%	12.59	11.98%

자료: 불가리아 내각협의회, 기준: 2011.12.31

- 2011년 12월말 기준, 불가리아로 유입된 EU펀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가리아 내각협의회에 따르면 2010년도 4월말 기준으로 22억4천만 유로에 불과하던

펀드 배정액이 2012년도 12월말에는 약 52억 5천만 유로에 달해 1년 사이에 30억 유로나 증가했다.

- EU펀드의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2010년 4월말에 2억 6천만 유로에 그쳤던 것이 2012년 12월말 현재로는 15억 유로에 달해 1년 동안 약 13억 유로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전체 예산에서 승인된 EU 자금 기준으로는 65.22%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고, 기지급된 EU 자금 기준으로는 11.98%을 이행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처럼 불가리아 정부는 EU 펀드를 활용한 환경 및 도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자체 및 정부의 입찰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EU 펀드 이행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이에 EU집행위와 불가리아 정부는 한시적인 펀드의 집행율을 늘리기 위해 전담 부서까지 신설하면서 OP 펀드에 대한 소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불가리아 정부는 2007년 ~ 2013년 1단계 OP(Operational Program)에서 책정한 EU 펀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금년 중 지자체별 입찰이 대거 발표될 예정이며 주로 도로, 환경 및 지역개발 부문에 EU펀드가 집중 유입될 전망이다.

불가리아와 동유럽 국가들 간 비즈니스 환경 비교

구분	VAT,%	법인세, %	임금(월평균, 유로)*	소득세, %
불가리아	20	10	350	10
크로아티아	22	20	1,048	20
체코	19	19	995	19
헝가리	25	19	758	19
폴란드	22	19	876	19
루마니아	19	16	363	16
슬로바키아	19	19	792	19
슬로베니아	20	20	1,520	20

주: * 월평균 임금은 2011년 12월 기준

자료: World bank,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불가리아 투자청(IBA)

불가리아의 국가 경쟁력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1	2010년(58개국 중)	2011년(59개국 중)
Competitiveness	53위	55위
Economic performance	46위	48위
Government efficiency	32위	41위
Business efficiency	56위	57위
Infrastructure	48위	53위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1

불가리아에서 주요 운영 비용(OPERATING COST)

항목	비용	
월평균 임금(2012년 Q3 기준, 유로)	393	
연평균 명목 임금 상승률(% , 2012년 Q1)	9.0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률(월 급여 대비 비중, %, 2011년)	17.90	
실업률(% , 2012년 9월 기준)	11.0	
소비자물가상승률(% , 2012년 9월 기준)	4.0	
법인세율(% , 2011년)	10	
부가가치세율(% , 2011년)	20	
개인 소득세율(% , 2011년)	10(flat rate)	
사무실 임차료(소피아 지역, 2011년 Q1, 유로/ m ² /월)	Class A 11-12	
사무실 구입가격(소피아 외곽지역, 2011년 Q1, 유로/ m ² /월)	Class A 8-9	
산업단지 임차료(2011년 Q1, 유로/ m ² /월)	3-5	
수도세(2011.2.1일 기준, 부가세 포함, 유로/m ³)		
법인(산업용) - Pollution level I(up to 200mg/l)	1.01	
법인(산업용) - Pollution level II(from 200mg/l up to 400mg/l)	1.13	
법인(산업용) - Pollution level III(above 600mg/l)	1.23	
일반 개인	0.86	
전기료(2012.7.1일 기준, 부가세 포함, 유로/KWh) (종업원 50명, 매출액 19.5백만 유로 이하 기업 기준) * 공급업체, 사용량 등에 따라 가격 다소 상이	Medium voltage	low voltage
3 tariff-reading		
peak electricity	0.125- 0.134	0.153- 0.176
day electricity	0.081- 0.091	0.105- 0.118
night electricity	0.051- 0.053	0.068- 0.086
2 tariff-reading		
day electricity	0.103- 0.109	0.133- 0.139
night electricity	0.050- 0.105	0.071- 0.084
1 tariff-reading	0.102- 0.107	0.096- 0.136
전기료(가정용)	low voltage	
2 tariff-reading		
day electricity	0.102-0.109	
night electricity	0.067-0.072	
1 tariff-reading		
day & night electricity	0.102-0.109	
가스료(Natural gas for industrial users) (2012년 Q2, 부가세 포함, 유로/1,000 m ³) * 공급업체, 사용량 등에 따라 가격 다소 상이	500 to 588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NSI), 불가리아 투자청(IBA) 등 종합

2. 외국기업 투자동향

-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7년간 불가리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총 325억 유로이다.
 - 이는 불가리아가 1991년 시장 경제를 채택한 이후 2010년까지 20년간의 전체 누계액 총 395억 유로의 82%에 해당하는 놀라운 실적이다.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불가리아의 FDI 유치액은 2008년 67억 유로로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FDI 유치 실적은 24억 유로로 전년대비 64%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 2011년 기준 FDI 유치액은 13억 유로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감소세는 경기불황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의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추이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Q3)
FDI 유치액	3,152.1	6,221.6	9,051.8	6,727.8	2,436.9	1,208.5	1,341.2	2,152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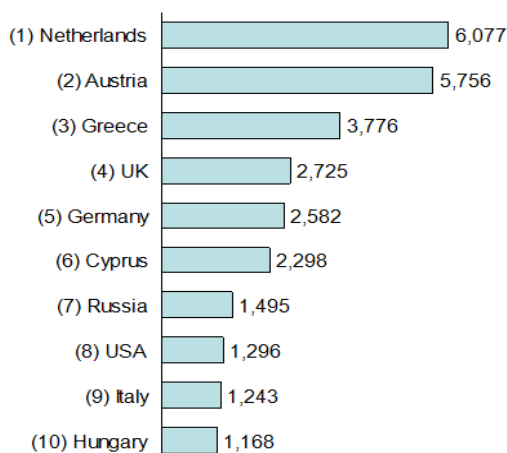
□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 불가리아의 국별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 실적을 보면, 네덜란드가 61억 유로(21.4%)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오스트리아 57억 유로(20.3%), 그리스 38(13.3%), 영국 27억 유로(9.6%), 독일 26억 유로(9.1%), 사이프러스 23억 유로(8.1%), 러시아 15억 유로(5.3%), 미국 13억 유로(4.6%), 이탈리아 12억 유로(4.4%), 헝가리 12억 유로(4.1%)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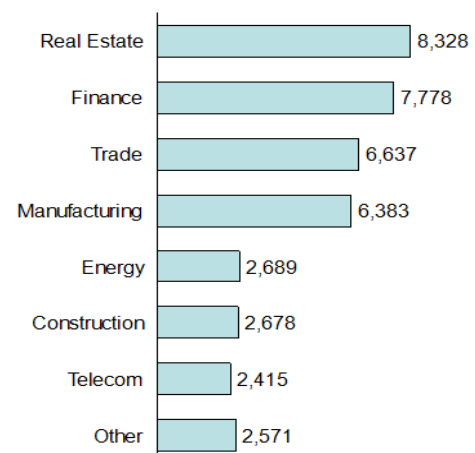
□ 부문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 1996년부터 2011년까지 불가리아의 부문별 FDI 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부동산이 84억 유로(21.1%)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금융업이 78억 유로(19.7%), 도·소매업 66억 유로(16.8%), 제조업 64억 유로(16.2%), 에너지 27억 유로(6.8%), 건설업 27억 유로(6.8%), 통신 24억 유로(6.1%) 등의 순이다.

FDI by host country, 1996-2011 (€ mln.)



FDI flows by industry, 1996-2011 (€ mln.)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 향후 외국인투자 전망

- 불가리아의 외국인투자는 2009년 경기불황을 맞으면서 급감하게 감소하였고, 2011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그나마 유일하게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태양광 프로젝트이며 국내업체들도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
- 국내기업으로는 에스디엔(SDN)과 남동발전이 각각 50%식 지분투자를 하였고, 산업은행이 1700억 원의 PF 를 지원하였다.
- 불가리아 정부는 2010년부터 태양광분야에 너무 많은 투자가 쇄도하자 기존의 인센티브 수혜기간과 발전차액(FIT) 요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2011년 6월에 기습적으로 통과시켰으며, 2012년 6월말에는 기존 인화된 FIT 가격에 51% 추가 인하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 또한 2012년 9월18일부로 송배전운영비의 명목으로 FIT가격을 기존가격에서 최대 39%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 이는 불가리아 정부가 태양광 분야에 대한 개발 및 투자를 억제시키려는 강력한 조치로서 현지에서도 사실상 태양광 사업은 하향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 이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태양광에서 하수처리, 고속도로, 지역개발 사업으로 전환 및 집중되고 있다.
- 무엇보다 불가리아 정부는 2007년 ~ 2013년 1단계 OP(Operational Program) 수혜펀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2012년 중 수처리를 비롯한 환경분야 및 도로, 댐 등 국가 인프라 구축 입찰이 대거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 외국인투자도 EU 펀드가 집중 유입되는 수처리, 고속도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일부 국내업체는 불가리아 하수처리 프로젝트 입찰 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지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2012년 중 입찰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 투자 이점

-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교적 인력이 풍부함.
- 운영비(operating cost)가 EU 국가들 중에서 저렴한 편에 속함.
- 법인세 인하, 정률 소득세 10%,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투자 유치 활동이 활발함.

○ 투자 단점

- EU 가입 후 전문 인력들의 서유럽 국가들로의 유출 확대
- 인력 유출 및 지속적인 인구 감소(연 3 - 5만 명씩 감소)
- 인프라 열악, 금융조달 어려움
- 사회주의 잔재로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 부족
- 동유럽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 리스ٹ 상존

2010-2012.6, 對 불가리아 주요 투자 프로젝트 현황

(단위: 백만 레바)

라이선스 No	투자 등급	투자자	투자 프로젝트	3년간 투자금액	직,간접 고용창출
2010년					
A-25/09.04.2010	class A	IWC Bulgaria WP5 EOOD Dobrich (IWC GmbH, Germany)	Wind farm Lozenets, Municipality Krushari,	411.0	16
A-26/18.05.2010	class A	Dabovo Energy Ltd., Sofia (participation of inv. Fund NovEnergia II-Energy & Environment SKA)	Development of a photovoltaic station Dabovo in Maglizh Municipality, region of Stara Zagora	34.6	6
A-27/01.06.2010	class A	Centillion Ltd., Sofia (Austrian participation)	High-technology manufacture of medical electronics, Sofia/Bulgaria	16.5	35
A-28/04.06.2010	class A	VEZ Svoge Ltd., Sofia (Italian group Petrolvilla)	Stage II-Project Sreden Iskar Cascade SHPP Opletnya, SHPP Tserovo, SHPP Prokopanik, Municipality of Svoge/Bulgaria	71.5	7
A-29/07.06.2010	class A	CPC - Bulgaria LLC, Pleven (participation of Germania Windpark GmbH, Germany)	Wind Park Village of Spasovo Municipality of General Toshevo, Dobrich Region	483.7	20
A-30/01.07.2010	class A	PCC Izvorsko EOOD, Sofia (PCC DEG Renewables GmbH, Germany)	Wind Park Izvorsko Municipality of Aksakovo, Municipality of Suvorovo, Varna Region	78.2	22
A-31/04.08.2010	class A	PV Systems AD, Sofia	Photovoltaic power plant Sredina, Municipality of General Toshevo, 10 MW	54.5	25
A-32/30.09.2010	class A	W. Power OOD, Sofia (Danish participation)	Wind Park Milkovitsa, Municipality of Gulyantsi, Pleven Region	247.3	22
A-33/11.10.2010	class A	IWC Bulgaria 4 EOOD, Dobrich (IWC GmbH, Germany)	Wind farm Krasen Dol, Nikola Kozlevo Municipality	136.1	10
A-34/25.10.2010	class A	CPC - Bulgaria LLC, Pleven	Wind park Sliventsi -	483.7	20

		(participation of Germana Windpark GmbH, Germany)	Dobrevo, Dobrichka Municipality		
A-35/25.10.2010	class A	WPM OOD, Varna with American participation	Wind park "Mirovtsi" -207 MW, Novi Pazar Municipality	643.8	50
A-36/25.10.2010	class A	Novi Energii OOD, Sofia (PCC DEG Renewables GmbH, Germany)	SHPP "Gara Eliseyna" and SHPP "Rebarkovo", Municipality of Mezdra	27.4	25
A-37/25.10.2010	class A	Jupiter 05 OOD, Plovdiv	Hot dip galvanizing plant for metal products, Kuklen	21.5	65
A-38/01.12.2010	class A	K Development Construction EAD, Lom	SOLAR PARK-LOM II Stage: Photovoltaic grid-electric power plant with installed power 3998,5 kWp, Lom	23.3	10
A-39/01.12.2010	class A	BCI Kazanlyk Holding EOOD, Kazanlak with German participation	Photovoltaic power plant Cherganovo, Kazanlak Municipality	146.2	12
2011년					
A-40/01.03.2011	class A	Amer Bulgaria Sports EOOD Chepelare (Amer Sports, Finland)	Expansion and Modernization of Ski Factory, Chepelare	7.8	125
A-41/04.05.2011	class A	Alcomet AD, Shumen, Bulgaria (participation of FAF Metal Sanayj Ve Ticaret AS, Turkey)	Commissioning of casting line No6 and foil breakdown mill MINO at Alcomet AD - Shumen	26,8	24
A-28-1/08.07.2011	class A	VEZ Svoghe AD, Sofia	Stage II-Project Sreden Iskar Cascade SHPP Opletnya, SHPP Tserovo, SHPP Prokopanik, Municipality of Svoge	71.5	7
A-42/14.09.2011	class A	Lufthansa Technik Sofia OOD, Sofia (Lufthansa Technik, Germany)	Reconstruction and extension of existing aircraft maintenance facility at Sofia Airport	25.5	180
A-43/06.10.2011	class A	Knauf Bulgaria EOOD, Sofia (Knauf, Austria)	Gypsum Plasters Plant Maritsa II	32.0	27

2012년 1- 6월					
B-01/15.02.2012	class B	Amlog OOD, Sofia	Logistics Park Tsalapitsa, Rodopi Municipality, Plovdiv Region	10.0	100
A-44/01.03.2012	class A	Logistic Center-Varna EAD Sofia	Port Logistic Center-Varna, Town of Beloslav, Varna Region	76.0	200
A-45/09.04.2012	class A	Devnya Cement AD, Devnya(Italchementi group, Italy)	Reconstruction and modernization of installation for production of clinker and cement at Devnya Cement JSC plant - second stage	325.0	
A-46/15.05.2012	class A	Reichle and De-Massari Bulgaria Production EOOD, Sofia (subsidiary of the R&M, Switzerland)	Production of fiber optic and copper components for telecommunication networks, Sofia	9.6	251
A-47/30 May 2012	class A	PLASTCHIM-T AD, Aksakovo	Building a new plant for production of BOPP film in Aksakovo	32.9	32

자료: 불가리아 투자청(IBA)

3. 우리기업 투자동향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2년 3월 말까지 한국의 對 불가리아 직접투자 총액은 신고 기준으로 총 94건에 1억 8,493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11년 한해 동안, 對 불가리아 직접투자액은 5,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對 불가리아 연도별 투자 건수 및 금액 누계

(신고기준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Total	94	21	240,378	100	184,930
1994	1	0	24	0	0
1996	1	0	22,300	0	0
1997	4	3	23,960	3	25,160
1998	3	2	10,003	4	2,041
1999	0	0	0	3	2,811
2000	3	0	25,402	6	27,553
2001	0	0	0	0	0
2002	0	0	0	0	0
2006	1	1	300	2	300
2007	3	2	31,100	5	2,179
2008	2	2	401	2	36
2009	0	0	0	1	4
2010	40	3	36,132	40	36,121
2011	28	8	83,668	20	56,021
2012	8	0	7,088	14	32,705

주: 2012년 9월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의 주요 對 불가리아 투자진출 업체로는 대우가 '96년 9월 웨라톤 호텔 지분 67% (22 백만 달러), '97년 5월 무역센터(Interpred) 지분 70% (24 백만 달러)를 각각 인수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웨라톤 호텔은 2002년 5월 그리스 호텔 체인에, 무역센터는 2001년 12월에 이탈리아 기업에 각각 매각한 후 철수하였다.
- 현대중공업에서 '97년 7월 불가리아 국영 변압기 제조회사인 Elprom Trafo 를 인수하여 현재 발전소 및 변전소용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다.(총 투자규모 10.4 백만 달러: 초기투자 2.9 백만 달러+증액투자 7.5 백만 달러)
- 에스디엔(SDN)과 남동발전이 산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70%)을 통해 42MW 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였으며(총 투자비 1 억 5400 만유로), SDN 의 현지법인 EU SUNDAY 는 자체적으로 18MW 를 추가 건립하였다.

- LG CNS, 현대엔지니어링, LS 산전 등이 불가리아에서 중국계 태양광발전소의 EPC 업체로 참가하여 올해 6 월말까지 총 47.8MW 태양광발전소 준공 라이선스(ACT 16)을 취득하였다.
- 이로써 국내업체가 직접 투자 및 시공하거나 또는 외국 투자프로젝트에 EPC 업체로 참여하여 준공한 발전소는 모두 150MW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 투자의 보호

1) 자국민 대우와 최혜국 지위

- 불가리아 헌법과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외국에 등록된 법인, 개인 또는 시민단체)이 불가리아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법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고 명기하고 있다(자국민 대우). 이 원칙은 영업 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적·법적 형태에 적용된다.
- 불가리아가 체결한 상호 협정에서 국제 투자자에게 더욱 유리한 투자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협정국의 시민이나 법인은 동등한 특혜를 누릴 자격을 갖게 된다(최혜국 지위).

2) 불리한 법적 개정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

-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해 현행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에 법적 제한을 가할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개정 이전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강제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 불가리아 헌법은 국가나 지방 정부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민간 부동산을 강제 수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강제 수용은 국가나 지방 정부의 필요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최후 수단으로서 법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 상기 원칙은 국가 및 지방 정부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두 법 모두 강제 수용은 부동산 소유자가 동의를 하고 부동산이나 금전적인 적절한 보상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 외국인 회사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추가적인 보호는 외국인투자법에 제시되어 있다. 동 법은 적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해결해야 할 절대적으로 중대한 국가적 필요가 있고 또 동일 지역에 소재한 시장가치가 동일한 부동산으로 보상이 될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현지 진출 우리기업 중에는 소피아 시당국과 감정 평가에 의한 환지 사례가 있으며 도시 개발이나 국토개발 계획에 의해 환지나 수용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나. 투자 허가

- 불가리아 법은 외국인의 법인체 설립 또는 기존 법인체의 지분 인수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불가리아 상법(Trade Act)에서 정한 법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 외국인 법인체나 개인의 지분 참여에는 제한이 없다.
- 불가리아 상법에 의해 다음 법인들이 설립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다.
 - 합명회사(unlimited partnership)
 -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단독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ies): 단독 유한책임회사
 - 지분부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s with shares)
 - 개인사업자(sole traders)

- 외국인 개인이 합명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으로 참가하거나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기로 한 경우 불가리아에 항구적인 주거를 뒤야 한다.
- 은행이나 보험 영업, 투자 펀드, 관리 회사, 투자 중 개업, 특별 사업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기 유형의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정부 기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지사(Branches)
 - 외국의 개인, 법인 또는 비법인이 본국의 법에 의거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불가리아에 지사를 등록할 수 있다. 지사는 지방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기재된다.
 - 외국 회사의 일부이긴 하지만 지사는 독립체로 간주하고 따라서 별도의 회계 장부를 유지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사 설립은 등기 자본금을 요하지 않는다.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본국의 법 조항에 따라 영업 활동의 허가를 받은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은 불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들은 별개의 법인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불가리아 법에서 정한 영업 활동을 영위할 자격이 없다.
 - 대표사무소는 불가리아 상공회의소에 등록되며 마케팅,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다. 투자 인센티브

□ 헌법상 내외국인 동등대우 천명

투자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투자인센티브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다.

□ 투자 장려법에 의한 보호

- 투자 장려법에 (The Investment Promotion Act)따라 불가리아 투자청의 정보와 법적 자문 및 투자파트너 발굴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불가리아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급감을 억제하고, 외국인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불가리아 투자장려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투자장려법은 2009.6.2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투자장려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졌으며 일정한 의무조항이 추가되었다.
 - 산업부문의 투자는 제조업과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이 포함한다.
 - 서비스부문의 투자는 첨단기술, IT, 연구개발, 교육, 보건 분야를 포함한다.
 - 대기업 투자의 경우 최소 5년간 투자 유지, 중소기업 투자의 경우 최소 3년간 투자 유지해야 하는 의무규정 추가
 - 기업인수 투자인 경우 인수 전 최근 12개월간 평균 종업원 수를 초과해야 된다.
 - 고용은 대기업 최소 5년, 중소기업 최소 3년간 유지
 -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 고정자산의 구입시 제 3의 독립된 평가기관을 통한 시장 가격에 구매보장

- 대규모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2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8백만 유로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1등급(Class A): BGN 32백만 (EUR 16백만) 이상 투자
 - 2등급(Class B): BGN 16백만 (EUR 8백만) 이상 투자
- 고실업률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 1등급(Class A): BGN 16백만 (EUR 8백만) 이상 투자
 - 2등급(Class B): BGN 8백만 (EUR 4백만) 이상 투자
- 산업부문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 1등급(Class A): BGN 16백만 (EUR 8백만) 이상 투자
 - 2등급(Class B): BGN 8백만 (EUR 4백만) 이상 투자
- 서비스부문의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 1등급(Class A): BGN 11백만 (EUR 5.5백만)
 - 2등급(Class B): BGN 5.5백만 (EUR 2.75백만) 이상 투자를 대규모 투자로 간주,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제도

- 투자기업은 투자장려법에 따라 투자등급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
 - 행정서비스 단축 (해당: Class A, B), 중앙 및 지역 행정당국과 지자체는 통상적인 기간보다 1/3이 단축 된 기간 안에 투자자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허, 허가 등 발급).
 -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개별 행정 서비스 지원(해당: Class A)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적 재산의 경우,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자자에게 판매 및 양도 가능(해당: Class A, B)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적 재산 지역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경우,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자자에게 판매 및 양도 가능(해당: Class A, B)
 -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해당 Class: A)
 - 투자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고용한 직원들의 전문 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시 재정 지원(해당: Class A, B)
 - 투자우대(High priority)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 또는 타기업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체결, 정부차원의 지원, 제도적 지원을 위한 가능성 제공
 - 투자자와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을 위한 회사 간의 거래 지원.

□ 투자우대 장려법(Priority Investment Projects)에 의한 특별우대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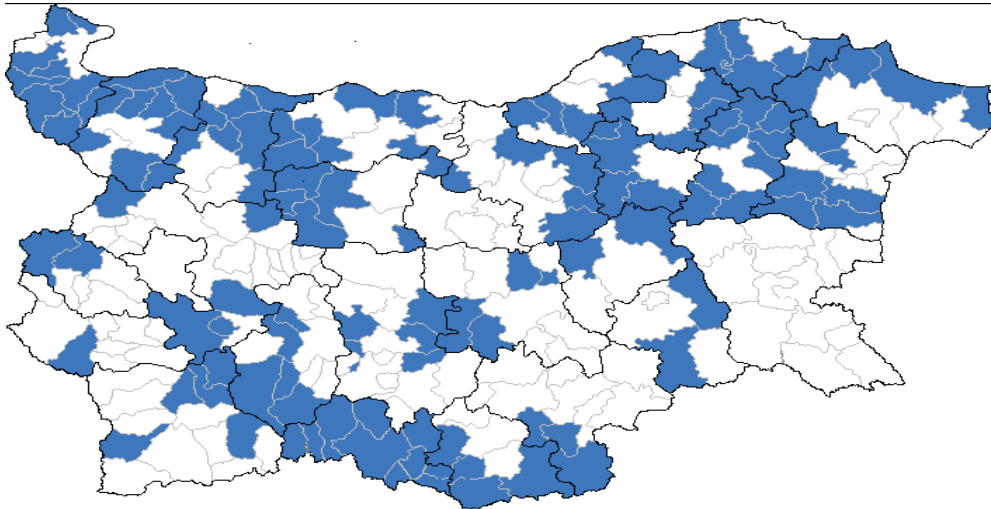
- 총 투자금액이 1등급(Class A) 투자금액(BGN 32백만)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투자입지가 불리한 지역 또는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경우
- 투자장려법에 명시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투자유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업단지 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장려법에 명시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첨단과학 연구 및 교육, IT 분야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는 특별우대조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고실업 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불가리아 재경부가 허가한 명단에 포함된 고실업 지역, 즉 불가리아 평균 실업률보다 높거나 지자체 실업률이 35%를 넘는 고실업 지역의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는 일부 사전 및 추후 등록요건과 보고의무가 따른다. 면제/인센티브와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 보조금의 가액이 7,500만 BGN 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쟁보호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부 보조금(세제상 인센티브 포함) 합계가 3년 동안 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혜조건 심사에 신속성이 부여된다.

- 2007.1.1일부로 불가리아의 법인 소득세는 10%를 유지하고 있다. 고실업 지역에 투자한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에 따라 10% 법인소득세의 완전 면제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 고실업 지역에서 수행된 생산 활동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제조업체에 대한 각종 세금면제 혜택
 - 단, 매년 수혜받은 세금공제액은 세금공제를 요청한 연도의 연말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 취득자산은 합병이나 회사재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내에 처분되어서는 안 된다.
 - 투자지역이 고실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기 5년간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투자지역이 준비과정에서는 고실업지역이었다가 투자개시 이전에 고실업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4년간만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소득세 면제 기회를 제공하는 고실업 지자체(음영 표시 지역, 2010년 기준)



주: 음영지역: 국가 평균실업률보다 높거나 지자체 실업률이 35% 이상인 지역

□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

- 2008년 1월 1일부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7%에서 5%로 인하했다.
- 불가리아 모기업에 대한 EU 보조금에 대한 할당 배당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해당 EU 회원국의 세법에 따라 당해인을 세무상 불가리아의 내국인으로 간주하고 제3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EU외 국가의 현지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때
 - 당해인에게 선택권이 없거나 본 세금이 면제되지 않으면서 법인세가 부과될 때
 - 당해인이 사실상 소득의 소유자로서 2년간 중단 없이 국내 법인의 지분/주식을 최소 한 15%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 부가가치세(VAT) 인센티브

-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현물(자산) 수입 시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 징수의 특혜를 부여한다.
 - VAT 등록을 한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필요한 물품(자산)을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
 - 아울러 투자 지역 내에서 투자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발생한 비용에 있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부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투자 규모가 2년간 적어도 1,000만 레바(500백만 유로)를 기록해야 한다.
 - 2년 내에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되어야 한다.
 - 투자실행 결과 최소한 50인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어야 한다.
 - 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에 합당해야 한다.
 - 투자자는 사업자금 조달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 기타 세제상 인센티브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관, 협동 기관, 대학, 학교 등과 같은 특정 기관에 적용하는 기타 세제상 인센티브도 있다.

□ 불가리아 노동시장에서 청년 및 빈곤층 고용 프로그램과 대책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청(The Employment Agency)은 각 고용인의 고용계약 기간(단, 12개월 이내)에 대해 급여와 고용주가 사회보장청과 건강보험기금에 납부해야 할 분할 납부금 그리고 전문능력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비용(6개월 이내)을 부담한다.

- 요건
 - 해당자는 에이전시와 고용주간의 계약을 근거로 고용청 해당 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군에 복무한 적이 없는 29세까지의 실업자
 - 작업능력이 저조한 29세까지의 실업자
 - 교육을 완수한 사회기관 출신의 청소년
 - 작업능력이 영구히 미흡한 실업자
 - 3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독신부모(양부모) 또는 어머니(양모)인 실업자
 - 50세 이상의 여성과 55세 이상의 남성 실업자

6개월 이하의 훈련 또는 견습 기간 동안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고용청 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 29세 이하 실업자의 전문능력 취득을 위한 훈련 및 견습 근무에 동의하는 고용주에게도 동일한 인센티브가 유효하다.

□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대책

- 피고용 근로자와 종업원의 능력 유지와 향상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1인당 최대 훈련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국가 작업직 고용계획에 따른 최대 금액은 BGN 500임).

○ 절차

- 고용청의 지방 부서인 '고용국'은 매달 게시판과 최소 두 개의 지방 또는 지역 광고 매체에 익월에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려대책을 발표한다.
- 고용주는 지방 '고용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최소 6개월 동안은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신고를 한다.
- 신청 기간 경과 후 3일 안에 협력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를 논의하고 매월 계약
- 체결 가능자와 고용주의 명단을 '고용국' 국장에게 제출
- 승인된 고용주 명단은 '고용국' 게시판에 게시한다.
- 고용주는 1인당 최고 훈련재원(BGN 500) 범위 내에서 훈련기관을 지정해 전문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 진출 형태

- 불가리아에서 인정되는 사업체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무한책임조합(an unlimited partnership)
 - 유한책임조합(a limited partnership)
 - 주식책임조합(a 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 주식회사(a joint-stock company)
 - 공공기업(a public company)
 - 개인사업자(a sole trade)
 - 합작회사(a joint venture)
 - 지사(a branch)
 - 지주회사(a holding)
 - 협동조합(a co-operative)
 - 연락사무소(a representative office)
- 협동조합과 연락사무소 형태의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사업체는 Commerce Act 1991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되며 은행, 보험회사, 및 공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일부 적용되게 된다. 협동조합의 경우 Cooperative Act 1999에 의해 관리되며 연락 사무소의 경우 Foreign Investment Act 1997에 의해 관리된다.
- 대부분의 외국기업이 현지 투자 시 채택하는 사업체의 형태는 1명의 단독투자 형태를 포함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이들 법인은 해당 지역 법원에 사업등기를 해야 한다.

나. 회사 형태의 사업체

1)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OOD)

- 회사자본 출자자는 1인 이상이며 출자자의 책임은 출자지분에 한한다.
- 출자자는 내국 및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가능하다.
- 최소 수권자본금은 BGN2(1유로)이다. (2009.10.16일부터)
- 주주총회는 최소 연 1회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 주주가 1명인 경우 회사의 명칭은 EOOD를 사용하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구성한다.
- 대차대조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AD)

- 주식회사의 주식 액면가치는 최소 BGN1 이상이다.
-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 출자자는 1인 이상의 내국 및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가능하다.
- 최소 자본금은 5만 BGN(약 25,000 유로) 이상임. 다만 사업영역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은행의 경우 BGN1천만, 생명보험 BGN2백만, 재산보험 BGN3백만, 재보험 BGN4백만, 투자회사 BGN50만, 민간의료보험 BGN2백만, 민간 연금 BGN3백만 등이다.
- 주식은 보통주, 우선주 등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 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 대차대조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3) 공개기업(Public Company)

- 주식회사이며 Securities, Stock Exchanges and Investment Act 1995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현재는 Public Offering of Securities Act 1999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4) 지주회사(Holding Company)

- 주식회사, 유한책임조합 등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며 타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또는 개입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지주회사는 경영권을 행사할 대상 기업의 지분을 최소한 25% 이상 보유해야 한다.

5) 지사(Branch)

- 모국에 등록된 외국법인 및 자연인은 불가리아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지사는 법인은 아니지만 독립된 법인처럼 회계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6)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모국에 등록된 외국법인 및 자연인은 불가리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연락사무소는 법인은 아니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다. 회사 형태의 사업체 설립 절차

회사가 지방법원의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날짜가 회사의 설립일로 간주된다.

1)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OOD)

-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최소 자본 납입금 1유로를 납입하여야 한다(2009.10.16일부터).
- 회사가 상업등기소에 등록되면 관보에 그 내용이 게재된다.

2)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AD)

-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고 수권자본금이 완전히 주주간 배분되어야 하며 주식의 25% 이상 납입되어야 한다.
- 이사회 및 감독기관을 선임하여야 하며 일부 특별분야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허가(은행, 보험 등의 경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허가증)를 취득해야 한다.
- 회사가 상업등기소에 등록되면 관보에 그 내용이 게재된다.

3) 지사(Branch)

-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Commerce Act 1991을 참조

4)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불가리아상공회의소(BCCI)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부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등록에는 통상 1~3일 정도가 소요된다.

라. 기타 형태의 사업자 및 설립 절차

1) 무한책임조합(unlimited partnership)

- 2명 이상의 파트너가 필요하며 각 파트너는 상호 무한책임을 진다.
- 외국인이 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해야 한다.
- 최소 등록 자본금 규정은 없다.
- 파트너는 각각 1개의 표결권을 행사한다.
-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2)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

- 2명 이상의 파트너가 필요하며 1명 이상은 무한책임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 외국인이 무한책임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해야 한다.
- 무한책임파트너가 해당 조합의 경영권을 행사한다.
-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3) 주식유한책임조합(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 1명 이상의 무한책임파트너와 3명 이상의 유한책임파트너로 구성되어야 한다.
- 외국인이 무한책임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해야 한다.
-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4)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y)

- 자발적 개인 조합으로 자본과 조합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다.
- 조합원은 개인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 외국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해야 한다.
- 조합원은 총회에서 각각 1개의 표결권을 행사한다.

5) 개인사업자(Sole Trader)

- 외국인의 경우도 영주권을 가진 개인은 누구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6) 외국인이 개인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체류허가 취득

- 불가리아 자국민 고용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자국민 10인 이상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충족할 경우 장기체류 비자(1년짜리)를 취득할 수 있다.
 - 현지법인 설립 완료 후, 구비 서류를 가지고 주 한국불가리아대사관을 통해 장기비자를 신청 및 취득할 수 있다.
- 외국 개인의 투자규모가 500만 레바(25만유로) 이상일 경우 종업원 규모에 관계없이 장기체류 비자(1년 짜리)를 발급 받을 수 있다.

7) 통상적으로 현지 법인의 경우 두 가지 등록번호를 발급 받음

- Bulstat 번호
 - 통계번호로 불리며 대사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부여 받게 된다.
- Tax 번호
 - 납세자번호로 불리며 대사관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부여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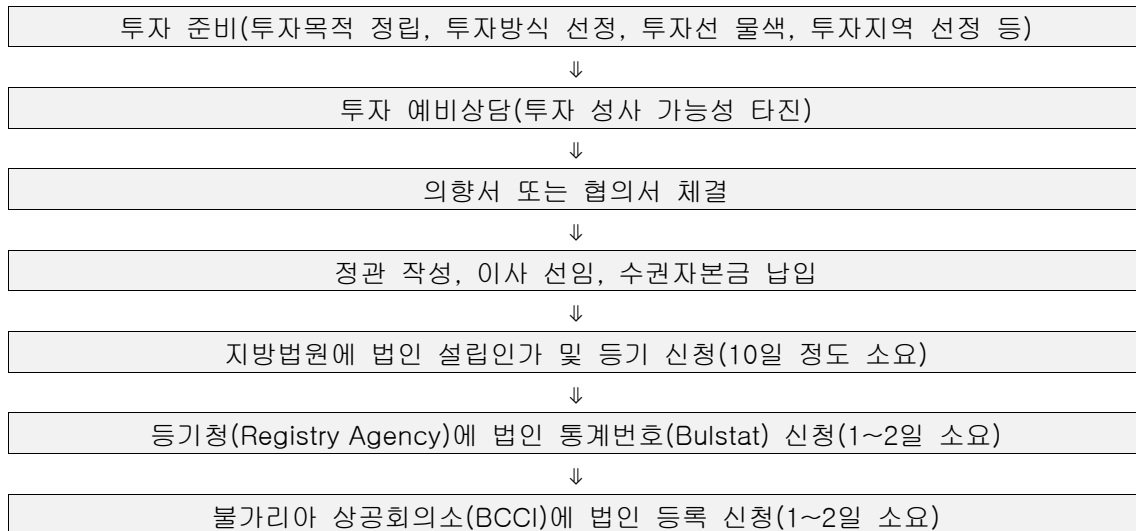
마. 회사 설립 비용

- 회사설립비용은 모든 절차를 스스로 처리할 경우에는 등록수수료 및 번역공증비용 등이 소요되며 등록수수료 및 번역공증비용으로 약 400 레바(200 유로) 정도가 소요된다.
- 회사설립 절차를 대부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지관행이며, 이 경우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비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일반 개인 변호사: 1,000 레바 (약 500 유로)
 - 유명 법무법인: 5,000 레바 (약 2,500 유로)
- 2009.10.16일부터 불가리아 정부는 외국기업의 현지 투자진출 및 회사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전의 최소 자본납입금 5,000레바(2,500 유로)에서 2레바(약 1유로)를 가지고도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외국인들의 회사설립 절차를 간편화함으로 투자유치를 장려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실제로 1유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는 실정이며, 업체 사정에 맞게 자본금을 납입한 후, 회사 설립 완료 후 인출 및 사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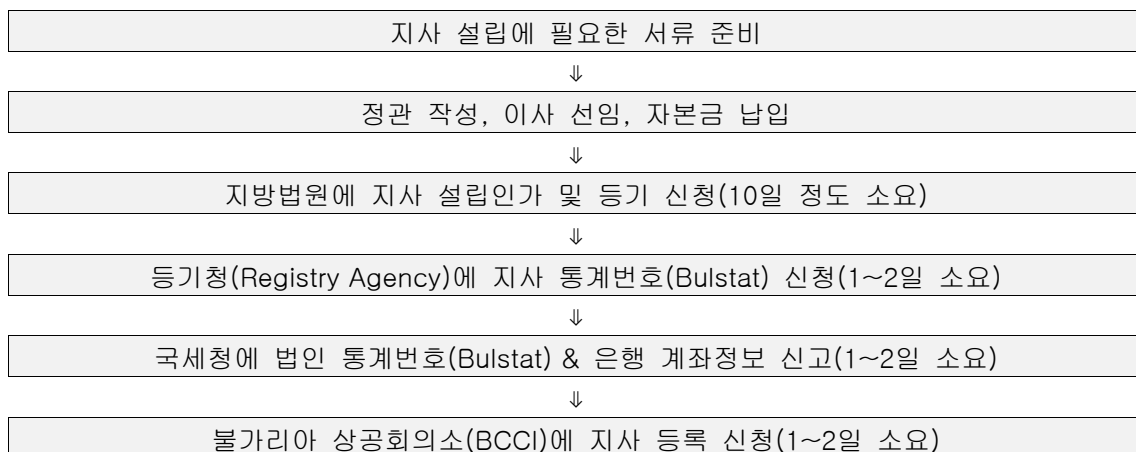
□ 불가리아에서 투자형태별 일람표

구분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영리활동	가능	가능	불가능
등기	가능	가능	불가능
자본금	2레바(1유로)	2레바(1유로)	-
대표이사 (인원/자격요건)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이사 (인원/자격요건)	1인 이상	1인 이상	-
감사 (인원/자격요건)	-	-	-
법인세 과세범위	전 세계 소득, 법인세 10% 적용	국내 원천소득, 법인세 15% 적용	-
회계처리(조세율)	불가리아 법인의 회계처리로 완결	불가리아 법인의 회계처리로 완결	-
본국 송금 시 과세 (과실송금 여부)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	법인세 징세후 송금은 무과세	-
소송(분쟁해결)	원칙적으로 본국 법인에 영향 없음	원칙적으로 본국 법인에 영향 없음	-
설립 소요기간	약 1개월	약 1개월	약 1주 이내
설립 소요비용	총 1,400레바 (총 700유로)	총 1,400레바 (총 700유로)	총 200레바 (총 100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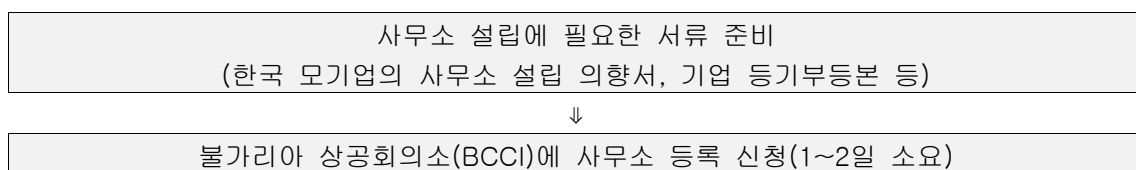
□ 불가리아에서 현지법인 설립 절차



□ 불가리아에서 지사 설립 절차



□ 불가리아에서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 불가리아에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기관

- 소피아 지방법원(Sofia City Court)
 - 주소: 2 Vitosha Boulevard,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980-7891
 - 팩스: (+359 2) 981-3740
 - e-메일: sofccourt@ttm.bg
 - 웹 사이트: <http://sofiadc.court-bg.org>
- * 소피아에 법인 설립 시 동 지방법원에 법인설립 인가 및 등기 신청

- 등기청(Registry Agency)
 - 주소: 2, Panayot Volov Str.,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948-61899
 - 팩스: (+359 2) 948-6166
 - e-메일: office@registryagency.bg
 - 웹 사이트: <http://www.registryagency.bg>
 - * 법인설립 인가 및 등기 완료 후 동 등기청에 법인 통계번호(Bulstat No.) 신청

- 국세청(National Revenue Agency)
 - 주소: Address: Sofia 1000, 52, Dondukov Blvd.
 - 전화: (+359 2) 9859 3065
 - 팩스: (+359 2) 9859 3258
 - e-메일: infocenter@nra.bg
 - 웹사이트: www.nap.bg
 - * 법인 통계번호(Bulstat No.), 은행 계좌번호 신고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주소: 42 Parchevich Street, 1058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987 2631
 - 팩스: (+359 2) 987 3209
 - e-메일: bcci@bcci.bg
 - 웹 사이트: www.bcci.bg
 - * 동 상공회의소에 법인 등록 신청

- 불가리아 투자청(INVEST BULGARIA AGENCY, IBA)
 - 주소: 31 Aksakov Street,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985 5500
 - 팩스: (+359 2) 980 1320
 - e-메일: iba@investbg.government.bg
 - 웹사이트: www.investbg.government.bg
 - * 동 기관에 투자 인센티브, 투자 정보, 행정서비스 등 신청

6. 투자 입지 여건

가. 일반적인 투자 여건

1) 정치, 사회, 경제적 안정

- 불가리아는 인근의 세르비아 등 남동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내전이나 정치적인 혼란이 없이 사회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편이다. 특히, 불가리아의 2004년 4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가입 및 2007년 1월 유럽연합(EU) 가입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민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국민의 민의를 존중하는 현대적인 국가로 평가할 수 있다

2) 한-EU FTA 발효에 따른 국내기업의 투자진출 기대

- EU 특별이사회는 2010년 9월 16일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한-EU간 FTA 협정안을 승인하였고, 2011년 2월 17일 유럽 의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2011년 5월 4일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 특히 현재 불가리아는 신재생에너지(RES)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많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 역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불가리아는 서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거점지로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바, 국내기업들의 투자 여건 문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EU 가입에 따른 투자 여건 개선

- 불가리아가 2007년 1월 EU에 가입한 후 EU 시장 접근이 용이해졌음은 물론 민간 부문 개발, 은행 부문 개혁, 외환 및 교역 자유화, 법제 정비 등으로 불가리아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모든 투자규정이 형식적으로는 EU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방되어 있다.

4)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 확보 용이

- 불가리아의 2010년 1사분기 기준 월 평균 임금은 636 레바(318유로)로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집시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의 문맹률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고 노동 생산성은 인건비가 2배 이상 비싼 폴란드, 헝가리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별 차이가 없다.

5) 동서양의 교차 지점이자 발칸 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불가리아의 지리적 여건

- 불가리아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서유럽 주요 도시들을 비행기로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서유럽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기독교 문화권이라 괴리감이 적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EU, EFTA, 터키 등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어 있어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다.

6) 불가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 불가리아의 법인세율은 10%로 유럽 최저 수준이다. 불가리아는 또한 총 61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고 불가리아 등록 외국 법인의 토지 및 건물 100% 소유를 인정 하고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급감을 억제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불가리아 투자장려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투자장려법은 2009.6.2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투자장려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 산업부문의 투자는 제조업과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을 포함한다.
 - 서비스부문의 투자는 첨단기술, IT, 연구개발, 교육, 보건 분야를 포함한다.
 - 대기업 투자의 경우 최소 5년간 투자 유지, 중소기업 투자의 경우 최소 3년간 투자 유지해야 된다.
 - 투자 프로젝트를 통한 종업원 수는 최근 12개월간 평균 종업원 수를 초과해야 된다.
 - 고용은 대기업 최소 5년, 중소기업 최소 3년간 유지
 -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 고정자산의 구입시 제 3의 독립된 평가기관을 통한 시장 가격에 구매해야 된다.

□ 투자 장려법에 의한 보호

- 투자 장려법에 (The Investment Promotion Act)따라 불가리아 투자청의 정보와 법적 자문 및 투자파트너 발굴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불가리아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급감을 억제하고, 외국인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불가리아 투자장려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투자장려법은 2009.6.2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투자장려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졌으며 일정한 의무조항이 추가되었다.
 - 산업부문의 투자는 제조업과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이 포함한다.
 - 서비스부문의 투자는 첨단기술, IT, 연구개발, 교육, 보건 분야를 포함한다.
 - 대기업 투자의 경우 최소 5년간 투자 유지, 중소기업 투자의 경우 최소 3년간 투자 유지해야 하는 의무규정 추가
 - 기업인수 투자인 경우 인수 전 최근 12개월간 평균 종업원 수를 초과해야 된다.
 - 고용은 대기업 최소 5년, 중소기업 최소 3년간 유지
 -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 고정자산의 구입시 제 3의 독립된 평가기관을 통한 시장 가격에 구매보장

□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제도

- 대규모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2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8백만 유로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1등급(Class A): BGN 32백만 (EUR 16백만) 이상 투자
 - 2등급(Class B): BGN 16백만 (EUR 8백만) 이상 투자
- 고실업률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 1등급(Class A): BGN 16백만 (EUR 8백만) 이상 투자
 - 2등급(Class B): BGN 8백만 (EUR 4백만) 이상 투자

- 산업부문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 1등급(Class A): BGN 16백만 (EUR 8백만) 이상 투자
 - 2등급(Class B): BGN 8백만 (EUR 4백만) 이상 투자
- 서비스부문의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 1등급(Class A): BGN 11백만 (EUR 5.5백만)
 - 2등급(Class B): BGN 5.5백만 (EUR 2.75백만) 이상 투자를 대규모 투자로 간주,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투자기업은 투자장려법에 따라 투자등급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
 - 행정서비스 단축 (해당: Class A, B), 중앙 및 지역 행정당국과 지자체는 통상적인 기간보다 1/3이 단축된 기간 안에 투자자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허, 허가 등 발급).
 -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개별 행정 서비스 지원(해당: Class A)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적 재산의 경우,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자자에게 판매 및 양도 가능(해당: Class A, B)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적 재산 지역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경우,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자자에게 판매 및 양도 가능(해당: Class A, B)
 -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해당 Class: A)
 - 투자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고용한 직원들의 전문 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시 재정 지원(해당: Class A, B)
 - 투자우대(High priority)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 또는 타기업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체결, 정부차원의 지원, 제도적 지원을 위한 가능성 제공
 - 투자자와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을 위한 회사 간의 거래 지원.

□ 투자우대 장려법(Priority Investment Projects)에 의한 특별우대조치

- 총 투자금액이 1등급(Class A) 투자금액(BGN 32백만)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투자입지가 불리한 지역 또는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경우
- 투자장려법에 명시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투자유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산업단지 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장려법에 명시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첨단과학 연구 및 교육, IT 분야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는 특별우대조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고실업 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 불가리아 재경부가 허가한 명단에 포함된 고실업 지역, 즉 불가리아 평균 실업률보다 높거나 지자체 실업률이 35%를 넘는 고실업 지역의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인센티브는 일부 사전 및 추후 등록요건과 보고의무가 따른다. 면제/인센티브와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 보조금의 가액이 7,500만 BGN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쟁보호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부 보조금(세제상 인센티브 포함) 합계가 3년 동안 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혜조건 심사에 신속성이 부여된다.

- 2007년 1월 1일부로 불가리아의 법인 소득세는 10%를 유지하고 있다. 고실업 지역에 투자한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에 따라 10% 법인소득세의 완전 면제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 고실업 지역에서 수행된 생산 활동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제조업체에 대한 각종 세금면제 혜택
 - 단, 매년 수혜 받은 세금공제액은 세금공제를 요청한 연도의 연말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 취득자산은 합병이나 회사재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내에 처분되어서는 안 된다.
 - 투자지역이 고실업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기 5년간만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투자지역이 준비과정에서는 고실업 지역 이었다가 투자개시 이전에 고실업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4년간만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동차(HS Code 8703)
 - UAE 자동차 시장은 크게 우리나라 자동차를 포함하여 일본, 유럽, 미국산의 4파전 양상을 보인다

7. 노무관리

가. 노동법 주요 내용

- 고용 계약 및 조건은 불가리아 노동법의 Labour Code에 명시되어 있으며 노동법상 인종, 성별 기타 요인에 의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국가 차원에서의 노동 조건은 노동조합 연합, 경영자협회, 정부 등 3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설정된다.
- 불가리아의 노동조합 연합은 The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of Bulgaria와 Podkerpa 등 2개가 있다.
- 개별 기업 차원의 고용 계약은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의하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불가리아의 경우 실업률이 높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워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 사태 등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 편이나 2007년 1월 1일 EU 가입 이후 고용 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들의 집회나 데모 등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2007년 10월 불가리아 교원 노조는 월 급여 100% 인상을 요구하며 약 1개월간 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나. 채용/해고 조건

- 고용 계약서에는 장소, 일의 내용, 급여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무기한 계약이어야 한다.
- 2005년도부터 단기간 용역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 또는 컨설팅 서비스에 국한되며 기타 임시 고용 계약의 경우에도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원천징수 납부 대상이 되었다. 법률,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15%의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있으며 사회보장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임시 고용 계약의 경우에는 지급 시 연간 소득 수준에 의거하여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 의무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단기 용역 계약의 경우 연도 시초부터 받은 소득을 신고 받아 소득세를 산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수습 기간은 보통 3개월이나 최대 6개월까지 인정된다.
- 소득세, 법정 사회보장세 등은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고용 계약 해지 시 30일에서 3개월까지 사전 통지 대상이다.

다. 노동 관련 통계

- 불가리아 정부는 2010년 국가 사회보장세 산정을 위한 최저 임금을 240레바(123유로), 최고 임금은 2,000레바(1,022유로)로 책정하였다.

- 2011년 Q2 기준,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699레바(357유로)로 2010년 647레바(330유로)보다 8% 증가하였다.
- 불가리아 정부는 2010년부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률을 줄이고 대신 피고용주의 부담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률은 58:42이며, 총 사회보장세율은 총 급여의 31.1%이다. 이중 18.10%는 고용주 부담이며, 13%는 피고용주 부담이다.
- 불가리아의 연도별 월 평균 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BGN)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9)
평균	456	548	609	647	707	751
공공부문	561	705	733	748	772	766
민간부문	416	493	558	609	683	736

주: 2012년 평균 환율 US\$ 1 = BGN 1.51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NSI,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www.nsi.bg)

라. 경제활동 분야별 연평균 임금

(단위: BGN)

경제 활동 분야	2011년	2012년(1-9)
총 계	8,487	6,728
농림수산업	6,318	5,232
광업	13,681	11,013
제조업	7,336	5,073
전기, 가스, 냉난방	17,624	13,955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8,143	6,140
건설	7,513	5,555
도.소매업, 무역	7,048	6,116
운송 및 창고업	9,336	7,024
호텔, 요식업	5,443	4,444
정보통신	18,890	15,748
금융업	16,994	13,057
부동산업	7,935	6,863
전문과학 및 기술분야	11,475	9,557
행정 서비스	5,393	4,430
공공행정 및 방위	10,604	7,853
교육	8,574	6,260
보건	8,435	6,575
예술, 연예	7,435	5,821
기타 서비스업	5,935	5,279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NSI,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www.nsi.bg)

라. 노동 시장 여건

- 불가리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0년 실업률은 9.2%, 2011년 Q2 기준 실업률은 9.6%로 당분간 실업률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불가리아의 연도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은 다음의 표와 같다.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9)
실업자수(천명)	256	232	338	382	342	393.2
실업률(%)	6.9	6.3	9.1	9.2	10.4	11.5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NSI,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www.nsi.bg)

- 불가리아의 주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JobTiger'에 따르면, EU 회사들은 불가리아의 EU 가입 이후 소프트웨어 전문가, 기계 엔지니어 등과 같은 고급 인력을 찾는 데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 건설 분야에 불가리아의 값싼 노동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 핀란드, 스웨덴을 비롯 2004년에 EU에 가입한 10개국 중 8개국들(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트바, 사이프러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은 불가리아에 대해 노동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였다. 이는 불가리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불가리아 인구 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 근무 시간

- 대부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근무 시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일일 근무 시간은 통상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이나 공장의 경우 7~15시 근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바. 유급 휴가

- 고용 계약 후 8개월 근무 이후 최소 20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한다.
- 출산 여성의 경우 135일간 사회보장 당국으로부터 9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후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보험을 받을 수 있다.
- 상당히 많은 종류의 유급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병가, 국가시험 휴가, 학생의 경우 시험 휴가 등 매우 다양한 편이다.

사. 정년

- 정년은 일반적으로 남자 63세, 여자 59세이나 직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비교적 육체 노동이 심한 직종의 경우 57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다.

아. 정부의 고용 증대 정책

- 정부는 고용 증대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거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 정부에서는 고용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자 재교육을 통해 연간 4만~5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 이러한 정부의 노력 등에 힘입어 실업률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왔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향후 3~4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 그러나 재정 정책에 대한 IMF의 관여 등으로 인해 고용 촉진 정책의 시행에 한계점도 있다.

자. 인력 확보

- 신규 노동 시장에 공급되는 대학 졸업 인력 등의 확보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에 익숙한 중간 관리자 및 고위 경영진을 확보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편이다.
- 현지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력 확보 방법은 인력조달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인력 공급 에이전트는 4~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인력 공급 에이전트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는 것이 빠르고 용이하다. 현재 활동 중인 업체로는 Hill International, New i, PMC, AIMS Human capital Bulgaria 등이 있다.
- 다른 방법은 현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www.jobtiger.bg, www.rabota.bg, www.jobs.bg)나 일간지의 광고를 통해 인력을 모집하는 것이다. 현지에서 인력 확보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일간지는 24Hours, Trud 등이 있으며 경제지인 Pari나 Capital 등도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광고 매체이다.

차. 외국인 고용

- 불가리아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불가리아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할 수 있다.
- 그 외의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노동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노동 허가증 발급 신청 시에는 신청서 2부, 사진 3매, 고용주의 취업 요청서, 회사 등록 서류, 사업 증명서, 자격증, 피고용자 신원 증명서, 고용주의 과거 12개월간 외국인 고용 실적 증명서, 고용 계약서, 특정 직업과 관련된 증명서,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하다.
- 노동 허가증 발급에는 통상 3주~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외국 인력은 전체 고용 인력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8. 조세제도

가. 불가리아의 조세 종류

- 직접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간접세: 부가가치세, 물품세
- 기타: 지주세, 관세

1)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법(Personal Income Tax Act)에 의해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부과된다.
- 거주자는 불가리아에 영구 거주지가 있거나 1년 365일 중 183일 이상을 불가리아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 불가리아에서 얻은 소득에 한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 불가리아 내에서의 사업 활동으로부터 얻은 개인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개인의 사업 활동이라 함은 불가리아 내에 사업체가 있거나 활동 근거가 있고 불가리아 내에서 소정 과업을 수행하거나 부여 받은 것을 의미한다.
- 개인 소득세 면제 대상
 - 부동산의 교환 또는 판매로부터 얻은 소득
 - 동산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부터 얻은 소득
 - 법정 연금 또는 의료보험, 사회보장 보험으로부터 받은 보상
 - 은행 저축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법정으로부터 얻은 이자 또는 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
 - 사회 금융 지원금 및 실업 수당 등의 금전적 및 비금전적 소득
 - 정부의 아동 양육비
 -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
 - 비엔나 협약에 의한 외교관 소득
 - 농지 임대료
- 과표: 과세 대상 소득의 연간 합계
- 과표 공제
 - 확정적으로 과세된 소득
 - 법정 사회보장세, 개인 사회보장세
 - 기여금(과표의 10% 이하를 한도로 함)
- 2008년 1월 1일부터 소득액에 관계없이 10%의 정률 소득세(Flat rate)를 부과하고 있다.
- 원천징수: 고용주가 매월 원천 징수하여 납부

- 소득별 과세 기준
 - 자본 이득: 자본 취득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를 과세 대상 금액으로 산출
 - 자유 직업 소득: 소득 발생 시 15%를 징수하되 법정 사회보장세 등 납부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
 - 경영진 소득: 민간 계약에 의해 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취득한 소득은 연간 종합 소득세 정산 대상임. 소득 발생 시 15%를 원천징수함. 다만, 경영진이 연간 183일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세 납부 기준에 의거 징수하며 사회보장제도 원천 징수 납부하여야 하고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제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개인 사업 소득: 연간 종합 소득세 정산에 의해 과세
 - 임대 소득: 연간 종합 소득세 정산 대상이며 소득의 15%는 과표에서 공제 허용됨. 임대 소득이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15%의 지주세 징수
 - 로열티 및 기술료: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15%의 지주세를 원천 징수. 경영 서비스 수수료는 기술료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지주세 과세 대상이 아님.
 - 배당 소득: 소득의 15%를 확정적으로 원천징수함.
 -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 계약 소득: 연간 정산 대상 소득임.
 -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소득은 15% 확정 과세 대상
 - 기타 소득: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50%를 확정 과세 원천 징수함.
- 배우자는 독립된 과세 대상이며 배우자 간 소득의 합산 및 분배 신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개인 연간소득 종합신고 기한은 익년 4월 15일
- 개인 소득세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개인 소득세법(Private Income tax Act; www.bfia.org 사이트) 참조
- 불가리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10%의 소득세(flat tax rate)를 부과하고 있다.

2)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 법인소득세법(Corporate Income tax Act)에 의해 모든 회사 및 조합은 법인소득세 납부 대상이다.
- 법인소득세율은 2007.1.1일부로 종전 15%에서 10%로 인하되었다. 이는 유럽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비법인의 경우는 종전의 15%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 특별 법인소득세율
 - 보험 및 재 보험료에 대한 세율은 7%이며 생명 보험료에 대한 세율은 2%이다.
 - 게임, 복권 등에 종사하는 업체의 경우 배팅 수익금에 대한 세율은 8%이며 티켓 판매에 대한 세율은 12%이다.
 - 선물 구입, 오락, 후원 등에 대한 비용 처리와 관련 적용 세율은 25%이다.
 -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수리, 관리 비용 등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 재산 세율
 -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0.15%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 지사의 소득
 - 지사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지방세, 부가 가치세 등 납부 의무가 있다.

- 자본 소득
 - 자본 소득은 법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 배당 소득
 - 타 내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은 지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가리아 업체가 납부해야 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지주세가 부과된다. 불가리아 기업이 외국 기업에게 지불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15%의 지주세가 부과된다.

3) 부가가치세(Value Add Tax)

- 부가가치세는 1999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유럽의 부가가치세법과 제도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다.
- 과거 12개월간 과세 매출 BGN75,000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은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과세매출액이 BGN50,000에서 BGN75,000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등록자는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달 14일 이내에 전월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현재의 부가가치세율은 20%이다. 다만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8%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품목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하였다.

4) 물품세(Excise Duties)

- 특정 물품의 반입 시에는 물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과세 품목
 - 주류(맥주 및 포도주 포함), 담배 제품, 연료,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 카지노 설비 및 게임 용품, 커피 및 차

5) 지주세(Withholding Taxes)

-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특정 형태의 소득 중 외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지주세가 부과된다.
- 지주세 부과 대상 소득 유형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 배당 소득
 - 이자 및 금융리스
 - 로열티
 - 기술 서비스료
 - 임대료
 - 리스 및 프렌차이징, 팩토링
 - 부동산 처분 자본 이득, 주식 및 금융 자산 자본 이득

- 우리나라와는 이중 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0% (외국 기업의 지분이 15% 이상인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0%(정부 및 국가 금융 기관, 비 금융 기관 등에 대해서는 면제), 로열티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 된다.
- 지주세 납부 기한은 익년도 3월 31일이다.

6) 관세(Customs Duties)

- 물품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 납부 시 소비세 및 부가치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 2007년 1월 1일부로 EU 정회원국인 불가리아는 EU 공동 관세율을 적용한다.
-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혜택
 - EU 특별이사회는 2010년 9월 16일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한-EU간 FTA 협정안을 승인하였고, 2011년 2월 17일 유럽 의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 한국 측에서는 2011년 5월 4일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 이에 따라 즉시철폐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관세 혜택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7) 지방세 및 수수료(Local Taxes & Fees)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현재 지방 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부동산세(Real Estate Tax),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쓰레기세(Garbage Charge), 자동차세(Vehicle Tax & Road Charge)

나. 사회보장 제도

- 사회보장 제도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연금 등을 포함한다.
- 고용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보장세 담당 기관(불가리아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불가리아 내에 근무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사회보장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사회보장세는 모든 위험을 커버한다.
- 사회보장세는 2004년까지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 75:25의 비율로 납부했으나 2010년부터는 분담률이 58:42으로 변경 및 조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용자의 부담이 커지고 고용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 의료보험(보험률 8%)을 포함한 총 사회보장세율은 피고용자 총 급여의 31.10%이다. 이중 18.10%는 고용주 부담이며 13%는 피고용자 부담이다.

- 세부 사회보장제 내역별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 부담률(피고용자 총 급여의 %를 의미)은 다음의 표와 같다.

사회보장성 보험의 종류	세율(%)		합계(%)
	고용주	피고용자	
1. 의료보험	4.80	3.20	8.00
2. 사회보험			
- 국민연금	7.20	5.80	13.0
- 추가의무 국민연금*	2.80	2.20	5.0
- 질병 및 출산 연금	2.10	1.40	3.50
- 고용보험 연금	0.5	0	0.5
- 실업 연금	0.60	0.40	1.00
- 고용주파산 보험료	0.1	0	0.1
합 계	18.10	13.0	31.10

주: 1960년 이후 태생 및 제 3 범주에 포함되는 근로자

자료: 불가리아 투자청(IBA)

- 참고 사항
 - 불가리아 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불가리아 영주권이 없는 사람의 경우, 양국 간 의료보험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매년 병원에 갈 때마다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 따라서 고용주 자신에 대한 의료보험료 납부 의무에서는 제외되며 사회보험세만 지불하면 된다.

다. 고 실업률 지역 투자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 과거 2년간 연속으로 실업률이 평균 50%를 초과하는 지역(해당 지역은 법인 소득세법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에 투자할 경우 법인 소득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지방세는 감면되지 아니한다.
- 해당 기업의 투자는 인수, 현대화, 유형 고정 자산의 재건축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해당 투자 자금은 신주인수를 위한 주주들의 추가 출자 등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법인세 감면 금액은 출자 금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 법인세 감면 금액은 투자 연도로부터 5년까지 가능하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 불가리아 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외환관리법을 개정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국제환 거래를 자유화하였으며 동 법에 의해 내외국인의 외환 반출입이 허용된다.
- 외국인 투자자는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정히 납부한 후 외국 통화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투자 수익
 - 국가적 필요에 의해 수용된 투자의 보상금
 - 투자 종료에 따른 청산금
 - 투자물 판매 대금
 - 행정 소송의 결과로 수령한 금액
- 그러나 외화 송금의 경우 1만 유로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소정의 서류에 근거하여 은행을 통해 지불하여야 한다.
- 또한 외환관리법은 영업 활동(자영업 포함)에 의한 해외 지불은 은행 송금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품의 수입, 운송, 원금 및 이자, 보험, 종업원 교육, 의료비 등과 같은 정상적인 국제 지급에 대한 송금이 25,000레바 상당 액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불 목적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모든 자국민 및 불가리아 거주 외국인은 다음의 조건 하에서 자금의 이입과 이출이 가능하다.
 - 8,000레바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신고할 필요 없음.
 - 8,000레바 이상 25,000레바 미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25,000레바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 이출의 경우, 자금의 출처(Origin)와 관할 세무서로부터 지불 기한이 지난 채무가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 당국에 제출 및 승인을 얻은 후에야 자금의 이출이 가능함.

나. 과실 송금

- 과실 송금이 은행 측의 실수로 발생한 경우, 실수가 발생한 당일 또는 다음날 은행 측에서 실수를 수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실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없는 경우, 은행 측 계좌를 통해 과실 송금을 수정한다.
- 그러나 과실 송금이 고객 측의 실수로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 불가리아의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756만 명이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1인당 연간 소득 수준이 6,500달러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며 따라서 구매력이 취약하며 대다수가 빈곤하다.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약 470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 불가리아는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사화 사무소 대신 현지인을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과의 거리, 언어 및 문화 장벽, 시장 규모를 감안해야 하며,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 계약 시 동 파트너의 재정 능력, 네트워크, 신용도, 현지 인맥 활용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사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불가리아 소비자나 기업들은 구매력이 낮아 가격에 가장 민감하며 일부 소비자들은 "Buy Bulgarian"을 선호하기도 하나 불가리아에는 봉제 산업을 제외한 이렇다 할 제조 산업이 없으며 품질 수준이나 다양성이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 상당수 바이어들은 필요 시 서유럽이나 터키, UAE 등 인접국에서 소량으로 수입해 공급하는 거래 관행에 익숙해져 있어 한국 기업들이 생각하는 최소 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특히 40~45일이 넘게 걸리는 해상 운송 기간으로 인해 주기적인 주문 거래보다 단발 성향이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 대금 결제 방식은 L/C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T/T를 사용한다. T/T는 선금 30~40%, 제품 선적 시 잔금 60~70%로 거래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바이어들이 견적서를 요구할 때는 FOB 기준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CNF 또는 CIF 기준을 요구한다.
- 결제 통화는 달러화보다 유로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불가리아 레바화 환율이 유로화에 고정(1유로=1.95583레바)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 바이어들은 환차 위험 회피를 위해 유로화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 불가리아의 소득 분배 구조상 대다수의 저소득층과 일부 신형 고소득층으로 구분되며 중간 소득층이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작으며 저가품과 고가품 시장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판매 가능 품목을 선정하기가 어렵다.
- 지하 경제 규모가 공식 경제 규모의 34%(GDP의 3분의 1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며 따라서 현금 거래, 소량 구매 등 여러 가지 탈세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빈부 격차가 심해 상당수 수입품 가격은 서구, 미국 상가에서 판매되는 유사, 같은 제품보다 실제로 더 비싼 경우도 많으며 이들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국산 자동차 및 전자 제품의 경우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은 편이다.
- 우리나라 제품은 비교적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어 있으나 중국산의 저가품 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격 경쟁에서 열세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가격 경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나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가 필요하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지 수입상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한-EU FTA 가 2011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어 즉시철폐를 통한 수혜품목인 자동차부품(8%), 직물제 의류(8~13%)의 경우, 지금이 불가리아 시장 진출 및 확대에 적기로 보인다. 특히 직물제 의류의 경우 바이어들이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있는 정보를 입수하여 한국산 직물 수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 물가정보

(1달러 = 1.51 BGN / 2012년 12월 1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BGN)
식품류	쌀 1kg	3
	계란 12개	4.5
	쇠고기 등심 1kg	18
	돼지고기 등심 1kg	15
	우유 500ml	1.5
	식용유 1L	3
	생수 1L	1.5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12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4.5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3
	김치찌개 1인분	16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25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3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3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35,000
	무연휘발유 1L	2.80
	자동차 등록비	7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 운전경력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1,5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1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1
	시내버스 기본요금	1
	택시 기본요금	0.7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0.5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3.5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4
	인터넷 월 사용료 (ADSL 기준)	3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1,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0,72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0,72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7,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3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12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6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2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출산휴가일수	720
	연간 국경일수	13일
	주5일 근무 여부	실시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0

3. 바이어 발굴

□ 업체 디렉토리

- 자료명: Bulgarian Business Pages KRAS
 - Publisher: KRAS Plus Ltd.
 - Address: 57A, Dondukov Blvd. 1000 Sofia, BULGARIA
 - Tel: +359 2 981 9040
 - Fax: +359 2 981 8190
 - E-mail: info@kras.net
 - Web: www.kras.net

- 자료명: Golden Pages
 - Publisher: KRAS Plus Ltd.
 - Address: 3 Dr Hristo Stambolski, Sofia 1463, Bulgaria
 - Tel: +359 2 805 1500
 - Fax: +359 2 952 3921
 - E-mail: info@goldenpages.bg
 - Web: http://goldenpages.bg

- 자료명: Bulgaria Business Encyclopedia, Interidea
 - Publisher: Interidea Research Center
 - Address: Dobrudjanski krai Street, Bl. 1 Entr. G 1606 Sofia, BULGARIA
 - Tel/Fax: +359 2 952 4228
 - E-mail: inter_idea@mail.bg

- 자료명: Who is Who on the Bulgarian Computer Market
 - Publisher: New Technik Publishing Ltd.
 - Address: 11, P.Volov Street, 1527 Sofia, BULGARIA
 - Tel/Fax: +359 2 943 4128
 - E-mail: whoiswho@newteck.bg
 - Web: www.newteck.bg

- 자료명: Bulgarian Technical Catalogue
 - Publisher: TLL Media Ltd.
 - Address: Dimitar Nestorov Blvd., Bl. 119, Entr. B 1612 Sofia, BULGARIA
 - Tel./Fax: +359 2 951 6363
 - E-mail: office@tllmedia.bg
 - Web: www.tllmedia.bg

- 자료명: Yellow Pages
 - Publisher: Bulgarian Yellow Pages Ltd.
 - Address: 15. Patriarh Evtimii Blvd. 1000 Sofia, BULGARIA
 - Tel.: +359 2 981 5100
 - Fax: + 359 2 981 5082
 - E-mail: info@yellowpages-bg.com
 - Web: www.yellowpages.bg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1) 동등한 입장에서 상담

- 국민 소득 수준이 낮다고 경시하는 편견을 버릴 것
- 사업 파트너로서 구매력에 관계 없이 진실하게 상담

2) 수출 가능성과 함께 시장 동향 파악도 중시

- 시장 규모, 경쟁 관계 등에 대한 파악을 사전에 할 것
- 시장이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
- 단기적인 측면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

3) 중국 상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라

- 일반적으로 현지 바이어들은 아시아 산 제품이면 중국산을 많이 연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한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품질 등에서 우월하다는 부분을 강조 및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대기업의 경우 직원은 다분히 피동적인 태도

- 동기 부여 등이 낮은 수준임.
- 가능한 한 민간 중소기업체를 사업 파트너로서 적극 모색

5) 신용 상태 등 거래 전 점검 강화

- 금융 부문의 취약성 존속,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성 파악 필요
 - Unicredit Bulbank, UBB, First Investment Bank, Post bank, Raiffeisen bank 등 비교적 건실한 은행과의 거래 유도
- 거래 업체에 대한 신용 상태는 반드시 확인 필요
- 대형 설비의 경우 공급자 신용 제공이 필요
 - 수출입은행: UBB 등과 전대자금 계약 체결 추진 중
- 거래 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분쟁 발생 시 재판 등 사법 제도를 통한 해결 장기간 소요

6) 현지 비즈니스 관행 이해 필요

- 유럽에서 통용되는 품질 인증(규격 인증 포함), 즉 CE 마크를 획득 필수
- 첫 상담 시부터 바이어에게 수입 규모, 연 매출액 등 회사기밀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면 불쾌함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지양 필요

7) 불필요한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사후 관리 철저

- 상담 중 너무 쉽게 약속을 하지 말 것
 - 견본 무료 제공, 즉시 추가 자료 제공 등
- 상담 중 약속 내용에 대한 기록 철저 및 사후 관리 필요
 - 상담 후속 조치 내용은 약속한 기한 내에 이행
 - 이행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해당 업체에 사유를 통보

8) 현지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 노력 필요

- 키릴 문자를 발명한 데 대한 자부심이 강함.
- 선사시대 유적(트라키아 문명) 등 다수 존재
- 유네스코 지정 문화 유산(9개) 및 자연 경관 우수(12개의 국립공원)
- 비잔틴, 터키 등 장기간 외세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강자에 굴복, 명분보다 실리가 우선
- 서양 식사 예절 등에 대한 관심 필요
 - 불가리아는 독주(라키야)로 시작
 - 입안에 음식을 넣은 상태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함.
 - 스프 또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함.
- 불가리아의 독특한 제스처
 - 긍정(예; DA)시 고개를 좌우로 흔들.
 - 부정(아니요; NE)의 경우 고개를 아래위로 흔들.
- 제스처보다는 음성(예, 아니요)를 잘 들어야 한다.

9) 불가리아의 지리적인 여건 활용

- 불가리아 진출 시 불가리아의 지리적 여건(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그리스, 터키, 중동 국가 인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 단순 직수출에 의존하던 기존의 무역 형태를 지양하여 부품 혹은 반제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 판매를 하는 방식(Knock Down, Semi Knock Down)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SKD 방식을 통하여 제품을 서유럽 시장에 판매할 경우, 무관세 교역 및 짧은 운송 기간 등의 장점을 크게 활용할 수 있다.
- 기존 서유럽에 바이어가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불가리아를 물류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1) 가격 조건 제시

- 불가리아의 주요 항구는 Varna이며 통상적으로 Varna 항구까지의 운송 조건에 의한 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C&F Varna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는 그리스 항구 데살로니키를 이용하기도 한다.
- 부산에서 불가리아 바르나 또는 부르가스 항구까지의 운송 비용은 20 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약 2,500 ~ 2,600 달러(2011년 9월 기준) 정도가 소요되며, 바르나 항구로부터 소피아 까지 내륙 운송비는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약 500유로 정도가 소요된다.
- 가격은 유로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리아의 화폐인 레바(Leva; BGN)는 유로화에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1유로=1.95583레바) 현지인들은 대미 달러화 결제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2) 최소 주문량 제시

- 불가리아의 주요 수입상들은 필요 시 서유럽으로부터 소량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거래 관행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소 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시장 규모(인구) 및 구매력(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주문량을 신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결제 조건 제시

- 우리나라 업체는 대부분 T/T in advance 조건이나 L/C(신용장) at sight(일람불)를 요구하고 있으나 L/C 개설 시 약 100달러의 수수료가 소요되어 현지 업체들이 신용장 거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 일부 사전 송금 및 잔액 도착 시 지불 등 결제 조건에 대해 보다 신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다.

4) 계약서 작성 및 법률적 검토

- 일반적으로 불가리아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따르고 있다.
-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불가리아 업체들이 불가리아어 계약서를 희망하는 바, 두 가지 언어의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무역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중요한 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법률 전문가로 하여금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국제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무역,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무역 진출 시 애로 사항

우리 기업들이 현지 무역 진출 시 겪고 있는(겪었던) 애로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협소한 시장 규모(전체 인구 750만 명)와 낮은 구매력(1인당 연간 소득 6,500달러에 불과)으로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최소 주문량에도 못 미치는 소량 주문 빈발
- EU 가입에 따른 역외국에 대한 차별 관세 적용 지속
- 선박 운송의 경우, 한국에서 불가리아 바르나 항구까지 약 40~45일 정도의 긴 운송 기간의 제약
- 중국산 저가품 유입 확대에 의한 가격 경쟁력 약화
- 중국산 짝퉁 제품(Fake Goods)이 널리 유통되고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 열악
- 불가리아 언어 사용에 따른 언어적 장벽
- 유럽 및 인접국가를 통한 한국산 제품의 간접 수입으로 직접수출 규모 감소 추세

나. 투자 진출 시 애로 사항

우리 기업들이 현지 투자 진출 및 현지 경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겪었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복잡하고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변경이 빈번한 법률, 회계, 노동 제도
- 사회주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세부적이고 복잡한 규정 잔존
- 비교적 길고 다양한 유급 휴가 제도
- EU 가입 추진 등 과도기적인 시기로 규정의 빈번한 변경
- EU 가입과 관련 강화되는 환경 기준, 품질 기준 등
- 협소한 내수 시장 규모, 부품 산업 미발달, 낮은 구매력
- 열악한 인프라 스트럭처와 비싼 물류 비용
- 금융 시장의 미발달로 인한 신용 거래와 현지 자금 조달의 어려움
- 숙련된 노동자들의 수급 어려움
- 조직범죄 만연, 심각한 수준의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불투명한 사법제도,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보호 열악
- 불가리아 정부는 쉥겐조약 가입을 준비하고 있어, 장기체류 비자 취득을 위해서 주한국 불가리아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 및 취득 후 불가리아에 입국해야만 됨.
- 과거에는 불가리아 주변국의 불가리아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한 장기 비자 신청. 취득 및 재입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주한국 불가리아 대사관을 통해 사전 비자 신청 및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상 처리 절차로 인한 시간 지연의 불편함이 있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현대중공업 불가리아 법인

- 현대중공업은 1997년 8월, 불가리아 변압기 제조업체인 Elprom Trafo사를 300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불가리아에 투자 진출했다. 그 후 750만 달러를 증액 투자하여 현재까지의 총 투자금액은 약 1,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 현대중공업은 현재 불가리아에서 산업용 변압기 및 Tap-Changer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2009년 75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1억 달러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대중공업의 현지 투자 성공 요인으로 ▲지속적인 감량, 혁신 경영(종업원 수 1,000→500명) ▲가격 경쟁력 확보(현지 저임금 활용-한국의 70%) ▲현지 직원 마인드 개혁(시장경제 체제) ▲해외 시장의 적극적인 개척(90% 이상 수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현 지인 중심의 기업 운영 등이 꼽히고 있다.

□ 에스디엔(구: 서울마린㈜)

에스디엔(SDN) 사는 2010년 6월 현지법인(EU Sunday)을 설립하였고, 국내업체로는 최초 불가리아에 태양광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업체이다. 현재 불가리아의 중부 지역인 '벨리코 트르노보'에 21MW, '하스코보' 지역에 5MW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여 현재까지 총 26MW의 발전소를 완공하였다. 2011년 안으로 추가로 30MW를 확충하여 연말까지는 총 56MW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계획가운데 있다.

- 현지법인명: EU SUNDAY
 - 2011년 3월 남동발전-SDN 태양광 Project Financial Closing 행사가 소피아에서 개최되었음.
 - SDN사는 국내업체로는 최초의 불가리아 태양광발전소 건설 성공사례를 기록하였다.
 - Zlataritsa, Samovodene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 (총 42MW)
 - 사업방식: BOO(Build, Own, Operate), 사업기간 20년
 - 사업비: 약 2,229억원 (남동 예상 투자비: 약 280억원, 산업은행 1,700억원)
 - 참여방식: 남동발전(50%), SDN(50%)

7. 이주정책 가이드

가. 외국인 비자 취득 요건 및 절차

불가리아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비자나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허가는 근로 허가나 기타 법적 근거에 의해 발급할 수 있다.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1회 입국 때 90일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한국을 비롯한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비자가 요구되고 있다.

전세계에 있는 불가리아 외교관서와 영사관은 다음과 같은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 단기 비자: 1회 또는 복수 입국을 위한 90일부터 6개월 또는 1년까지의 단기 체류
- 장기 비자(Type D): 1회 입국 때 90일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다. 이 비자는 불가리아에 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을 담당하는 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발급된다.

나. 거주 허가(Residence Permits)

장·단기 거주 허가는 불가리아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국이 발급하고 있다. 단기 허가는 90일까지, 장기 허가는 1년 간의 장기 체류를 허용한다.

특정 사유에 대한 장기 거주허가는 보통 다음과 같다.

- 근로 허가가 이미 발급되었을 때
- 외국인이 불가리아에서 영업 활동을 하며 최소 10명의 불가리아인을 고용하고 있을 때
- 불가리아에 소재한 외국 회사 대표 사무소에 고용된 무역 관련 대표자
- 외국인 투자법 등의 조항에 의거한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장기 거주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외국인은 불가리아 입국을 위한 장기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이 비자는 해외에 소재한 모든 불가리아 대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장기 비자 발급에는 약 1개월이 소요된다.

불가리아계 외국인과 불가리아인과 결혼한 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은 5년 동안 계속해서 불가리아에 거주한 외국인, 합법적으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불가리아에 투자한 외국인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다. 근로 허가(Work Permits)

외국인의 경우에는 근로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근로 허가를 발급받은 후에만 불가리아에서 근로를 할 수 있다. 근로 허가 취득 근거는 고용 계약 또는 특정한 활동(근로 허가 없이 단기적 업무로 불가리아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의 여행이 될 수 있다.

근로 허가는 국내 고용주가 신청하고 고용청(National Employment Agency)이 발급한다. 허가를 받으려면 수많은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근로 허가는 최장 1년간에 대해 발급된다. 발급 조건이 계속 유효한 경우 근로허가는 1년을 더 갱신할 수 있으나, 단기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불가리아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불가리아에서 일반적으로 근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 외국인(즉, 근로허가 없이 불가리아에서 근로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다.

- 회사나 외국 법인체 지사의 관리자
- 노동계약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국내 회사 이사회의 일원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외국기업의 무역 관련 대표자
- 불가리아에 영구적인 거처를 둔 외국인

근로 허가 없이 단기 업무를 위해 근로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단기 업무 수행 계약을 할 수 있다.

- 고정 주거지는 계속 외국일 것
- 외국인 고용주에 의한 업무상 불가리아 여행일 것
- 불가리아에서의 업무는 3개월을 넘지 않을 것
- 업무는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할 것
- 수입 기계 장치의 설치나 보증 수리, 장치의 작동 교육이나 주문한 장치, 기계, 기타 품목의 인도, 상품 공급을 위한 수출 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교육

그 외 다른 항목의 종업원은 근로 허가를 필요로 함. 법에서 정한 모든 요건에 부합하면 근로 허가를 발급한다.

고용주는 근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 개시 3일 이내에 노동국(Labor Bureau)에 외국인을 등록해야만 한다.

라. 외국인 학교

불가리아에는 국립·사립을 막론하고 많은 외국어 학교가 있지만 외국인 자녀를 국립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정책이 분명하지 않고 그들의 졸업장이 통상 불가리아 외의 단일 국가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가령 제9 프랑스어 학교의 학생들은 유효한 불가리아 및 프랑스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커리큘럼은 불가리아에서 수학하는 대부분의 과목을 포함한 국가적 기준을 따라야만 된다.

사립 학교는 국제 학생들의 필요에 더 잘 부응하기 때문에 선호 대상이다. 사립 학교는 국제적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국제적인 인가도 있으며 서로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 서로 의사를 교환하는 데 ‘학교에서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지인에 섞인 외국인이 아니라 국제 학생들 사이의 국제 학생이라는 기분을 들게 한다.

1) 영어 학교

- American English Academy (<http://www.aea-bg.com/>): (프리스쿨, 유치원, 1~12학년)
 - American English Academy는 International Educational Society의 일부로 1993년 이래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의 회원이었다.
 - American English Academy는 3-18세 아동과 학생을 교육하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Anglo-American School (<http://sofia.ecis.org/>): (프레스쿨, 유치원부터 9학년까지)
 - The Anglo-American School of Sofia는 다방면의 분야를 가르치는 친근한 학교이다. ‘비토샤’산 아래에 자리잡고 있는 이 학교는 도시와 자연이 가까이 있다는 지역적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의 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34개국에서 온 3-15세 아동 약 200명이 재학 중이며, 미국과 영국의 좋은 제도를 결합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 American College of Sofia (<http://www.acs.bg/>): (8~12학년까지의 고등학교 과정)
 - The American College of Sofia(ACS)는 1860년에 플로브디브에 세운 남자 학교와 1863년에 스타라 자고라에 세운 여자 학교에 뿌리를 둔 학교로 미국 밖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 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는 1942년에 불가리아 정부에 의해 폐쇄되었다가 1992년 9월 학생 100명에게 준비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다시 문을 열었다. 매년 1개 반을 증설했고, 1997년 5월에 재개교 이후 첫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 American University of Bulgaria (<http://www.aubg.bg/>): (학부 및 대학원 교육)
 - The American University in Bulgaria(AUBG)의 설립은 1980년 가을에 불가리아와 미국의 교육자, 불가리아 정부가 불가리아에 새로운 형태의 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 Open Society Institute의 설립자인 조지 소로스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후원하였다. 블라고브그라드시가 후보지로 선정됐고 University of Maine 관계자들이 1990년 가을에 초청을 받았다.
 - 계획과 대화가 진전된 결과 불가리아 공화국, 블라고에브그라드시, Open Society Institute, University of Maine이 파트너십을 맺어 AUBG를 설립하였다. 신흥 민주주의 국가에서 구 자유예술고등교육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일부 운영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성공적인 5년이 지난 후 USAID는 독자적 지속과 미래의 재정 독립을 위해 AUBG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다. 이 대학은 1991년 9월 30일 정규 교직원 16명과 208명의 불가리아 학생으로 개교하였다.

2) 프랑스학교

- French School Victor Hugo (<http://www.vhugo.org/>): (프레스쿨, 유치원, 1~12학년)
 - 소피아에 소재한 이 프랑스학교는 전세계 125개국에 소재하고 있는 400개 교육 기관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 이 학교는 ‘Brevet des Collèges’와 ‘Baccalauréat’ 등 두 개의 프랑스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학생 수는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히 증가해 2004년에는 300명에 달하였다. 학생들의 연령은 보통 3~17세이다.

- IFAG-French-speaking Institute for Business Management:(<http://www.ifag.refer.bg/>) (경영대학원)
 - IFAG는 중·동유럽을 위한 야심 찬 프로그램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고등교육기관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이 학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등 발칸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 센터이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유능한 동유럽인 경영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IFAG는 자체적인 DEPA와 프랑스 낭트대학의 CAAE(프랑스에서 MBA와 유사) 등 두 개의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마. 주택 임차

- 전반적으로 신규 주택 건설이 활발하여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 다만, 전반적으로 주택 임차료가 상승하여 협상할 필요가 있다.
- 주택 임차 시에는 반드시 경비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도난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 주택 임차 시에 자동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동 경보 시스템 회사로는 SOT와 SECURITY가 잘 알려져 있다.
- 취학 자녀 학교 위치와 사무실 위치 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지역을 택할 필요가 있다.

바. 현지 교민 및 주재원 관련

1) 우리나라 진출 업체 (2012년 6월말 기준)

- 현대중공업현지법인: 한익희 법인장, 산업용 변압기 제조
- LG전자연락사무소: Mr. Ivan Ivanov, 전자제품 판매
- 삼성물산연락사무소: Ms. Iskra Cholakova 소장, Mr. Vladimir Kaitazov
- 삼성전자연락사무소: Mr. Nick Iconomoff
- (주)초이스: 박종태 사장, 라면 수입 및 유통
- (주)AutoBulgaria: 권영광 사장, 자동차 부품 수입 및 유통
- ASE & RES: 남동발전 김창병 법인장, 태양광발전 투자법인
- 에스디엔: 설종수 법인장, 태양광 모듈 제조 및 수출
- (주)Harex 현지법인: 이영우 사장, 건축자재 생산설비 판매
- Korean House: 윤옥희 사장, 한국 식당
- Jiko Tour: 민지홍 사장, 여행/관광
- Lee's Kor Bul: 이상중 사장, 여행/관광/행사
- KMC Consulting: 김경작 사장, 컨설팅 서비스

2) 유학생

- 주로 음악 분야 유학생이 많으나 최근에는 전공이 상대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 고등 학생의 유학도 증가하고 있다.

3) 선교사

- 70명 정도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교민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도 있다.

4) 주재원

- 대사관, 코트라, 현대중공업 가족이 중심임.
 - 대사관: 전비호 대사, 한민영 참사관
 - 현대중공업: 한익희 상무(법인장)

사. 식품 조달 관계

- 한국 식품점이 없으므로 인근 국가에서 구입, 조달해야 한다.
- (주)초이스에서 한국산 라면을 수입하며 가끔 교민들로부터 식품을 주문 받아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
- 최근에는 독일에서 운영되는 한국식품 인터넷몰 (www.kmall.de 또는 www.kjfood.de)로부터 주문을 하면 1주일 이내에 배달 받을 수 있다.

아. 병원 및 의료 관계

- 아동전문병원, 응급병원, 군인병원 등 공공 병원 이용이 가능하다.
- 민간 병원도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다. Toraks라는 민간 병원의 경우 분야별로 의사가 있으나 매일 진료하지 않으므로 해당 분야의 의사가 언제 진료하는지 사전에 확인 및 예약이 필요하다.
- 치과의 경우 민간 시설이 많으며 대부분 민간 치과를 이용한다.
- 현지 병원 및 의료시설이 열악하므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비상 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인의 경우 일본자본이 설립한 Tokuda 병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나 시설, 의료진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종합병원과 대동소이할 정도로 편리하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금으로 선불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자. 쇼핑 관련

- 서유럽 유통매장이 진출해 있어 식품이나 잡화의 경우 쉽게 구입할 수 있다. METRO (식품 및 일용품, 잡화), Carrefour(식품 및 일용품, 잡화), VILLA(식품), HIT(식품), Praktiker(DIY제품) 등 METRO에서 물품을 구입하려면 회원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며, 회원카드는 매장 입구에 신청할 수 있다.
- 가전제품의 경우 현지 전문 유통 매장(Technomarket, Technopolis)에서 구입할 수 있다.
- 백화점은 시내에 1개(TZUM), 쇼핑몰(Sofia Mall, City Center, Sky City, The Mall Carrefour, Serdika, The Bulgaria Mall)은 5개가 있으며 쇼핑 거리로는 우리 Vitosha Blvd가 있는데 서유럽 유명 브랜드 상점이 많이 진출해 있다. Vitosha Blvd는 차량통제 구간(보행자 전용 구간)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한국의 명동 거리와 같은 변화가이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 보통적인 대륙성 기후로 4계절이 뚜렷하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10.5℃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650mm이다.
- 지역적으로 평 지대와 산악 지대의 기후 차이가 크고 4계절이 뚜렷하다. 여름의 흑해 연안 지역은 소피아에 비해 기온이 높으며 맑은 날씨가 많은 편이다. 우기가 분명하지 않으나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에 비가 자주 내리는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장마 기간은 없다. 가끔 여름에 큰 우박이 내려, 농작물이나 자동차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 여름 기온: 26~35℃, 겨울 기온: -5~5℃
- 소피아의 경우 해발 550m 이상의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분지에 위치해 있어 날씨 및 기온의 변화가 비교적 심하다.
 -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리며 비가 내리는 경우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
 - 여름에는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나 습도가 낮아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다만 여름에 1주일 정도는 열대야 현상처럼 습도가 높고, 무더운 기분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 가을에는 비교적 맑으나 고지대에 위치한 특성상 날씨 변화가 많은 편이다.
 - 겨울에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눈이 많이 내린다.
- 불가리아의 봄은 일년 중 날씨 변화가 가장 심하며 해발 1,000미터 이상 지대에는 4월 중순에도 눈이 내릴 때가 있다. 첫눈은 10월 하순에서 11월 초까지 내리는 편이며 가끔 10월 초에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불가리아의 산악 지대에서는 3월과 4월 중순까지 스키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쌓인다. 자동차로 지방을 여행하는 경우 급격한 날씨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도시 지역에는 안개가 심하게 끼는 경우도 있다.
- 불가리아의 여름은 비교적 덥고, 습도가 낮다. 그러나 산간 지역의 경우 해발이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내려갈 수 있다. 3, 4월에는 비가 오고 날씨 변화가 많지만 6~8월 중에는 비교적 기온이 높고 맑은 날씨를 보인다. 다만 가끔 5~6월경 갑자기 직경 3~4cm의 우박이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 작물 및 차량, 설비 등에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한다. 여름엔 흑해 해안 지역은 휴양객들로 매우 붐비며 일부 산악 지대의 숙박 시설 등도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편이다.
- 불가리아의 가을은 상당히 짧은 편이다. 9월 초까지 흑해 해안에서 휴양을 하기도 하지만 9월 중순이 되면 해수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온이 내려간다. 10월에 첫눈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악 지대의 단풍은 10월 말이 되면 사라지며 11월이 되면 겨울로 접어 든다.
- 겨울에는 지역적으로 폭설이 내려, 교통이 두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겨울에 지방으로 여행하는 경우 일기 예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내륙 지방을 자동차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폭설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방문 시 복장

- 겨울에는 반드시 방한복을 준비해야 한다.
- 여름의 경우 긴 옷은 거의 필요 없으나 갑자기 추워질 수 있으므로 긴 소매 옷을 최소한 한가지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봄과 가을에는 기온 변화가 많으므로 반드시 두꺼운 옷을 준비해야 한다.
- 여름이라 할지라도 산악 지역에서 머무는 경우 긴 옷을 준비해야 한다.
- 여름에는 모기 등 해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 GMT 표준시보다 2시간 앞선다. GMT + 2 (서머타임 기간인 3월말~10월말까지는 GMT + 3)
- 한국과의 시차는 7시간(하계 서머타임 기간은 6시간)이다.
 - 한국 시간 = 불가리아 시간 + 7시간
 - 불가리아 시간 = 한국 시간 - 7시간
- 서머타임 기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 한국 시간 = 불가리아 시간 + 6시간
 - 불가리아 시간 = 한국 시간 - 6시간

2) 근무 시간

- 주 5일 근무제로, 근무 시간은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이다.
- 정부 기관 및 은행: 08:30~16:30
 - 은행의 경우 17:00까지 영업하지만 당일 송금 등의 업무 처리는 15:30에 종료(당일 타 은행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 시간은 은행마다 다소 다르게 운영함)
 - 공무원의 경우 탄력 근무제이므로 사전에 약속하여야 함.
- 기업: 09:00~18:00
 - 일부 소규모 자영 업자, 민간 기업의 경우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 생산 현장: 07:00~16:00
 - 생산 공장의 경우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하는 경향이 강함.
 - 그러나 개별 공장 근무 시간은 각 기업별로 다름.

3) 영업 시간

- 상점: 매일 10:00~20:00
 - 통상적으로 일요일에도 개점하는 경우가 있다.
 - 대형 슈퍼마켓의 경우 연중 무휴 개점

- 식당: 통상적으로 밤 11시까지 영업
 - 통상적으로 일요일에도 영업하나 일부 식당은 일요일 휴무함.
 - 성탄절, 부활절에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음.
- 디스코텍: 통상적으로 밤 10시 또는 11시에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한다.
- 소피아 시내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약 10개가 있으나 대부분의 상점은 10시에 문을 닫는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한다.

4) 여름 휴가

- 공무원들의 경우 대부분 8월에 집중되어 있으나 7월 중순부터 휴가가 시작된다. 휴가 일수는 근무일 기준 연간 20일로, 1개월 정도이다.
- 소규모 자영 업자의 경우 아예 휴가 기간 동안 사무실 폐쇄(약 1개월 정도)하고, 일부 근로자의 경우 여름 휴가 2~3주, 겨울휴가 1~2주를 사용한다.

다. 도량형

- 불가리아는 도량형으로 미터법을 사용한다.
 - 1 Km = 0.62 miles
 - 1 Kg = 2.2 pounds
 - 1 pint = 0.568 litres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비자 발급처는 재외 불가리아 공관, 항공 및 각 국경 출입국 관리 사무소 등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단기사증 면제협정(외교관, 관용, 일반)이 1994년 8월에 체결되어 관광객은 (90일 이내 체류) 비자가 면제된다.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최초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현지 투자 개인 사업자로서 1년 이상의 체재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업체의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10명 미만을 고용할 경우 장기 비자 취득이 어렵다. 다만 투자 금액이 50만 달러 이상이면서 불가리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고용 수와 관계 없이 장기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불가리아 정부는 2004년까지는 개인 투자자는 투자 규모가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 체재 비자를 발급했으나 '05년부터는 투자 금액을 50만 달러로 인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불가리아 구사 능력을 요구하도록 변경했다.

불가리아 정부는 2004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장기 체재 취득을 하지 않고 단기 비자 면제 협정을 이용하여 3개월마다 출국하고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장기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여 적법한 비자 미취득자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규정된 기간 내에 비자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입국 비자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공항 및 각 세관에서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비자 종류에 따라 30유로(대외 공관에서 정상 취득)에서 100유로까지(1년간 멀티 비자)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공항 및 국경 세관에서 비자 취득 시 특별한 구비 서류는 없고 다만 비자 신청서와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 비자 발급처: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

-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 2동 723-42
- 전화: 794-8627
- 휴일: 토, 일요일, 양 국가의 공휴일
- 업무시간: 10:00~13:00

비자 발급처인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에서는 장기 비자의 경우 일단 불가리아에 입국한 후 인근지역 불가리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것을 권하기도 하며 실제로 불가리아에 입국한 후 인근지인 그리스 데살로니키 불가리아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여 발급 받는 경우도 있다.

2)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는 없다.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관 검사 없이 통관한다. 단, 세관원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 검사를 하므로 Sample, 촬영 장비 등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ATA carnet 등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견본을 휴대하는 경우, 반드시 견본이라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현금을 10,000레바(5,000유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 신고 시 이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반출할 수 없으며 세관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압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귀금속의 경우 금 및 백금의 경우 60그램까지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으며 은의 경우 300그램까지 세관 신고 없이 반출입이 가능하다.

3) 방역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

4) 면세품 보유 한도

- 담배 200개비, 또는 Cigar 또는 담배 200g, 또는 Cigarillos 100개 중 택 1
- 술 1리터와 포도주 2리터, 또는 포도주 2리터와 샴페인 2리터 중 택 1
- 향수 50ml
- 커피 500g, 또는 커피 추출액 200g
- 차 100g, 또는 차 추출액 50g
- 현금: 20,000레바(약 10,000 유로 상당) 이내
 - 1인당 현금 소지액이 20,000레바(10,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세관에 미신고한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 현금 압류 조치 및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

위 한도량은 1개월 이내에 2회 입국하는 경우 20%가 감소되고, 총 면세반입 품목가액은 1인당 100유로(미성년자의 경우 5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물품 1개의 가격이 1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물품 여러 개의 가격이 1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관세 및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상업용 물품으로 물품 가격이 100유로를 초과하고 1,500유로 이하인 경우 관세는 5%가 적용되고, 비상업용 물품으로 물품 가격이 15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 표에 근거한 관세가 부과된다.

5) 항공편

소피아에는 유럽의 주요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데 Air France, Alitalia, Austrian Air, British Airways, Czech Airlines, Aeroplott, LOT, Lufthansa, Malev, Olympic, Swissair, Turkish Airline, Hemus Air, Bulgarian Air 등이 있다.

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직항이 없어 타 도시를 경유하며 경유도시는 주로 뮌헨, 이스탄불, 파리, 도하/부쿠레슈티 등이다.

불가리아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서유럽 주요 도시 경유 시 서유럽 도시에 서 체재할 필요 없이 당일 연결되며 한국에는 다음날 도착한다.

Bulgarian Airlines은 국내선인 소피아-바르나, 소피아-부르가스에 취항하며 다수 유럽, 중동 수도에 취항하고 있다.

직항편이 운행되는 주요 도시로는, 부쿠레슈티(루마니아), 아테네(그리스), 이스탄불(터키), 밀라노 및 로마(이탈리아), 취리히(스위스), 런던(영국), 파리(프랑스), 모스크바(러시아), 키예프(우크라이나), 마드리드(스페인), 텔아비브(이스라엘), 바르샤바(폴란드), 프라하(체코), 부다페스트(헝가리),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독일), 비엔나(오스트리아) 등이다.

소피아 공항 홈페이지(www.sofia-airport.bg)에서 소피아와 주요 도시간 항공 일정을 검색할 수 있다.

마. 환율/환전

불가리아 화폐 단위는 레브(Lev)이며 복수의 경우 레바(Leva)라고 부른다. 불가리아 화폐의 약칭은 BGN이며 1999년 화폐 가치의 절상 이전 화폐는 BGL로 표기한다.

불가리아 지폐는 100, 50, 20, 10, 5, 2레바 및 1 레브가 있고 동전은 1레브, 50, 20, 10, 5, 2, 1 스토틴키(Stotinki)가 있다. 1레브는 100스토틴키이다.

1999년부터 IMF에 의해 레바는 독일 마르크화에 고정되어 있었으나 2002년 유럽에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1유로=1.95583레바로 고정되었다. 레바와 미 달러화와의 환율은 유로화와 달러화 간 환율에 의해 중앙은행에서 매일 지정 고시한다. 2011년 9월 12일 기준, 약 1달러=1.415레바이나 환전소에 따라 수수료 부과 여부 및 적용 환율의 차이가 많으므로 미리 환율을 확인한 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전은 은행뿐만 아니라 시내 일반 환전소에서 가능하며 우체국, 은행에서는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요구하지만 시내 환전소에서는 여권 등 신분증 없이 환전할 수 있다. 단, 길거리

에서 접근하는 개인 환전자로부터 환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개인 환전자의 경우, 위폐나 신문 조각 등을 이용하여 속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간 환전소라 할지라도 환율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공항 환전소, 민간 환전소, 은행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환전하며 민간 환전소의 환율이 가장 유리하다. 환전 시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실제 액수보다 적게 줄 수도 있으므로 환전하면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환전상에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환율과 최종 금액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서명하여야 한다.

일부 환전소에서는 1999년 화폐 가치 절상 이전의 구화폐로 환전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환전소에서는 정상적인 환율이 1.50이라고 할 경우 환전소 밖에 고시한 환율을 1.155로 표시하여 다른데 비해서 높은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환전소 밖에 고시된 환율의 소수점 자리 수 및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전소는 대부분 휴일이나 야간에는 문을 닫으나 시내 일부 환전소의 경우 24시간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주말에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공항 환전소에서 소액(20달러 정도)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항에서 환전하는 경우 입국장의 환전소는 환율 차이가 매우 크며 출국장의 환율은 정상적인 환전소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도착장과 출국장의 거리는 50미터 정도이므로 가능하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환전하는 것이 좋다.

불가리아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주요 통화에 대한 그날 그날의 환율 정보는 불가리아 중앙은행 홈페이지(www.bnb.b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 교통/통신

1) 교통 수단

시내 교통 수단으로는 택시, 버스, 트롤레일 버스, 전차(트램), 지하철 등이 있다.

택시 요금은 자유화되어 있어 택시 회사마다 다르므로 승차 시에는 유리창에 적혀있는 요금 체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기본 요금은 택시 유리창에 부착되어있는 요금표의 가장 윗줄에 표시된 금액이 km당 요금으로 이 요금이 0.60레바(평상시 요금)나 0.65레바(야간 할증 요금)로 되어 있는 택시를 탑승하면 된다.

요금표는 보통 두 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왼쪽 보다 작은 숫자는 낮 시간대 요금, 오른쪽의 큰 숫자는 야간 할증 요금이다. 요금표의 첫 줄에 표시된 기본 요금 외에 분당, 거리당 요금 등이 제시되어 있다. 요금표의 첫 줄에 표시된 기본 요금이 0.80레바나 1.0레바로 적혀 있는 택시는 요금이 매우 높은 것이다.

야간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이며 통상적으로 콜을 할 경우 콜 요금으로 1 레바가 추가된다.

콜택시는 OK택시가 신뢰도가 높고 안전하며 근처에서 OK 택시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호텔이나 식당 등에 요청하여 OK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시를 부를 때에는 반드시 목적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늦은 야간에 운행되는 택시의 경우 바가지 요금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부 택시의 경우 미터기를 수동으로 조작 가능한 경우도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로를 우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OK택시 전화번호: 973-2121(영어 구사 가능한 사람이 근무)

택시의 경우 고유한 3자리 숫자 번호가 있으므로 승차 시에는 동 택시 번호를 기억해두면 사후 문제 발생 시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귀중품을 택시에 두고 내리는 경우 해당 고유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짐칸에 실은 짐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도 되찾기가 어려우며 일부 짐을 내려주지 않고 도망가는 택시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소피아를 벗어난 도시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항상 요금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관광지에서의 택시 요금은 소피아의 택시 요금에 비해 아주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미리 택시 요금을 확인하고 승차해야 한다.

비교적 운행되는 시간 간격이 짧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노선을 알아야 하므로 처음으로 도착한 외국인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지하철의 경우, 현재 1개 노선 5개역 구간만 운행되고 있으며 현재 지하철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 전화

호텔의 국제 전화 요금은 매우 높으며 호텔 로비 환전소(리셉션)나 비즈니스 센터에서, 또는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중전화카드 카드(500펄스기준 26레바)를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KIOSK에서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리아 공중전화는 동전용과 카드용으로 구분되며 동전용은 0.50레바 동전을 사용하여야 하고 카드용은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Mobika에서 운영하는 Bluephone 과 Bulfon에서 운영하는 Orangephone이다. Bluephone과 Orangphone은 공중전화기 색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화 카드는 각각 적합한 카드를 이용하여야 한다.

호텔의 경우 국제 전화카드(Net Solution Card)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호텔 체재 시에는 리셉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중전화용 동전(우체국에서 판매)을 투입구 위에 올려놓고 다이얼을 돌리면 된다(상대방이 수화기를 들면 자동 투입).

공중전화는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 난 것이 많고, 공중전화는 디지털 방식 전화(7자리 이상 전화번호)와 아날로그 방식의 두 종류가 병용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의 휴대전화는 GSM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여행자들의 경우 공항에서 임대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서비스 업체는 Mobiltel, Globul 및 Vivatel 등 3개 회사가 있으며 가입자 수는 Mobiltel이 약 65%, Globul 33%, Vivatel이 2% 정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Vivatel은 2005년 12월부터 서비스 개시).

3) 국내에서의 이동

국내선 항공은 흑해 연안의 Varna와 Bourgas 등 2개 도시에 연결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이들 두 흑해 연안 도시에 관광객 전용 국제선이 연결된다.

소피아 공항에서 흑해 연안의 Varna와 Bourgas 공항까지는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국내에서의 이동은 철도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철도에 비해 버스 이용이 편리하다. 철도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부 시설이 저조한 편이다. 버스의 경우 비교적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시간이 단축되고, 운행시간 간격도 짧다. 그러나 전반적인 도로망이 열악하여 버스 여행의 경우에도 이동 거리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차량을 대여하는 것은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비교적 운전 습관이 험악하여 어렵다. 도로는 보수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표지판이 키릴 문자로 되어있어 불가리아 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목적지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4) 우체국

우체국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비교적 편리한 편이고, 우체국의 경우 대부분 점심시간에는 문을 닫는다(12~1시).

일정 중량 이상의 소포는 중앙우체국에서 찾을 수 있다.

EMS 발송은 중앙우체국에서만 가능하나 한국으로의 EMS 발송은 불가능하다.

5) 인터넷 환경

인터넷 카페는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간당 이용료는 대체로 1유로 수준이다.

일부 호텔의 경우 자체 LAN 케이블을 객실에 연결해 놓고 있어 LAN 카드가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를 휴대하는 경우,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시내에는 50~60여대의 컴퓨터를 갖춘 대형 PC방도 설치되어 있다.

개인 가정에서는 주로 모뎀을 이용하여 접속하거나 케이블 TV 회선, 지역 LAN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사. 호텔/식당

1) 주요 호텔

- Sheraton Sofia Hotel Balkan (별 5)
 - 전화: ++359-2-981-6541, 팩스: ++359-2-980-6464
 - 주소: 5 Sveta, Nedelya Sq., 1000 Sofia
 - 무역관 할인 요금: 싱글 99유로, 트윈 99유로(아침 식사, 세금, 봉사료 포함)

- Hilton Hotel (별 5)
 - 전화: ++359-2-933-5000, 팩스: ++359-2-933-5111
 - 주소: bul. Bulgaria 1, 1421 Sofia
 - 무역관 할인 요금: 싱글 133유로, 트윈 157유로(아침 식사, 세금, 봉사료 포함)
- Kempinski Hotel Zografski (별 5)
 - 전화: ++359-2-969-2222, 팩스: ++359-2-969-2223
 - 주소: 1 Bulgaria Blvd., Sofia 1421
 - 무역관 할인 요금: 싱글 85유로, 트윈 105유로(아침 식사, 세금, 봉사료 포함)
- Princess Hotel (별 4)
 - 전화: ++359-2-933-8888, 팩스: ++359-2-933-8777
 - 주소: bul. Maria Luiza 131, 1202 Sofia
 - 무역관 할인 요금: 싱글 50유로, 트윈 60유로(아침 식사, 세금, 봉사료 포함)

2) 주요 식당

- Chevermeto: 불가리아 전통식, 전통 춤, 노래 공연
 - 전화: ++359-(0)2-963-0308
 - 주소: 31 Cherni Vrah Blvd., Sofia
- Captain Cook: 생선요리 전문 식당
 - 전화: ++359-(0)2-954-9098
- Panorama: 불가리아 전통식 및 유럽식
 - 전화: ++359-(0)2-969-2440
 - 주소: Kempinski Hotel, Sofia
- Sakura: 일본식
 - 전화: ++359-(0)2-969-2420
 - 주소: Kempinski Hotel, Sofia
- Sushi Bar: 일본식
 - 전화: ++359-(0)2-943-4004
 - 주소: National Library, Sofia
- WASABI: 일본식
 - 전화: ++359-(0)2-973-3434
 - 주소: Alexander von Humboldt Str.
- 코리아 하우스(Korea House): 한국 식당
 - 전화: ++359-(0)2-963-0365
 - 주소: 34 Elemag Street, Izgrev, Sofia

아. 관공서 관행

관공서의 공식 근무 시간은 통상 09:00~18:00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오전에는 09:30~12:00까지고 오후에는 14:00~17:00 까지라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 퇴근 시간을 전후한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경우 1달 가까이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으며 휴가는 7월과 8월에 집중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면 일이 빨리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부조리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자. 공휴일

1) 법정 공휴일

□ 불가리아의 법정 공휴일 및 연휴 기간

- 3.3(목)-4(금): 국가 해방절(1878년 오스만 터키로부터 해방기념일)
- 4.22(금), 4.25 (월): 불가리아 정교회 부활절
- 5.6 (금): 성 '게오르기' 날 및 국군의 날에 따른 연휴
- 5.23(월)-24(화): 키릴문자 창조기념일
- 9.5(월)-6(화): 통일기념일
- 9.22(목)-23(금): 독립기념일
- 12.26(월): 성탄절에 따른 연휴

2) 임시 휴일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하루 있는 경우 대부분 이 평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통상 해당 평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 주 토요일은 근무일로 지정한다. 부활절이나 5월 초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거의 1주일간 휴무하는 경우도 있다.

3) 여름 휴가

통상적으로 7월 중순부터 여름 휴가가 시작되지만 대부분 8월 중 여름 휴가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는 업체의 접촉이 매우 어렵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터키, 그리스 등의 해안 도시 휴가 시즌이 끝나는 9월 중에도 이들 지역으로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 9월 중순까지도 정상적인 사업 협의가 어렵다.

4) 성탄절 휴가

통상적으로 12월 23일부터 정교의 성탄절인 1월 6일까지 정상적인 사업 협의가 불가능하고 12월 24일부터 연초(1월 2일)까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5) 불가리아 근로자의 휴가

노동법상 8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일 기준 2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무일 기준 20일은 4주간이며 1회의 휴가 기간은 최소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노동법상에서 정한 휴가가 상당히 많으며 학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가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25일 이상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가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여름휴가 2~3주, 성탄휴가 1~2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차. 여행시 유의 사항

1) 치안 문제

폭행, 강도 등 강력 범죄는 빈발하지 않으나 소매치기 등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복잡한 시내에서 가방이나 지갑 등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거리에서 집시들을 흔히 볼 수 있는 바, 길거리에서 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유색인종에 대해 반감을 지니고 있는 그룹도 있으며 이들과는 마찰을 피해야 한다.

조직 범죄 집단 간의 총기 및 폭발 사건 등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며 범행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유흥업소, 식당 등).

리셉션 등 행사에 참석하거나 혼잡한 지역에서는 소지품에 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녁 시간에는 가능한 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으며 유흥업소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현금 및 귀중품 등은 호텔의 сей프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갑 등은 휴대 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며 접근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며 이들이 주는 음식물류는 먹으면 안 된다. 수면제를 사용한 강도일 수 있다.

야간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바가지 요금에 주의(요금 미터기 조작, 우회 등)해야 한다.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OK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요즈음 OK택시를 가장한 택시가 빈번히 다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불가리아의 경우 이라크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테러 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여행하는 경우 테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여행자들은 도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차에서 내릴 때 반드시 자동차 열쇠를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열쇠를 그냥 차에 두고 나올 경우 도둑 맞을 가능성이 높다.

2) 의료 건강 문제

의료 수준은 중간 정도로 평가되나 의료 장비가 구식이고 병원 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지병이 있는 경우 인근 서유럽으로 긴급 이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의약품 구입 시 처방전이 필요하나 일반 약품의 경우 시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하다. 그렇지만 가정 상비약-감기약, 배탈약, 항생제, 연고류 등-은 국내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리에 떠도는 주인 없는 개들을 주의하며, 물렸을 경우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3) 음료수

불가리아는 수질이 좋고 시내 또는 교회 주변에서 무료 제공하는 지하 온천수는 마시는 데 문제가 없으나, 수도물은 수도관이 낡아 불순물이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상점에서 파는 광천수를 마시는 것이 안전하다.

대부분 시판되는 광천수는 탄산이 포함되지 않은 광천수이며 탄산이 포함된 광천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4) 제품 구입 시

대부분 상점은 정찰제를 실시하므로 가격 인하 협상 등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격이 붙어있지 않은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에 주의해야 한다.

5) 식당에서

봉사료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나 음식값의 5% 전후로 봉사료 지불한다. 단, 계산서 상에 봉사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줄 필요가 없다.

잔돈을 거슬러주는 경우 통상적으로 1레바 미만의 잔돈은 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므로 스토틴키 단위의 거스름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당, 바 등의 경우 손님이 주문하지 않은 것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등도 빈번하게 발견되므로 청구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지불할 필요가 있다.

6) 공원에서

거리에는 주인 없는 개, 고양이 등 동물이 많으며 이른 아침 산책하는 경우 거리에 있는 맹견을 주의해야 한다. 불가리아에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개가 무척 많으며 이 중에는 맹견도 있다. 특히 겨울에 먹을 것이 없고 해가 짧은 경우 이른 아침에 거리를 산책하거나 조깅하는 것은 위험하다.

봄부터 여름까지 공원, 풀밭, 산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 흡혈벌레(tick)에 주의해야 한다. 흡혈벌레의 경우 살갓을 파고 들어가며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므로 치명적일 수 있다. 흡혈벌레에 물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병원에 가서 벌레를 제거해야 하며 비전문가가 제거하다가 벌레의 일부가 살갓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더 위험하다.

7) 매춘

소득 수준이 낮아 많은 여성들이 매춘에 관계되고 있으며 도시 내 유흥가 또는 도로변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불가리아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는 공식적으로 약 500명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 환자는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매춘 행위는 절도 등의 범죄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

8) 화장실

공중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사용료는 30~50 스토틴키)이다. 유료 공중 화장실에는 대부분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으나 무료 공중 화장실의 경우 화장지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9) 신용카드 사용

대중 음식점에서나 소매점에서는 대부분 현금 결제만 수용하며 신용 카드는 고급 음식점이나 고급 상품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금결제 비율 90%) 신용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상점의 경우 대부분 출입문에 결제 가능 신용카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소피아의 유명한 쇼핑 거리의 상점들이나 유흥업소에서는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신용 카드의 경우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어 사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별3개 이상의 중급 및 고급 호텔 대부분에서는 신용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지방 도시에 가는 경우 신용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식당이나 상점이 극히 적다. 신용 카드 ATM 기기는 은행 및 대형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 현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무역관

직원명	전화	팩스	e-메일	기타
김명희 관장	+359-2-969-5030	+359-2-969-5033	sheep@kotra.or.kr	무역관 업무 총괄
정순혁 과장	+359-2-969-5035	+359-2-969-5033	branch@kotra-sofia.org	지사화 및 마케팅 총괄 담당
계오르기	+359-2-969-5031	+359-2-969-5033	research@kotra-sofia.org	조사 대행 담당

2) 대사관

직원명	전화	팩스	주소	기타
한민영참사관	+359-2-971-2181	+359-2-971-3388	상동	경제 담당
황인성 영사	+359-2-971-2181	+359-2-971-3388	상동	영사

3) 한인회, 여행사, 한국식당

구분	상호명	전화/팩스	휴대전화	기타
한인회	-	+359-2-973-3915	+359-887-330-249	회장: 최중혁
여행사	Angel Tour	+359-(0)2-971-5173	+359-(0)879-991-339	대표: 배성환
	JIKO Tour	+359-(0)2-840-1259	+359-(0)888-692-583	대표: 민지홍
한국식당	Korean House	+359-(0)2-963-0365	+359-(0)879-991-337	대표: 윤옥희

4) 현지 진출 한국 업체

업체 명	전화	팩스	기타
현대중공업(주)현지법인	++359-(0)2-803-3200	++359-(0)2-936-0742	법인장: 한익희 상무
삼성물산(주) 사무소	++359-(0)2-971-3389	++359-(0)2-971-3386	사무소장: 이스크라 촐라코바 (Ms. Iskra Cholakova)
LG상사 사무소	++359-(0)2-931-1666	++359-(0)2-931-1680	사무소장:루멘라덴코프(Mr. Roumen Radenkov)
삼성전자 사무소	++359-(0)2-971-3796	++359-(0)2-971-3796	사무소장: 닉 이코노모프 (Mr. Nick Iconomoff)
LG전자 사무소	++359-(0)2-817-3434	++359-(0)2-817-3415	사무소장: 이반 이바노브 (Mr. Ivan Ivanov)

5) 한국 교포 기업인

업체 명	전화	업종	기타
Choice Ltd	++359-(0)2-868-7091	식품/직물무역업	대표: 박종태
KMC Consulting	++359-(0)89-9912-407	정착 및 경영자문	대표: 김경작
Auto Bulgaria Ltd	++359-(0)888-973-735	중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판매	대표: 권영광
Sofia House	++359-(0)2-971-5173	민박/하숙	대표: 배성환

6) 종교 관련

교회	전화	팩스	주소	기타
기독교 한인교회	++359-(0)2-945-5741	++359-(0)2-376-569		목사: 강태기
천주교 영어미사	-	-	5 Oborishite Street, Sofia	일요일 오전 11:00
외국인 개신교 영어 예배	-	-	Interpred-WTC, 36 Dragan Tsankov Blvd., Sofia	일요일 오전 11:00

7) 기타 유용한 전화 번호

구분	전화
경찰	166
앰불런스	150
화재	160
전화 안내	144(국내), 0123(국제)
공항 안내	937-2121
열차 안내	31111
카드 분실 신고	986-4544
교통 사고 신고	66-5060

다. 관광 명소

1) 소피아(Sofia) 시내

□ 알렉산더 넵스키 사원

- 네오 비잔틴 양식의 발칸 반도 최대의 사원(사원 내부가 1,300 평방미터로서 5,000 명 집회 가능)이다.
- 불가리아의 해방을 위해 터키와 싸운 러시아 병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882 년 공사를 시작하여 1924 년에 완성했다.
- 내부의 벽은 러시아, 불가리아 유명 화가들이 그린 성화로 가득하다.
- 지하실에는 고대와 중세 불가리아의 유물, 성화를 전시하고 있다.

□ 국립 역사 박물관

- 소피아 시내 중심에 소재하다가 2000 년 8 월 대통령 관저(보야나 소재)의 일부 건물로 이전하였다.
- 1984 국립역사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선사시대부터 1912 년까지의 불가리아 중요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다.

□ 성 게오르기 교회

- 웨라톤 호텔의 정원에 있는 소피아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 3~4 세기경 이교도 사원으로 건축된 것으로 추측되며 로마 시대에 교회로 사용되다가 터키 지배 시에는 회교사원으로 사용되었다.

□ 비토샤 산

- 소피아 시 남쪽에 위치한 해발 2,290m 의 산이다.
- 중턱의 코피토토 호텔(별 5 개) 전망대에서는 소피아 시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최고봉 체르니 브르흐 바로 아래의 알레코까지 케이블카가 운행된다.

□ 법원 건물

- 1940 년 최고 재판소로 건축한 장엄한 건물로 입구에 사자상이 있다.
- 1984 년 국립역사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선사시대부터 1912 년까지의 불가리아 중요 문화재를 전시하였으나, 2000 년에 박물관이 이전하고 법원 건물로 사용 중이다.

□ 국립 미술관

- 불가리아 르네상스 양식에 바로크 양식을 가미한 황색 건물, 터키로부터 해방 후 왕궁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 현재 서쪽 절반은 국립박물관, 동쪽 절반은 민속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 구공산당 본부

- 1989 년 민주화 시위 때 수난을 당했으나 현재는 의원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 세르디카의 유적

- 세르디카는 비잔틴 시대 소피아의 이름으로 구 공산당 본부 앞 광장의 지하에서 5~6 세기경의 성벽과 정문 유적이 발견되었다.

□ 성 페트카 지하 교회

- 구 공산당 본부 앞 광장의 지표 위에 지붕이 나와 있는 교회로 터키 지배 당시인 14 세기에 건축되었다.

□ 성 네멜리야 교회

- 불가리아 정교 교회로 1923 년 이곳에서 당시 국왕 보리스 3 세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 반야 바시 모스크

- 터키 지배 당시인 1575 년 건축된 회교 사원이다.

2) 지방 명소

□ 릴라 사원

- 소피아 남동쪽 120km 의 릴라 산맥 깊은 산림 속에 위치하고 있다.
- 500 년 간의 터키 지배하에서도 불가리아 문자 및 문화를 지켜온 불가리아인들의 영혼의 고향이다.
- 발칸 반도에 있어서 정교 수도원의 총 본산으로 10 세기에 최초 건축되었으나 현재 모습은 19 세기 중반 보수 및 개축된 모습이다.
- 정교한 건축술, 벽화, 성화, 고문서, 나무 십자가로 유명하다.
- 불가리아 내 9 개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
- 소피아에서 차로 2 시간 정도 소요된다.

□ 플로브디브(Plovdiv)

- 불가리아 제 2 의 도시로서 로마시대의 원형극장과 구도시(Old Town)가 보존되어 있다.
- 불가리아 최대 전시장이 있으며 국제 전시회가 자주 개최되며 소피아에서 차로 1 시간 40 분 정도가 소요된다.

□ 벨리코 떠르노보(Veliko Turnovo)

- 11~14 세기 불가리아의 수도로서 독특한 자연 경관과 전통가옥으로 유명하다.

□ 카잔력(Kazanluk)

- 장미의 계곡으로 유명하며, 매년 6 월 첫 주일 장미 축제가 열린다.

□ 코프리브쉬티차(Koprivshitzza)

- 1800년대 후반 터키 지배에 대한 항쟁,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역으로 당시의 전통 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다.

□ 벨로 그라치: 고대 동굴과 돌기둥이 있다.

□ 바르나(Varna), 부르가스(Bourgas)

- 흑해 연안의 여름 휴양 도시이며 항구 도시로서 수입 화물의 반입 관문이다. 흑해 연안에 고대 도시의 모습이 간직되어 있는 네세바르(Nesevar), 소조폴(Sozopol) 등이 있다.

□ 보로베츠(Borovets), 팜포르보(Pamporovo), 반스코(Bansko)

- 스키 리조트가 있으며 겨울철 서유럽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 보로베츠(Borovets) - 소피아에서 1시간 30분 거리
 - 팜포르보(Pamporovo) - 소피아에서 3시간 30분 거리
 - 반스코(Bansko) - 소피아에서 2시간 30분 거리

□ 넷세바르(Nesebar) - 소피아에서 4시간 30분거리

- 흑해 중부 연안의 소도시로 전통 양식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 소조폴(Sozopol) - 소피아에서 4시간 30분 거리

- 흑해 남부 해안의 소도시로 전통 양식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3) 관광 안내 웹사이트

- 불가리아 전체 소개: www.bulgariatravel.org
- 한국인 여행사: www.jikotour.com

9. 주요전시회 개최일정

가.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전시회명: 2013 불가리아 국제 농업 박람회(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

- 개최기간: 2013/03/05 ~ 2013/03/09
- 개최장소: Int'l Fair Plovdiv Exhibition Center
- 주 소: 37 Tzar Boris III - Obedinitel Blvd, 4003, Plovdiv, Bulgaria
- 전시품목: 각종 실험 장비, 치의학, 안과학, 정형학과 등 관련 장비 및 최신 의약품
- 전 화: +359 32 902 316
- 팩 스: +359 32 902 432
- 이 메 일: m.madjarova@fair.bg
- 홈페이지: www.fair.bg

□ 전시회명: 2013 국제 보안 & 안전 시스템 박람회(Security)

- 개최기간: 2013/03/06 ~ 2013/03/09
- 개최장소: International Expo Center
- 주 소: 147, Tsarigradsko Chaussee 1784 Sofia, Bulgaria
- 전시품목: 감시 장치, 경보·컨트롤 장치를 비롯한 각종 보안·안전 시스템
- 전 화: +359 2 9655 318
- 팩 스: N/A
- 이 메 일: pnedelcheva@iec.bg
- 홈페이지: <http://www.bulgarreklama.com/>

□ 전시회명: 2013 불가리아 국제 운송물류 전시회(Transport & Logistics)

- 개최기간: 2013/03/06 ~ 2013/03/08
- 개최장소: International Expo Center
- 주 소: 147, Tsarigradsko Chaussee 1784 Sofia, Bulgaria
- 전시품목: 국내외 운송, 세관 서비스, 창고업 기술 및 장비 등 운송물류 관련 품목
- 전 화: +359 2 9655 281
- 팩 스: +359 2 9655 231
- 이 메 일: odikova@bulgarreklama.com
- 홈페이지: <http://www.bulgarreklama.com/>

□ 전시회명: 2013 불가리아 건축 박람회(BBW: Bulgaria Building Week)

- 개최기간: 2013/03/20 ~ 2013/03/23
- 개최장소: International Expo Center
- 주 소: 147, Tsarigradsko Chaussee 1784 Sofia, Bulgaria
- 전시품목: 건축장비, 건설재료, 창문, 블라인드, 도어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품목
- 전 화: +359 2 9655 272
- 팩 스: +359 2 9655 231
- 이 메 일: ktomova@iec.bg
- 홈페이지: <http://www.bulgarreklama.com/>

□ 전시회명: 2013 불가리아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Bulmedica / Buldental)

- 개최기간: 2013/03/20 ~ 2013/03/23
- 개최기간: 2013/05/15 ~ 2013/05/17
- 개최장소: International Expo Center
- 주 소: 147, Tsarigradsko Chaussee 1784 Sofia, Bulgaria
- 전시품목: 각종 실험 장비, 치의학, 안과학, 정형학과 등 관련 장비 및 최신 의약품
- 전 화: +359 2 9655 277
- 팩 스: +359 2 9655 231
- 이 메 일: mjeliazkova@bulgarreklama.com
- 홈페이지: <http://www.bulmedica.bg/>

나. 전시회 주관사 정보

□ 전시회 주관사명: International Fair – Plovdiv

- Address: 37, Tzar Boris III – Obedinitel Blvd. 4003, Plovdiv, BULGARIA
- Tel: +359 32 90 3600/ Fax: +359 32 90 2432
- E-mail: fairinfo@fair.bg/ Web: <http://www.fair.bg>
- International Fair – Plovdiv 가 주최하는 주요 박람회
 - 불가리아 국제 기술박람회(International Technical Fair)
 - 불가리아 소비재 박람회(International Consumer Goods and Technologies Fair)
 - 불가리아 농산물 박람회(Agra)
 - 불가리아 의료 박람회(Medicus Dento Galenia)
 - 불가리아 와인 박람회(Vinaria)
 - 불가리아 인쇄 박람회(PrintCom)
 - 불가리아 국제 모터쇼(Motor Show)
- 상기 박람회 디렉터리들은 박람회 주관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전시회 주관사명: Bulgarreklama Agency Ltd.

- Address: 147, Tzarigradsko Chaussee Blvd. 1784 Sofia, Bulgaria
- Tel.: + 359 2 965 5220
- Fax: + 359 2 965 5230
- E-mail: bul-reklama@bulgarreklama.com
- Web: <http://www.bulgarreklama.com>
- International Fair – Plovdiv 가 주최하는 주요 박람회 내역
 - 불가리아 건축 박람회(BBW; Bulgaria Building Week)
 - 불가리아 운송·물류·인프라스트럭처 박람회 (Logistics, Transport, Infrastructure)
 - 불가리아 인쇄 및 포장 박람회(Expoprint & Pack)
 - 불가리아 안경 및 사진 박람회(Opto, Photo & Video Salon)
 - 불가리아 의료 박람회(Bulmedica / Buldental)
 - 불가리아 열관리 박람회(Bultherm / Bulcontrola)
 - 불가리아 섬유·의류 박람회(Bgate ; Balkan Gate Apparel & Textile Exhibition)
 - 불가리아 정보통신 박람회(BAIT Expo)
 - 불가리아 조명 박람회(Expolight)

- 불가리아 요트 박람회(Sofia Yacht Show)
- 불가리아 식품 박람회(Interfood & Drink)
- 상기 박람회 디렉터리들은 박람회 주관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다. 전시회 유관기관 정보

□ 전시회 유관기관명: 불가리아 정보통신 협회(BAIT: Bulgaria associ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 주 소: 7, MiziaStreet, Sofia 1124
- 전 화: (+359 2) 946 1513
- 팩 스: (+359 2) 946 1451
- 홈페이지: www.bait.bg
- 담당자: Snezhana Apostolova(Events and Activities Expert)
- 이메일: s.apostolova@bait.bg

□ 전시회 유관기관명: 불가리아 섬유 의류 생산 수출자협회(BAATPE: Bulgarian Association of Apparel and Textile Producers and Exporters)

- 주 소: 7, MiziaStreet, Sofia 1124
- 전 화: (+359 2) 969 3161, 969 3166
- 팩 스: (+359 2) 969 3181
- 홈페이지: www.bgtextiles.org
- 담당자: Ms. Mariana Manolova(Executive Director)
- 이메일: association@bgtextiles.org

라. 협회 조합원 명부

또 다른 유용한 바이어 발굴 방법은 관련 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찾아 보는 방법이다.

불가리아 협회 리스트는 다음의 불가리아 상공회의소(BCCI; 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불가리아 중소기업청(BSMEPA; Bulgari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omotion Agency), 불가리아 산업협회(BIA; Bulgarian Industrial Association)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 BCCI 웹사이트; <http://www.bcci.bg/services/info/associations.htm>
- BSMEPA 웹사이트; http://www.sme.government.bg/IANMSP/Default_en.aspx
- BIA 웹사이트; http://www.bia-bg.com/info/biamembers_en.html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협회 조합원 명부

불가리아 협회 리스트는 다음의 불가리아 상공회의소(BCCI: 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불가리아 중소기업청(BSMEPA: Bulgari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omotion Agency), 불가리아 산업협회(BIA: Bulgarian Industrial Association), 불가리아 투자청(IBA ; Invest Bulgaria Agency)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 BCCI 웹사이트: <http://www.bcci.bg/services/info/associations.htm>
- BSMEPA 웹사이트: http://www.sme.government.bg/IANMSP/Default_en.aspx
- BIA 웹사이트: http://www.bia-bg.com/info/biamembers_en.html
- IBA 웹사이트: <http://www.investbg.government.bg>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은 갈수록 편리하고 보편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요즘에는 오히려 온라인상의 정보가 넘쳐나 취사 선택이 어려울 정도다. 이런 측면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바이어 발굴을 위해 업체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전문 사이트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가리아에는 아직까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사용자 편의의 업체 검색 사이트가 없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국제적인 검색 엔진들을 활용하여 검색어를 잘 입력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는 하다. 불가리아 국내 비즈니스와 관련된 검색 엔진과 온라인 업체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http://www.download.bg/comp_browse.php
- <http://www.elmedia.net/ipp/index-en.htm>
- <http://www.search.bg/?ln=en>
- <http://www.need.bg/en>
- <http://www.info.bg/>
- <http://www.prizone.bg/>
- <http://www.dir.bg/>
- <http://www.prizone.bg/>
- <http://www.gbg.bg/>
- <http://www.google.bg/>
- <http://www.start.bg>
- <http://www.search.bg>